



남·녀 모두

▲남자 웰터급에서 2진 양원철(왼쪽·제주도협회)이 왼발 앞돌려차기를 가하자 1진 김경훈(한체대)이 오른발 얼굴뒤탈차기로 맞섰으나 빔나갔다.

■ 국가대표 1차 평가전 전적

7월 16일 태릉선수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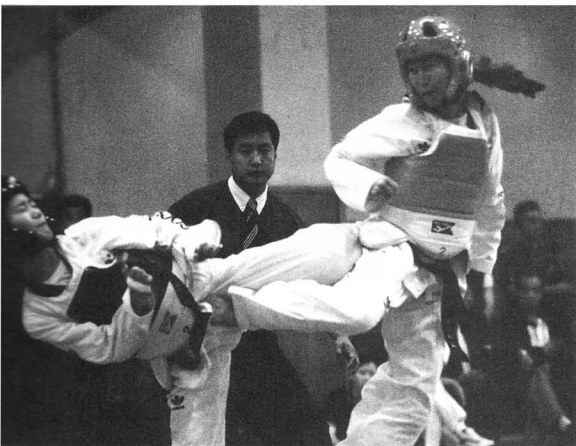
체 급	남 자		여 자	
	승자	패자	승자	패자
핀 급	박희강 (2진)	김병태 (1진)	양소희 (2진)	박정희 (1진)
플라이급	진태승 (2진)	최만용 (1진)	윤송희 (2진)	서미라 (1진)
밴 텀 급	김현웅 (2진)	황병련 (1진)	전남수 (2진)	황은숙 (1진)
페 더 급	김인동 (2진)	신준식 (1진)	정재은 (2진)	진용순 (1진)
라이트급	심기선 (1진)	김병욱 (2진)	신통선 (1진)	강해은 (2진)
웰 터 급	김경훈 (1진)	양원철 (2진)	조향미 (1진)	안근아 (2진)
미 들 급	이동완 (1진)	김민우 (2진)	우연정 (2진)	박선미 (1진)
헤 비 급	김제경 (1진)	방원철 (2진)	정명숙 (1진)	권지희 (2진)

수제 이현 실사...?

경량급은

1진 전멸

국가대표선발 1차평가 뜻밖의 결과



▲여자 플라이급에서 1진 서미라(오른쪽·인천시청)의 원발 발붙여치기에 맞서 2진 윤송화(한체대) 오른쪽 뒷차기로 반격을 가하고 있다.

오는 11월 홍콩에서 열릴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에 파견할 국가대표선발 1차 평가전이 7월16일 태능선수촌 탁구장에서 치러졌다.

남녀 8개 체급 모두 16개 체급에 걸친 평가전에는 대표 1진과 2진이 출전, 3차 평가전까지 치러 3판 2승제로 대표선수를 최종선발하도록 되어있다. 이미 어려운 선발절차를 거쳐 1진과 2진으로 선발된 선수들이기 때문에 경기내용면에 있어서 커다란 기술격차 등을 보이지는 않으리라 예상됐으나 실제로는 큰 점

수 차이로 승패가 결정되는 등 예상과는 달리 결과가 매우 확연히 눈에 들어오는 경기들이 많았다.

더구나 이번 평가전에서는 1진 선수가 2진 선수에게 큰 점수 차이로 지는 경우가 많아 더욱 그러했다. 이것은 A급 선수들의 실력 차이라는 것이 일정기간 내의 훈련량과 컨디션 등에 의해 얼마나 급격하게 변화될 수 있는 것인가를 잘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특히 이번 평가전에서 1진을 이긴 2진 선수들 중에는 과거 1진으로서 세계 챔피언을 지낸 뒤 실업팀에 소속되어 상대적으로 훈련에 소홀했다가 2진 선수로 선발되어 태능선수촌에 입촌한 뒤 하드 트레이닝을 통해 몸 만들기에 성공한 선수들이 여러명 있어 더욱 그렇다.

또한 경량급에서는 대부분 2진이 1진을 이기고, 중량급에서는 1진이 2진을 이긴 것으로 미루어 보아, 선수층이 상대적으로 두터운 경량급에서 실력이 보다 더 평준화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자부 선수들의 전반적인 기량향상으로 경기내용만 보아서는 남녀 선수들의 성별을 구별하기 어려운 지경이었다. 이는 경기장을 6년 만에 찾은 기자가 누구보다 확실히 느낄 수 있는 것으로 과거에 남자 못지 않은 스피드와 파워를 가진 여자선수들이 극소수에 불과했던 것에 비해 보았을 때 이는 매우 놀랄 만한 수준향상으로 보인다.

〈신창화 기자〉

「정신력이 승부 갈랐다」

●국가대표팀 최정도 감독

나는 이번 1차 평가전의 결과가 선수들의 정신력에 의해서 좌우될 것이라 예측했었고 실제로도 그러했다고 본다.

자만심에 빠진 몇몇 1진 선수들이 2진 선수들에 패배한 반면, 2진 선수들은 평가전을 1진 선수로 승격할 수 있는 최후의 기회로 생각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절박하고 비장한 정신상태로 무장을 하고 피나는 노력을 하면서 이번 평가전에 임했기 때문에 의외의 결과들이 속출한 것으로 여겨진다.

사실, 입춘기간이 그리 길지 않기 때문에 그 운동량이나 기술향상 등이 승패에 끼친 영향보다는 정신력이 끼친 영향이 더욱 컸을 것이다.

평가전제도의 도입은 일단 1진 대표선수로 선발되면 그대로 세계대회에 파견될 선수로 확정되었던 과거와 비교했을 때 많은 장점을 지니고 있다. 특히 1진 선수들이 세계대회에 파견되기 직전까지 그 긴장감을 계속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 1진으로 선발되면 상당히 훈련에 능숙하게 임하던 과거와는 그 효율성 면에서 비교가 될 수도 없다고 하겠다.

그러나 1진 선수가 2진 선수에 의해 2진으로 밀려나가거나 2진 선수가 그대로 2진으로 확정되어질 경우, 이들은 1년이라는 입춘 훈련기간을 어디에서도 보상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매우 가혹한 측면도 있다.

그래서 나는 탈락한 선수들도 세계대회보다는 규모가 좀 작은 대회에라도 파견하여 국가를 대표하여 자신들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만 그들의 노력에 대한 보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또한, 남자선수들의 경우는 나의 대표선수 시절보다 스피드와 찬스포착의 측면에서 큰 진보가 있는 등, 상당히 안정적인 상황이라 보여진다. 그러나 여자선수들의 경우 대만 등에 비해 국제대회 경험 등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으로 때문에 매우 불안한 면이 있다.



대만팀의 경우만 보더라도 1진에서 4진까지의 선수를 선발하여 후보선수들을 틈틈히 뒷받침하여 주면서 계속적이고 단계적으로 국제대회의 경기경험을 쌓게하여 매년 대회 때마다 새로운 얼굴이 등장하는 우리의 실적과는 매우 판이한 상황이라 하겠다.

이번 평가전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보자면 선수들이 경기요령과 잔재주에 가까운 가벼운 기술에 너무 의존한다는 점이 안타깝다.

좀더 호쾌하고 큰 동작을 과감하게 사용하여 정말 태권도다운 태권도 동작을 구사하고 또한 이 같은 기술들은 개발했으면 하는 것이다. 특히, 발차기기에만 지나치게 의존하는 스타일은 조만간 한계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고, 보다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기술들이 많이 사용되어져야만 기술의 발전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본다.

코치의 한말씀

● 남자부 양대승 코치



현재 남대표팀의 수준, 특히 중량급의 기량이 역대 국가대표 중 가장 좋다. 그래서 중량급에서 1, 2진이 뒤바뀌거나 하지는 않는다는 관측이 있다.

반면 경량급은 실력이 비슷비슷하다. 예를 들어 핀급경기에서 김병태, 박희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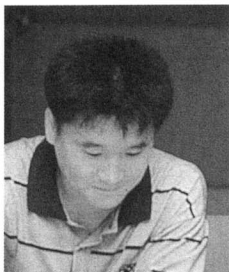
이 지난 86년 대표선발 이후 이번까지 다섯번을 경쟁했다. 서로 거의 KO시킬 정도까지 앞치락뒤치락했다.

그런데 훈련을 같이 하면서 서로에 대해 잘 알게되면서 경기내용이 그 전처럼 서두르는 일반적인 경기가 아니라 차분해졌다.

2, 3차 경기를 관심있게 지켜 볼 만하다. 플라이급의 경우 지난해 최우수대회 때부터 최만웅과 진승태가 맞붙었는데 서로 천적이랄 정도다.

서로 같이 훈련하면서 진승태가 최만웅에 대한 부담감을 덜었던 것 같다.

● 여자부 박영수 코치



장기합숙으로 인해 2진이 1진에 대해 파악된 상태다.

게다가 1진은 심리적 부담은 크면서도 안일한 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다.

반면 2진은 적극성이 컸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다. 2차 평가전에서서는 보다 더 나은

정신자세가 필요하리라 본다.

평가전 제도는 나름대로 큰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문제점은 국제대회에 대비해 훈련해야 할 대표선수들이 평가전 대비를 위해 국내대회를 대비하는 스타일의 훈련을 한다는 것이다.

아무튼 심리부담은 최소화하고 훈련효율은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점차 개선을 해나가야 하리라 본다.

● 여자부 임신자 코치



평가전 제도는 이번 1차전을 통해 일단 긍정적인 면이 검증되었다고 본다. 특히 좋은 선수를 선발한다는 취지에서 그렇다.

그러나 같이 훈련했던 선수들은 상대장·단점을 파악하기 쉽기 때문에 연구, 분석력이 없는 선수는 살아남기 힘

들 것이라 본다.

이번 평가전의 결과는 이것을 잘 반영하는 것이다.

국제대회 경험 유무에 따라 차등 점수를 주는 종합점수제를 선발에 반영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한다.

● 남자부 전정우 코치



1차 평가전에서는 1진 남대표선수들이 심리적으로 위축돼 있었고, 실업팀에 있던 노장(?) 2진 선수들이 충분한 훈련으로 제 기량을 회복했기 때문에 경량급에서 2진이 1진을 압도하는 결과가 나왔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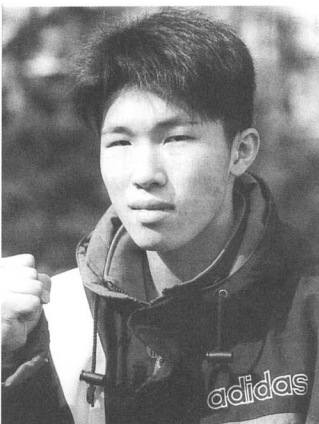
반면 중량급은 1진이 제자리를 고수했

는데 평가전 이후 경기에 진 2진 선수들이 2차 평가전에서는 다른 모습을 보이지며 선전을 다짐하는 화합을 가졌다고 한다.

따라서 2차 평가전은 1진들의 심리적 안정, 2진의 분발로 흥미로운 경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남자 국가대표 1차 평가전

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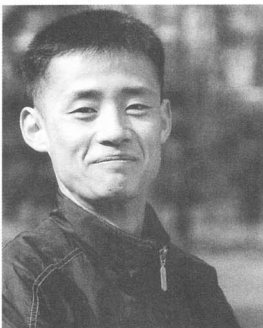


2 진인 박희강(한체대)이 1진인 김병태(용인대)를 3:2의 접전 끝에 물리쳐 평가전의 이변을 예고했다.

박희강은 뒷차기와 빠른 걸음 앞돌려차기로 착실히 득점을 쌓아 나갔고, 김병태는 원발 발붙여 앞돌려차기를 주요 득점원으로 했다.

김병태의 노련하면서도 집요한 원앞발 밀어차기에 이은 원앞발 발붙여 앞돌려차기로 득점을 올리는 작전을 구사했다.

이에 대해 박희강은 원앞발 받아차기로 역습을 가하면서 적시에 뒷차기를 성공시키는 맞불작전으로 대응해 승리를 이끌어 냈다.



두 선수 모두 원발에 능하고 핀급단계 스피드가 매우 빠른 강점을 가지고 있어 다음 2차 평가전에서의 결과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 승자 = 박희강 (2진, 한체대)
- 패자 = 김병태 (1진, 용인대)

플라이급



플라이급에서도 역시 2진인 진승태(가스공사)가 1진인 최만용(한체대)을 3:0이라는 커다란 득점차로 꺾었다. 실업팀에 소속되어 상대적으로 훈련량이 부족했던 진승태가 국가대표 2진으로 선발된 후 태능 선수촌에 입촌해서 치러온 하드 트레이닝이 전성기의 기량을 되살려 놓은 것으로 보인다.

진승태는 원발 앞돌려차기에 연이어 공중에서 곧바로 오른발 앞돌려차기를 하는 오른발 나래차기와 원앞발 받아차기(몸통공격) 등을 성공시켜 3개의 득점을 이끌어내 예상과 다른 일방적인 승리를 거두었다. 2회전까지 2:0으로

진승태가 리드하자 다급해진 최만용은 적극적인 역습을 시도했고 2개의 선취점을 올린 진승태는 후진스텝을 이용한 소극적인 방어와 회피로 3회전을 일관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최만용의 지나친 공격일변도의 경기운영은 또 다시 진승태에게 받아차기를 허용하는 허점을 드러냈다.

진승태의 노련함과 최만용의 투지가 보인 경기였다.



- 승자 = 진승태 (2진, 가스공사)
- 패자 = 최만용 (1진, 한체대)

남자 국가대표 1차 평가전

반편급



벤

텀급도 역시 1진이 2진에게 패배했다. 득점차이도 무려 3점이나 벌어지는 4:1이어서 보이는 이들을 놀라게 했다.

실업팀 소속의 2진인 김현웅(영천시청)의 경우도 과거 챔피언으로서의 기량이 선수촌 입촌 후 퇴색아닌 것으로 보인다.

1진인 황병련(성균관대)은 오른발 앞돌려차기 하나를 정확히 가격하여 득점을 올린 것 외에는 더 이상의 득점을 추가하지 못했고 김현웅은 황병련의 지속적인 오른발 앞돌려차기에 대해 오른발 받아차기로 득점을 올리고 바로 왼발 앞돌려차기 공격에 대해 뒷차기를 정확히 적중시켜 득점을 추가했다.



또한 황병련이 오른발 공격을 시도하려는 순간, 먼저 왼발 발볼여차기를 2회나 적중시켜 2점을 잇따라 올렸다.

"뒷발로 시작하는" 황병련의 약간은 변칙적인 공격시도는 김현웅의 기본적인 겨루기 원칙에 입각한 반격에 무력화되고 말았다.

- 승자 = 김현웅 (2진, 영천시청)
- 패자 = 황병련 (1진, 성균관대)

페더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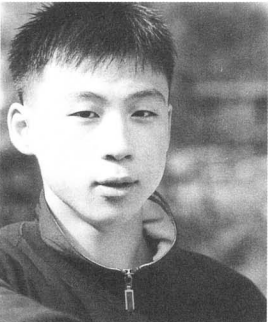
한

국인의 평균 체중과 신장을 대표하는 페더급의 경우도 옹호상박의 모습을 보일거라 예상했으나, 실제로는 현격한 기량 차이로 2진인 김인동(조선대)이 1진인 신준식(풍생고)을 7:4로 이겼다.

김인동은 오른발잡이인 신준식의 약점을 최대한활용, 신이 왼발을 뒤에 두는 원품을 잡으면, 자신은 오른품에서 왼발 발볼여차기를 구사하는 등, 상당히 특이한 —대표급 수준서는 보기 어려운— 변칙적인 기술들을 구사하였다.

동시에, 월등한 스피드와 상대적으로 긴 리치를 이용, 뒷발(오른발) 내려찍기로 다운을 빼앗았고, 기습적인 오른발(뒷발) 앞돌려차기를 이용, 신의 옆구리에 2회나 적중시켜 2점을 올렸다.

신준식의 주요 득점 발차기도 역시 오른발로서 오른발 받아차기가 김의 뒷발 기습공격에 대해 1회 성공하여 득점으로 연결했고, 신준식 자신도 기습적인 오른발(뒷발) 돌려차기 공격을 얼굴과 몸통에 다양히 시도하여 그 중 중단 1회가 성공, 득점으로 연결되었다. 김인동과 신준식은 풍생고로 선수배 관계로서 상호간에 지나친 격렬함은 피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 승자 = 김인동 (2진, 조선대)
- 패자 = 신준식 (1진, 풍생고)

남자 국가대표 1차 평가전

라이트급



라이트급의 1진인 심기선(경희대)은 중량급들은 1진이 이기는 이번 1차 평가전의 특징을 첫번째로 보여준 경우로 신기에 가까운 막기동작(커버링)으로 2진인 김병욱(국군체육부대)의 공격을 모두 무력화시키면서 여우같은 기습으로 5득점을 끌어냈다.

순발력이나 파워, 기술면에서는 김병욱도 뒤지지 않거나 혹은 우위에 있는 것으로 보였으나 그의 공격은 심기선의 귀신같은 막기동작 때문에 오른쪽 앞돌려차기 공격과 왼발 앞돌려차기 공격이 각각 성공, 2점 올린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 반면, 심기선은 왼발이 주특기로 왼발 앞발받



아차기로만 2점을 올렸고, 교묘한 사이드스텝과 커버링을 이용, 다양한 받아차기와 기습공격으로 모두 5점을 올렸다. 심기선은 상당히 고도의 두뇌플레이를 펼치면서도 과감하고 파워있는 동작은 거의 하지않고 그야말로 가볍고 호쾌하지 못한 경기운영을 하여, 그 같은 스타일이 얼마나 더 오래 버틸 수 있을까 의문이었다.

심기선의 교묘한 스텝과 귀신같은 커버링에다 파괴력있고 스피디한 비장의 무기가 하나만이라도 더 추가된다면 좋을텐데.....

- 승자 = 심기선 (1진, 경희대)
- 패자 = 김병욱 (2진, 국군체육부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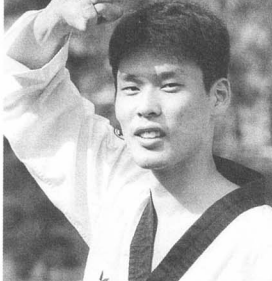
웰터급



1진 김경훈(한체대)은 장신으로서는 보기 드물게 뛰어난 순발력을 갖춘 선수다.

1차 평가전에서 김경훈은 긴 리치를 이용, 왼발 밀어엮차기(속칭 "아웃 발")로 2진 양원철(제주협회)을 견제했다. 왼발, 오른발 받아차기와 왼발 내려차기 및 발볼여차기, 그리고 360° 회전 돌려차기(돌개차기) 등의 다양한 기술을 산뜻하고 정확하게 구사하며 야구경기인지 태권도경기인지 모를 무려 8득점을 끌어내는 득점력을 뽐냈다.

양원철은 오른발 앞발얼굴돌려차기와 오른발 받아차기 등을 성공시키는 등 김경훈에 못지 않은 기량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키가 작은 핸디캡을 극복하지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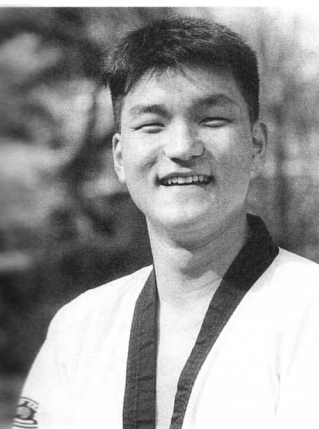


또한 양원철은 상대인 김경훈 선수를 뛰어 넘을 수 있는 순발력과 스피드는 갖추지 못해 아깝게 분패하였다.

- 승자 = 김경훈 (1진, 한체대)
- 패자 = 양원철 (2진, 제주협회)

남자 국가대표 1차 평가전

미들급



한 국체육대학의 코치는 2진인 김민우가 취하는 예비 동작만 보고도 그 다음 동작이 무엇이 될 것인가를 미리 알고 1진인 이동완(한체대)에게 주의를 주거나 역습할 공격을 바로바로 주문하는 등, 김민우에 대한 기술분석 및 상황파악이 거의 완벽하게 끝난 상태로 보였다.

그래서 거의 쌍벽을 이루는 두 선수의 실력에도 불구하고 김민우는 크게 고전하지 않을 수 없었다.

더욱이 김민우는 나래차기(양발차기, 쌍발)를 공중에서 4~5차례씩 연속해서 내보낼 수 있을 만큼 순발력이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상대인 이동완과 코치 간의 훌륭한 합동작전에 의해 패배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동완의 주요 득점타는 원발 앞발 중단받아차기와 원발 발붙여차기 등이었고, 김민우는 원발 나래차기와 원발 발붙여차기로 맞섰다.



- 승자 = 이동완 (1진, 한체대)
- 패자 = 김민우 (2진, 동아대)

헤비급



헤 비급의 최강자인 김제경(삼성물산)은 오른발 뒷발돌려차기 하나만 가지고 3개의 득점을 뽑아내 2진인 방원철(한체대)을 3 : 1로 물리쳤다.

방원철이 원발 돌려차기를 주무기로 삼은 반면, 김제경은 오른발 앞돌려차기를 주무기로 삼아 받아차기성의 기습적인 오른발 공격으로 득점을 획득해 나갔다.

삼성물산의 김세혁 코치(감독 겸)는 큰 점수 차로 김제경이 리드를 하는 상황에서 방원철의 원발 뒷발밀어엮차기를 김제경이 그냥 흘려보내자, 『그걸 받았어야지』하며 김제경이 원발 받아차기를 바로 구사하지 않은데 대해 몹시 아쉬워했다.



김제경의 경기운영은 체력소모를 최대한 줄이면서도 찬스가 나면 절대 놓치지 않고 바로바로 때려주는 것으로 매우 노련하고 경제적인 방식이었다.

투지로 가득찬 방원철의 플레이는 뒷발 오른발을 먼저 차고 들어가는 나쁜 습관으로 인해 크게 손해를 보는 형국이었다.

- 승자 = 김제경 (1진, 삼성물산)
- 패자 = 방원철 (2진, 한체대)

여자 국가대표 1차 평가전

핀급



여자 핀급의 1진인 박정희(한체대)는 선배인 2진 양소희(한체대)에게 부상으로 기권패했다. 지난해 국가대표에선 1위, 여자개인선수권 1위, 용인대 총장기대회 1위 등으로 셋별같이 돌아난 1진 박정희는 18살이라는 나이에 움직임이 좋고 타이밍을 잘 잡는 선수로서 아예 올해에 여자 핀급 부동의 스타로 자리를 굳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받고 있었다. 한편 2진 양소희는 '94 아시아 선수권 3위, '95 세계선수권 2위, '96 아시아 선수권 1위의 국제경기경험을 쌓은 베테랑으로 대학 4년동안 핀급을 장악하고 있던 강자다. 97년도 대표선수 선발전에서는 2위로 밀려나 2진에 머무르고 있으나



다양한 기술과 파워있는 공격력을 지니고 있어, 이번 1차평가전에서 박정희와의 대결이 실현됐더라면 불만했을텐데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박정희는 경험이 짧아 기술이나 경기운영을 다듬어야 되고 양소희는 체중감량의 고통을 어떻게 극복하는가가 과제다. 앞으로 남은 두차례의 평가전에서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지 주목 거리다.

●승자 = 양소희 (2진, 한체대)

●패자 = 박정희 (1진, 한체대)

플라이급



1진인 서미라(인천시청)는 2진인 윤송희(한체대)와 치열한 접전 끝에 분패했다. 특히 이들의 경기는 그 현란한 스피드와 파워로 인해 남자경기 못지않게 보는 이의 손에 땀을 쥐게 만들었다. 윤송희는 오른발, 왼발 받아치기에 모두 능숙하였고 특히 왼발은 공격에도 매우 자유롭게 움직였다.

윤송희의 주요 득점타는 오른발 돌려차기공격(몸통)과 왼발 발볼여차기, 왼발 빠른걸음 앞돌려차기, 왼발 앞발받아치기 등이었다. 서미라는 윤송희에 못지 않는 스피드와 파워를 지니고 있었지만 오른발과 왼발 모두에 있어서 뒷발을 들고 들어가는 버릇으로 인해 많은 득점타를 허용하게 되었다. 그러나 서미라의 공격스피드는 매우 빨라



만약 상대가 윤송희가 아닌 받아치기 스피드 및 파워가 그에 못지 않는 다른 선수였다면, 승패는 달랐을 것이 분명하다. 서미라의 주요 득점타는 오른발 돌려차기와 오른발 내려찍기로서 3회전에는 서미라의 강력한 내려찍기가 윤송희의 얼굴을 강타했다. 점수는 4:1로 점수차가 벌어졌지만 경기내용은 실로 치열한 접전이었다.

●승자 = 윤송희 (2진, 한국체대)

●패자 = 서미라 (1진, 인천시청)

여자 국가대표 1차 평가전

배틀급

배 탈급도 역시 2진인 전남수(경성여실고)가 1진인 황은숙(인천시청)을 판정으로 이겼다. 점수는 1:1로 동점이었으나, 고교생다운 패기로 보다 적극적인 공세를 편 전남수가 우세승을 거두었다. 1회전에서의 길고 지루한 탐색전 끝에 황은숙의 주먹공격이 몇차례 성공했으나 득점으로 연결되지는 못했다.

전남수의 경우 계속적인 공세를 펼치다가 갑작스럽게 주는 페인트모션으로 인해 속아서 나온 황은숙의 오른발 뒷발돌려차기공격에 대해 오른발 받아차기로 대응하여, 1득점을 올릴 수 있었다.

황은숙은 기습적인 오른발 뒷발돌려차기를 위협적으로 구사하면서 그에 이은 나래차기를 성공시켜 1득점을 올렸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적극성의 면에서는 전남수가 우세하여 득점으로도 연결되지는 못했어도 유효타가 상당히 많았던 황은숙을 꺾을 수 있었다. 경기진행 상황을 보았을 때 다음번 평가전에서의 결과는 누구도 예측하기 어려운 것이 될 것 같다.

- 승자 = 전남수 (2진, 경성여실고)
- 패자 = 황은숙 (1진, 인천시청)

페더급

페 더급의 경우도 1진인 진운순(순천시청)이 2진인 정재은(한림여실고)에게 3:3의 접전 끝에 분패했다.

오른발 뒷발얼굴앞돌려차기와 원발 앞발몸통받아차기 등의 기술로 노련하면서도 위협적인 공격으로 3점의 득점을 올린 진운순은 돌파력과 끈기로서 계속적으로 밀어붙이는 정재은에게 원발 앞돌려차기와 오른발 받아차기 및 원발 뒷발얼굴앞돌려차기 등을 연속적으로 허용하고 말았다.

보기도문 미모를 가진 정재은은 외모와는 다른 끈질김과 매서운 독기로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씩씩없는 공격을 가하면서 상대의 공격에 대해서는 물러서지 않고 바로 받아치는 전법을 구사하여 우세승을 얻어냈다.

재미있는 것은 경량급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페더급까지는 1진이 2진에 패배하는 양상을 보인 반면, 라이트급부터는 미들급을 제외한 중량급 전체급이 1진이 승리하여 "아침에 겨운 것과 밤에 겨운 것이 다르다"는 A급 선수들의 실력의 정확한 평가가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는 이야기가 중량급보다는 경량급에서 더 맞는 것임을 증명해 보였다.

- 승자 = 정재은 (2진, 한림 여실고)
- 패자 = 진운순 (1진, 순천시청)

여자 국가대표 1차 평가전

라이트급



1진이 승리하기 시작하는 중량급의 특징이 첫 번째로 보여지는 경기였다.

1진인 신동선(인천시청)은 여자부 경기에서는 보기드문 오른손 주먹 득점을 성공시키면서 기선을 제압하였고, 원발 받아치기를 날카롭게 성공시켜 2득점을 뽑아냈다.

2진인 강해은(상명여대)은 원발 앞돌려차기 공격을 성공시킨 것 외에는 뚜렷한 득점타를 뽑아내지는 못했고 앞돌려차기 공격도 주먹공격과 동시에 행하는 막기동작(교묘히 팔꿈치로 거는 동작)으로 인해 중심을 잃고 넘어지거나 그에 뒤 이은 연결공격에 위협을



당하여 전반적으로 밀리는 인상을 주었다.

그러나 이 같은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하면서 1득점이라도 올려보려는 강해은의 끈기있는 노력은 보는 이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주기 충분했다.

- 승자 = 신동선 (1진, 인천시청)
- 패자 = 강해은 (2진, 상명여대)

웰터급



역시 1진인 조항미(인천시청)가 2진인 안근아(한체대)에게 4 : 0의 큰 점수로 승리했다.

안근아는 뜻밖에도 1점도 올리지 못하는 경기진행을 하여 보는 이들을 의아하게 했으며, 경기가 전반적으로 큰 기복이 없어 안근아의 불타오르는 투지를 전혀 느낄 수 없었다. 이는 남자부 페더급의 신준식과 김인동의 경기진행과 매우 흡사한 것으로 보였다.

물론 조항미는 얼굴에 상처까지 입을 정도로 열심히 경기를 벌였고 그 투지와 매서움은 매우 돋보였다. 조항미는 원발 앞발걸어 앞돌려차기와 원발 발



붙여찍기, 원발 앞발앞돌려차기 및 원발 앞발앞돌려차기 등을 연속하여 성공시킨 것에서 보든, 원발의 사용에 매우 능숙한 선수로 일반적으로 매우 까다로운 범주에 속하는 스타일을 가진 선수라 할 수 있다.

안근아도 열심히 대응하기는 했지만 전반적으로 큰 기복없이 경기를 마무리되었다.

- 승자 = 조항미 (1진, 인천시청)
- 패자 = 안근아 (2진, 한체대)

여자 국가대표 1차 평가전

미들급



1 진인 박선미(춘천시청)가 2진인 우연정(고려대)에게 패하여 중량급에서는 유일하게 2진이 승리하는 이변을 보였다.
점수는 1:1이었으나 많은 점수가 나지 않는 난타전 속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공세를 펼친 우연정이 승리했다.

박선미가 원발 발볼여차기로 1점을 올렸고 우연정은 원발 얼굴앞돌려차기로 1점을 획득하여 1 : 1로써 경기를 끝냈으나, 무수한 발차기가 시도된 열띤 경기였다.

특히 목직한 중량의 발차기들이 오고 갈 때마다 과연 이 경기가 여자부 경기인지 남자부 경기인지 분간이 어려울 지경이어서 여성 선수들의 기량도 나날이 향상되어 중주국의 위상에 걸맞는 경쟁력을 갖춰 나가고 있음을 새삼 느낄 수 있는 경기였다.

두 선수 모두 원발에 능하여 서로가 매우 까다로운 상태를 만난 힘든 경기였던 것이라 생각된다.



- 승자 = 박선미 (1진, 춘천시청)
- 패자 = 우연정 (2진, 고려대)

헤비급



1 진인 정명숙(경희대)이 2진인 권지희(리라공고)를 7 : 1의 큰 점수차로 이겼다.

남자 못지 않은 파워를 지닌 정명숙은 원발 앞발발아차기와 오른발 앞돌려차기, 오른발 앞발발아차기, 오른발 내려찍기 등의 다양한 공격을 통해 기선을 제압하면서 무려 7득점을 올리면서 권지희에 승리했다.

권지희는 아직 발차기가 깊이 있게 성숙된 스타일은 아니었으나 고교생다운 패기와 순발력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였다.

정명숙의 장기는 오른발과 원발의 반아차기 및 오른발찍기로서 권지희로서는 공격력과 투지만 가지고는 몹시 이기기 어려운 상황으로 불규칙적 타이밍을 활동하는 기습공격기법과 페인트 모션 동작 등을 더욱 개발하여 정명숙의 반아차기를 견제한다면 다음의 2차 평가전에서는 또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으리라 보여졌다.



- 승자 = 정명숙 (1진, 경희대)
- 패자 = 권지희 (2진, 리라공고)

태권도

봄조성위해

기획 특집

5천 2백여 도장
36만명 수련

◀가치와라 잇끼 원작, 쥘도다 지로가 그린 「가리데 바가 一代」는 일본 청소년들 사이에 선풍적인 인기를 불러 일으켰다.



오 늘날 소득수준의 향상과 기계문명의 발달은 자가용 자동차,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등의 보급으로 전반적인 운동부족을 가져오고, 한편으로는 칼로리의 과다섭취가 적지않은 어린이들을 비만의 함정에 빠뜨리고 있다.

학업과 과외공부로 쌓이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알맞은 놀이나 운동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미 독일,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의학과 체육전문가들에 의해 밝혀진 사실이다. 지나친 입시위주의 교육이 어

린이들의 신체적 건강 뿐만 아니라 정신위생에도 나쁜 영향을 미쳐 때로 돌이킬 수 없는 비극까지 낳고 있다.

우리의 경우 국기인 태권도가 어린이들에게 정신적으로는 용기와 희망을 심어주고, 육체적으로는 성장에 알맞은 자극을 주는 데다 어느 지역에서나 배우기에 불편하지 않을만치 도장이 널리 퍼져있다. 우리나라 태권도 도장수는 약 5200군데 남짓 되고 한 도장에 약 70명의 어린이 수련생이 다니고 있는 것으로

만화, 많이 만들자

만화 영화, TV애니메이션도

추산되고 있다. 그러니까 현재 36만명 넘는 어린이들이 태권도를 통해 몸과 마음을 튼튼히 키워나가고 있다는 이야기다.

현재 태권도를 익히고 있는 어린이들에게 수련의 의욕을 북돋우고 태권도를 하고 있지 않는 어린이들에게 태권도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는 재미있고 뜻있는 태권도 만화가 신문이나 잡지에 실리고 만화영화나 TV 애니메이션 시리즈로 나와주었으면 하는 목소리가 높다. 태권도 만화가 태권도 보급과 보급성에 과연 도움이 될 것인지 우리나라와 일본의 경우를 비교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가지와라 만화 덕택에 가라데, 대뜸 유명해져



최영의 관장의 회고

고(故) 최영의 관장(일본이름 오오야마 마사타츠·大山倍達)은 일본 가라데의 여러 유파(流派) 가운데 가장 실전(實戰)적이고 가장 널리 알려진 극진(極真)가라데의 창시자다.

3년 전 이 세상을 떠나기 전 최영의 관장은 늘 이렇게 이야기 했었다.

『요즘이니가 가라데를 한다고 몇몇이 내세를 수 있었지만 몇십년 전만 해도 유도의 그늘에 가려 가라데는 찬밥 신세였다.

영화나 소설에서도 유도는 언제나 정의를 대표하고 있었고 가라데는 악한들의 흉기로만 취급돼 왔다. 가라데가 햇빛 보게 된 것은 두 사람의 은인 때문이다.

한 사람은 프로레슬러 역대산(한국 이름 김신익)이다. 2차 대전에서 패배한 일본국민들이 열등감에



사로잡혀 주눅이 들어 있을 때 역대산은 미국인 레슬러를 일본에 불러들여 손날을 휘두르는 소위 가라데 춤으로 덩치 큰 양키들을 매트에 침몰시켜 일본국민들을 열광시켰다.

엄청난 인기를 모았던 역대산의 프로레슬링 흥행 덕분에 가라데 춤은 늘 매스컴에서 다루어졌고 덩달아 가라데가 정의의 무기로 대접받게 됐다.

또 한사람은 스포츠 극화의 원작을 많이 쓴 작가 가지와라 잇키(梶原一騎)다.

그는 나의 가라데 인생을 그린 「가라데 바가一代」를 소년 매거진에 연재해 폭발적인 인기를 모았다.

우리 말로 옮기면 「바보처럼 가라데 외길 밖에 모르는 사나이의 일대기」라고나 할까. 아무튼 동전을 세 손가락으로 구부리고 맨손으로 황소 뿔, 그리고 맥주병을 자른 나의 발자취를 그린 이 스포츠 극화로 나는 하루 아침에 유명해졌고 또 가라데를 시작하겠다는 청소년들도 늘어났다.

극화의 위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 새삼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드래곤 볼」 10년 6개월이나 연재 일본 「소년 챔프」 653만부 팔려



원래는 만화가가 아니라 일러스트레이터였던 일본의 도리야마 아끼라가 주간지 「소년 점프」에 연재했던 「드래곤 볼」은 우리나라에서도 주간지 「아iky 점프」에 옮겨서 연재됐고 단행본까지 나와

어린이들을 뜨겁게 열광시킨 무술만화다.

손오공, 베지타, 무천도사 등 개성이 강한 여러 등장인물이 엮어내는 드라마는 어린이들 뿐만 아니라 어른들까지도 흠뻑 빠져게 만드는 재미를 지니고 있다.

10년 하고도 6개월이나 연재된 「드래곤 볼」은 한국, 홍콩 등에도 선풍적인 인기를 모았고 전자기임으로도 등장할 정도였다.

파란만장의 스토리도 재미있지만 등장인물이 한결같이 귀엽고 멋이 있어 우리나라에서 단행본이 나올 때는 어린이들이 서점에 「드래곤 볼 42권은 언제 나와요?」라고 문의가 빗발치듯 했었다.

일본의 아사히(朝日)신문(97년 7월28일자 석간)은 1면 톱에 「24년 동안 소년 만화주간지의 선두주자였던 「소년 점프」의 부수가 요즘 급격히 떨어져 2위인 「소년 매거진」과 거의 비슷해졌다」고 보도했다. 한 때 「소년 점프」는 지난 95년 주간 653만부라는 엄청난 부수를 자랑했던 적이 있다.

아사히 신문은 「소년 점프」의 급격한 부수 감소의 원인으로 「드래곤 볼」, 「슬램 덩크」 등의 인기 연재물이 끝난 뒤 그 뒤를 이을만한 재미있는 작품이 실리지 못했기 때문으로 풀이하고 있다.

그러고 보면 무술만화 「드래곤 볼」의 위력은 대단했던 셈이다.

『대야망』과 『바람의 파이터』

한국의 본격적인 무도만화의 첫 작품이라면 아무래도 지난날 소년잡지 「새소년」에 실렸던 고우영 화백의 「대야망」을 꼽아야 할 것 같다. 제일동포인 실전 가라테의 총수 고(故)최영의 관장의 생애를 그린 이 「대야망」은 지금 30~40대에 이른 장년들이 어렸을 때 그들의 피를 끓게 만들었던 만화라기 보다 극화였다.

전북 김제에서 태어난 최영의가 16살의 나이에 일본으로 건너가 2차대전 이후 최초의 일본가라테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뒤 인간체력의 한계에 도전,

황소뿔을 맨손으로 쥐고 세계 각국을 돌며 격투기선수들과 대결하는 내용인 「대야망」은 지금도 격투기팬 사이에 화제거리로 남아있다. 얼마 전 스포츠신문인 「스포츠 서울」에 연재됐던 방학기 화백의 작품 「바람의 파이터」도 역시 최영의 관장을 소재로 삼고 있다.

고우영 화백이나 방학기 화백이나 두 사람 모두 극화를 보다 충실한 내용으로 그리기 위해 생전의 최영의 관장을 우리나라에서도 만나보고 또 일본에 건너가 취재하기도 하는 열성을 보였다. 배달민족임을 잊지 않기 위해 일본이름도 오오야마 마스타즈(大山倍達:한국어 발음 대산배달)로 지었던 최영의의 진한 민족정신을 바탕으로 간 「대야망」과 「바람의 파이터」가 큰 인기를 모았던 것은 마땅한 소재로 좋은 작품만 만들어 낸다면 태권도 만화가 많은 독자를 확보할

국가의 명망으로 사료가 단절된 백제의 경우에도,
일본서기에 백제 대좌평 지척을 자기 나라에 초청하여
전아들과 상박을 시켰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백제의 만손무예 역시 태권도의 원조이다.



「대야망」 히트, 태권도때문 미국뒷골목서 품새 뽐낸 일도



만화가 고우영씨

〈어린이 잡지 「새소년」에 최영의 관장을 모델로 삼은 극화 「대야망」을 실어 열광적인 인기를 모았고 그 뒤 「일간스포츠」에 「임격정」, 「일지매」 등을 실은 극화계의 큰 별.

격투기 분야인 태권도에도 관심은 가지고 있다. 미국에 갔을 때 뒷골목에서 흑인들이 둘러쌌을 때 태권도의 품새(?)를 잡았더니 그들이 그냥 물러간 적도 있다. 재미있는 이야기거리를 지닌 태권도의 영웅을 소재로 삼은 극화를 기회가 닿으면 그려 보았으면 하는 마음은 늘 가지고 있다.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일본의 무도만화 붐

한국, 중국, 일본 등 동양무도의 나라들 가운데 무도만화가 가장 먼저 붐을 일으킨 것은 역시 만화왕국인 일본에서였다. 일본의 무도만화는 칼을 쓰는 무사들은 주인공 삼아 그려진 검술 혹은 검도만화로 부터 비롯된다.

소년검사를 내세운 「아카도노 스즈노스케(赤銅鈴之助)」, 또 닌자(忍者)를 주인공 삼은 「이가노 가게마루」(伊賀之影丸) 등이 인기를 모았고 소년만화주간지

특히 붐으로 그리는 동양화적인 그의 필치는 높은 평가를 받아 극화뿐만 아니라 「한국일보」에 시사만화를 연재할 정도로 활동영역이 넓다.

「새소년」에 실었던 「대야망」이 히트를 친 것은 무엇보다도 최영의 관장이 살아 온 길이 파란만장이라 고나 할까, 아무튼 재미있는 이야기거리가 많았던 인물을 모델로 삼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요즘은 신문의 연재를 말고도 단행본으로 나가고 있는 중국 역사 시리즈 10권 가운데 아직 남은 3권을 그리느라 정신이 없다.

극화가란 재미있는 소재에는 언제나 깊은 관심을 지니게 마련이다.

그동안 태권도 홍보를 위해 몇차례 그림을 그렸던 일이 있으며 젊었을 시절 복싱을 했던 나는 같은

「소년매거진」에 실린 제일동포 최영의 관장의 생애 「가라테 바카 一代」가 세미 다큐멘터리 무도극화로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다. 스포츠극화의 천재적인 원작자로 꼽혔던 가지와라 잇끼(模原一騎)는 「가라테 바카 一代」 말고도 제일동포 프로레슬러 역도산과 최영의의 갈 등을 담은 극화 「사나이의 별자리」로 또 한번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았다. 최근에는 순수한 무도만화라기 보다 중국의 무술과 공상 이야기를 하나로 묶은 「드래곤 불」이 소년만화주간지 「소년 점프」의 발행부수를 600만부 돌파로 이끄는 위력을 나타내기도 한다. 이 밖에도 일본에서는 유도만화, 스모(일본씨름)만화, 프로레슬링만화 등이 각각 그전대로 상당한 인기를 모았다.

최영의 · 역도산 등 만화로 소개



귀로 듣지 말고
마음으로 알아라!
마음으로 듣지 말고
기(氣)로 알아라!
귀는 소리를 들을
뿐이고
마음은 사물을
느낄 뿐이지만
기는 비어있어
무엇이든지
다 알아
들어리니!
(최자 재현된 송이서)

▲ 「스포츠 서울」에 연재됐던 무도극화 「바람의 파이터」에서 최영의 관장이 맨손으로 맥주병 찌르는 모습을 그린 장면.

〈실전 무도인 극진 가라데의 창시자 제일동포 고(故) 최영의 관장을 주인공으로 삼은 극화 「바람의 파이터」를 「스포츠 서울」에 연재해서 격투기 팬들에게 많은 인기를 모았으며 역시 제일동포 프

만화가 방학기씨



로레슬러 고(故) 역도산(김신락)의 생애를 그린 「피와 꽃」을 현재 「스포츠 서울」에 연재 중인 극화의 대가〉

나는 언제나 우리 민족의 강한 정신력과 체력, 그리고 빼어난 테크닉이 하나로 어울어진 격투기의 영웅을 그리는데 관심을 지니 왔다.

맨손으로 황소뿔을 꺾고 온 세계의 격투기가들과 대결해서 무패를 기록했다는 실전가라데의 대가인 제일동포 최영의 관장의 생애를 극화로 그린 것도 그런 뜻에서다.

제일동포 프로레슬러 역도산의 발자취를 극화로 추적하고 있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나는 단순한 경기전적을 정리하는 차원에서가 아니라 격투기선수가 어려움과 시련을 이겨내고 세계적인 스타로 떠오르기까지의 피눈을 나는 과정을 그려보고 싶은 것이다.

우리의 국기인 태권도에도 비슷한 슈퍼 스타들이 천만하게 등장했다고 사라졌다고 들었다.

기회가 닿으면 우리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 그리고 용기를 심어주는 태권도 극화를 나의 대표작으로 남기고 싶다.

만화사업, 3조원 황금시장

우리나라 유선 TV의 채널 38은 만화전문채널 「투니버스」다. 동양애니메이션, 세연동화, 대원동화 등 제무구조가 튼튼한 36개업체가 컨소시엄의 형태로 「투니버스」를 설립, 어린이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그만큼 만화는 지금 우리네 생활속에 파고 들어와 있다. 만화영상사업으로는 한국이 한 때 전세계 만화영화 제작물량의 80%를 제작했던 시절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만화영화제작물량은 주문자 상표부착 방식으로 제작되는 미국과 일본의 만화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래서 국제문화권 전시시장에서는 「미국의 자본력과 일본의 시나리오, 프랑스의 캐릭터 디자인이 기본적인 만화영화의 토대를 구축하면 한국의 제작사가 저렴한 가격으로 그려낸다. 그것이 국제만화영화 산업의 모델

이다」라는 식으로 평가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마디로 한국은 TV용 만화영화, 비디오용 만화영화를 제작해 낼 수 있는 세계인들의 기술적 능력을 지니고 있다. 「현재 한국의 만화산업은 암시장 메커니즘의 불확실한 시장구조까지 포함하여 약 3조원의 시장구조를 내재하고 있다. 이중 출판매체산업이 7천억원, 팬시, 캐릭터시장이 1조원, 게임관련산업이 4천억원, 만화영화화관련 음반시장이 2천억원, 테마파크 관련산업이 3천억원 등의 시장구성을 나타내고 있다.

〈주간지「뉴스메이커」 95년 8월 17일자〉

태권도 만화, 가능성은 무한

서울중앙병원 신경내과의 고재영(41)박사는 세계태

끝까지 악자돔는 「타이거 마스크」

우리나라에서도 TV에 방영됐던 일이 있는 「타이거 마스크」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 다.

67년 부터 70년까지 일본의 「주간 우리들 매거진」과 「주간 소년 매거진」에 실렸던 프로레슬링 만화 「타이거 마스크」는 고아원에서 자란 다테 나오토가 호랑이 굴이라는 악역 레슬링 양성조직에 들어가 「타이거 마스크」로 성장해 악역 레슬러로 활약하는 모습을 그렸다.

스포츠 극화의 원작자 가운데 으뜸으로 꼽혔던 가지와라 잇끼(梶原一騎)원작 초지 나오키 그림의 「타이거 마스크」는 처음 호랑이 가면을 쓰고 반칙만을 일삼던 악역 레슬러가 정의감에 눈을 뜨게 되어 호랑이 굴에 바쳐야 될 파이트 머니 까지 고아원에 기부해 버린다.

이 바람에 분노한 호랑이 굴의 자객들로부터 잇달아 습격을 받는 장면들이 독자의 손에 땀을 쥐게 만든다.

마지막에 「타이거 마스크」는 자전거를 타다 넘어진 어린이를 구하려다 덤프트럭에 받쳐 목숨을 잃는다. 최후까지 악한 자를 돔는 「타이거 마스크」의 삶은 오랜동안 팬들의 가슴에 감동을 남겨 주었다.



권도선수권 4연패를 자랑하는 정국현의 팬이다.

『비디오를 통해 본 정국현씨의 경기는 정말 대단했다. 정국현씨 같은 태권도 영웅은 보다 널리 우리 청소년들에게 알려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최영의 관장을 강력한 격파시범과 뛰어난 폼새로 주목하게 만들었던 박연희, 그리고 박연희와 쌍벽을 이루었던 무패의 박동근 등 청소년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북돋아줄 만한 태권도 영웅들이 적지않다. 이 영웅들을 소재로 TV나 비디오용 만화영화를 만들거나 수년만화 주간지 혹은 스포츠신문에 만화를 연재한다면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날 가능성은 짙다.

우리나라의 소년만화 주간지 「아이큐 점프」가 91년 초 일본의 「드래곤 볼」을 옮겨서인 시작 한 뒤 30만부 이상의 발행부수를 기록했고, 라이벌인 「소년 챔프」가 92년 초 일본의 농구만화 「슬램덩크」를 옮겨서인 그 기록을 깨뜨린 것만 보아도 무도만화나 스포츠만화가

얼마나 강한 독자확보력을 가지고 있는지 짐작이 간다.

뛰어난 원작자와 실력있는 극화가의 협력으로 재미있는 태권도만화가 태어난다면 국내시장에서 뿐만 아니라 국제시장에서 큰 히트를 칠 공산이 크다. 일본의 「드래곤 볼」이 한국 등에서 놀라운 인기를 모은 것만 보아도 무도만화의 국제 시장성은 증명된 셈이다.

이소룡의 쿵후영화, 최영의의 가라데극화, 그리고 「드래곤 볼」의 시대를 거쳐 지구가족은 올림픽에 태권도가 정식종목으로 채택된 새로운 21세기를 맞이하게 된다.

그것은 온세계가 동양무도 타기(打技) 가운데 가장 큰 관심을 태권도에 쏟게된다는 것을 뜻한다. 이런 시점을 맞아 우리 만화계와 매스컴이 우수한 태권도만화 제작을 진지하게 검토하기 바란다.

프로 씨름꾼 뒷바라지 하는 「마나님」



이 만화의 주인공인 하츠코는 20살의 나이로 새로 문을 연 스모베아(일본 씨름 체육관)의 마나님이 됐다.

스모베아의 주인인 남편을 도와 각각 개성이 다른 씨름꾼들을 보살피 주는 과정이 담겨진 이 만화는 지난 91년 1월 부터 『빅 코믹 오리지날』에 연재되기 시작했다.

생각 끝에 더 이상 모래판에서 버틸 수 없다고 은퇴하는 씨름꾼, 은퇴하지 않고 버틸 수 있을 때까지 버텨보는 베테랑, 스타가 되지 못하는 씨름꾼의 생활 등 경기장에서는 알 수 없던 여러 가지 뒷이야기들이 이 만화를 재미있는 것으로 만들어 많은 독자들을 확보했다.

처음 스모라고는 전혀 몰랐던 작자인 여성만화가 이치마루(一丸)는 『연재하기 전 편집부로부터 스모만화를 그려보지 않겠느냐는 교섭을 받았을 때 한동안 망설였다』고 털어놓는다.

그러나 만화를 그리기 위해 취재해 나가는 동안 『옆에서 보면 보기 흉할 정도로 허무적 거리며 안간힘을 쓰면서 강해지려는 사나이들의 집념에 사로잡혀 만화를 그리는데 보람을 느끼게 됐다』고 웃는다.

신나는 태권도 만화를

강형석 (11살 · 서울)



「드래곤 볼」 같은 재미있는 만화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드래곤 볼」에는 손오공, 저팔계, 베지타, 무천도사 등 재미있는 사람(아니 저팔계, 그리고 손오공도 사람인가?)들이 많이 등장하고 그림도 귀엽고 이야기도 재미있어요.

저도 태권도를 배우고 있는데요, 재미있고 신

나는 태권도 만화가 나왔으면 태권도를 안하던 어린이들도 태권도를 배우려고 할 것 같아요.

발차기, 굉장히 멋있어

김재형 (9살 · 서울)



저는 만화를 무지무지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태권도도 아주 잘해요.

그런데 「로봇만화」와 「드래곤 볼」 만화는 많은데 태권도만화는 하나도 없어요. 태권도 발차기도 굉장히 멋있는데 만화책에선 못 봤어요.

태권도만화가 나온다면 엄마에게 제일 먼저

사달라고 조를 거예요. 엄마도 흔쾌히 사주실 거예요.

사나이다움 살린 「유도부 이야기」



지난 84년 일본의 「영 매거진」에 연재됐던 유도 만화 「유도부 이야기」는 작가인 고바야시(小林) 마코토가 니이가타(新潟) 상고시절 유도부원으로 지내왔던 자신의 고교생활을 섬세하게 묘사해 큰 인기를 모았다.

「약하긴 해도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는 소년을 그린 자전적(自傳的) 작품을 만들고 싶었다.」는 것이 작가의 말이다.

중학 때 밴드부에 몸담고 있었던 주인공 상고주고(三五五)는 고교에 들어간 뒤 선생의 달콤한 말에 홀려 유도부에 들어간다.

그러나 정식부원이 되자마자 갑자기 무섭게 변한 선생의 기합에 시달리면서 3학년 때에는 전국을 제패한다는 즐거리다.

이 시기 또 하나의 유도만화 「YAWARA(柔)」도 귀엽고 맛있는 유도선수를 테마로 현대적인 유도선수를 표현했는데 견주어 「유도부 이야기」는 기합이나 사나이다움을 리얼하게 표현한 조금은 고풍스러운 작품이었다.

그러나 각지의 유도장에 시리즈 전권이 비치될 만치 「유도부 이야기」는 젊은 유도선수들 사이에 서 대단한 인기를 모았다.

TV도 태권도 만화를

신지수 (7살 · 서울)



저는 만화영화 중에서 「세일러 문」을 제일 좋아해요. 주인공이 너무 너무 예뻐요.

그런데 언니랑 제가 배우고 있는 태권도도 TV에서 만화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태권도를 만화로 배우면 훨씬 재미있을 거예요.

또 태권도 만화영화에

「세일러 문」 같은 예쁜 요정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만화로 배우기 더 쉬워

정회원 (11살 · 서울)



저는 우리나라 역사를 만화로 배우는 게 좋습니다.

만화로 보면 책에서 읽는 것보다 훨씬 더 재미있고 머리에도 잘 들어옵니다.

태권도도 만화로 보면 머리에 잘 남을 것 같습니다.

어린이들은 만화그림을 좋아하기 때문에 만

화로 역사나 태권도를 공부한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만화를 좋아하는 애들이 공부도 잘합니다.

우수도장을 찾아서



③

강동구 암사1동

광동체육관

관장 · 김광현

대한태권도협회는 해마다 시도별로 가장 우수한 도장에게 우수도장상을 수여하고 있다. 올해 서울시를 대표하여 우수도장상을 수상한 암사 1동 광동체육관(관장 김광현 41세, 7단)을 찾아가 보았다.

예절을 강조하는 형제 태권도인

강 동구 암사 1동에는 문을 연지 14년째인 광동체육관이 지역사회에 명문 태권도 교육장으로 손꼽히고 있다. 광동체육관에는 매월 평균 200여명에 달하는 수련생들이 태권도를 배우고 있다.

1983년 문을 연 이래 태권도장에 대한 신뢰가 쌓이고 88년 서울 올림픽 등으로 태권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한 때는 280명에 달한 적도 있다.

수련생이 많다 보니 다른 어느 도장보다도 빨리 문을 열고 가장 나중에 문을 닫는 도장 중의 하나가 되었다. 그래서 광동체육관은 새벽 6시 30분부터 저녁 9시까지 하루종일 태권도 수련생들의 우렁찬 기합소리



▲태권도 7단의 김광현 관장

가 끊이지 않는다. 6시 30분에 시작하는 새벽부는 주로 중고생이 대부분이지만 개중에는 부지런한 초등생들도 끼여있다. 오전에는 유치부 어린이들 43명이 앙증맞은 모습으로 매일 태권도를 통해 신체를 단련하며 예절교육을 받는다. 태권도장이 실재없이 바쁘게 수련생들로 활기를 띠는 것은 오후 수련시간, 2시 20분부터 3시 20분까지 주로 초등학교 저학년 수련생들이 태권도를 수련하고 가면 이어 4시부, 5시 30분부, 7시부, 8시부도 1시간마다 수련생들이 몰려와 심신을 단련한다.

태권도 지도는 김광현 관장과 이정산 사범(30세, 5단), 유정우 사범(20세, 4단)이 맡고 있다.

유치부 지도를 위해 태권도 사범 외에 정윤진 선생님(25세, 미술전공)이 아이들을 자상하게 보살펴준다.



▲사범님의 구령에 맞추어 태권도를 수련하고 있는 광동체육관 수련생들.

기술지도와 예절교육을 함께 마지막 5분 - 정신교육시간으로

광 동체육관의 가장 큰 특징은 태권도 기술지도 못지 않게 예절교육을 중요시 하는데 있다. 유치부 어린이 때부터 예절을 잘 지키는 태권도인으로 키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김관장. 그는 “태권도를 배워 신체를 단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보다는 태권도 수련을 통해 나약하거나 비뚤어진 성격을 고쳐나가는 인성교육면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지도하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광동체육관의 태권도 교육은 20분간 기초체력운동, 스트레칭 등을 실시하고 30분간 태권도 기술지도, 5분간 게임, 마지막 5분은 그날의 정신교육시간으로 할애하고 있다. 매일 5분에 불과하지만 정신교육 시간에 수련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를 연구하는 것이 태권도 지도 못지않게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

고 있다. 매일 책을 뒤적거리거나 신문에서 아이디어를 얻기도 한다. 최근에는 명심보감 책을 보고 있다. 부모님의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보답할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님을 기쁘게 해 드리는 것인지, 친구들과 간에 우정을 지키고 가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등을 매일 반복해서 들려주고 중요한 구절은 외우게 하고 있다. 당장에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수련생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태권도인은 이렇게 해야 하는구나”하는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이 김관장이 바라는 교육효과이다.

성공적인 도장운영으로 태권도 우수도장상을 받은 김관장의 운영비결은 자상한 지도에 있다. 그는 늘 어떻게 하면 도장을 잘 운영할 수 있을까 궁리한다. 어느 도장을 가든지 그 곳에서는 어떤 점들이 배울만한

태권도협회 선정 우수도장 탐방

가 눈여겨 보는 것이 습관이 되었다.

광동체육관은 수련생들을 모집하기 위해 광고전단을 뿌리거나 하는 일은 별로 없다. 현재 수련생들을 잘 지도하면 그 수련생들 자체가 광고를 대신해 주고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학부모들도 아이가 태권도 도장에 다니고 난 뒤부터 몰라보게 의젓해져 가는 것을 보고 옆집 아이 엄마에게도 권하게 되고 그러다보면 하나 둘씩 친구들이 태권도장 문을 두드리게 된다는 것.

광동체육관 사범들은 그래서 무엇보다도 수련생들을 지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신념으로 가득차 있다.

8형제중 6명이 유단자, 4명 도장운영

요즘 도장마다 매트가 보급되어 수련생들이 안전하게 뛰고 구르며 운동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러나 간혹 발가락이 점지르는 부상이 발생하기도 한다. 그럴때면 관장이나 사범이 아이들을 직접 병원 데려가 치료를 받게하는 것은 물론 퇴원 후 병원 치료까지 체육관이 모든 책임을 지고 처리해준다.

이렇게 자상하고 세심하게 수련생들을 지도하다 보

니 다른 도장에서는 아이들이 1년 정도 배운 뒤 그만두는 경우가 많은데 비해 70~80%가 3, 4년을 다닌 유단품자들이다.

5세 때부터 시작해 8년째 태권도를 배우고 있다는 이홍상(강일중학교 1학년)은 현재 3품. 광동체육관에 이렇게 오래 다니고 있는 이유에 대해 “관장님, 사범님께서 자상하게 잘 지도해 주십니다. 물론 저희가 잘못했을 경우에는 따끔하게 혼내주시기도 하시지만요, 태권도를 배우니까 몸도 튼튼해지고 모든 일을 잘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어요.”라고 자랑했다. 홍상이는 태권도 유단자라고 해서 힘차람을 일삼는 아이들과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다.

“태권도를 배웠기 때문에 친구들과 싸움을 잘 한다거나 하는 일은 없습니다. 오히려 싸움은 안하게 됩니다. 대신 나쁜 사람들이 저에게 행패를 부린다거나 하면 당당하게 방어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친구들이 싸울 때 나서서 말려 줄 수 있는 것도 태권도를 배웠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봅니다.”

학원폭력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요즘은 태권도 수련생의 이 한마디는 태권도를 통해 심신을 단련하게 되면 바로 폭력없는 학교를 만들고 폭력없는 학생을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재미있고 신나는 게임시간. 오늘은 땀싸움이 펼쳐졌다.

형에게 태권도 배워

김 관장은 언제 어떻게 태권도를 배우기 시작했을까?

김관장은 1957년 전북 정읍에서 태어났다. 그가 태권도를 배운 것은 초등학교 때, 그의 둘째형 덕이었다.

그가 사는 시골 마을에는 태권도장이 없었다. 이리로 고등학교를 통학하던 둘째형은 당시 3단의 실력자였는데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동네 아이들을 모아놓고 태권도를 가르쳤다.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형으로부터 태권도를 배우기 시작했다.

김관장은 집안은 모두 8형제. 이 중 6명이 유단자이고 이들 중 현재 4명이 태권도장을 운영하고 있는 태권도 가족이다. 첫째형은



▲밝고 당당한 수련생들의 모습에 미래의 희망이...

4단. 이리에서 잠시 사범을 했지만 곧바로 회사에 취직해 직장인이 되었다. 그에게 태권도를 가르쳐 주었던 둘째형도 일반 직장에 다니고 있다. 8형제 중 셋째 형과 막내 동생이 태권도를 배우지 않았고 넷째형이

6단, 다섯째형이 7단, 여섯째인 김관장이 7단, 일곱째인 동생이 5단으로 현재 태권도장을 운영하고 있다. 형제간에 모이면 태권도 이야기로 밤이 새는 줄 모른다. 또한 태권도장을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좋은가 서로 의견을 교환하다보면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기도 한다.

김관장의 두 자녀도 모두 유품자이다. 첫째 경민이는 강동초등학교 6학년인데 1품이다. 여자아이라 그런지 태권도에 그다지 흥미를 갖지 않아 1품에서 끝나고 말았지만 아들인 건형이(강동초등학교 3학년)는 현재 3품이다. 아빠를 닮아 운동을 좋아하고 태권도도 아주 잘한다. 가끔 담력을 키워주기 위해 대회에도 출전시키지만 선수로 키울 생각은 없다고 한다. 그는 아이들이 태권도 유단자로 성장한다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의 장래에 대해 그다지 걱정하지 않는다. 불의와 맞서 싸울 수 있는 자신감이 있을 것이고 몸이 건강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 김광현 관장 약력

1967년 전북 정읍 출생 (41세)
태권도 7단
대한태권도협회 상임심판원
서울시협회 심판분과부위원장
서울시협회 상임심사전문위원
광동체육관 관장

〈참고〉

광동체육관 주소 :
서울시 강동구 암사 1동 493-9 광동체육관
전화번호 : 442-1038 (도장)
011-283-1616(핸드폰)

(도건영 · 태권도ライター)



하 권 익 박사

성균관 의대
삼성 서울병원 정형외과 교수
(스포츠의학과)

스포츠의학의 권위자들이 쓰는

어린이와

태 권 도



심 중 섭 박사

성균관 의대
삼성 서울병원 정형외과 교수
(소아정형외과)

운동과 평발

어린이들이 자라면 팔다리의 뼈와 근육도 조화롭게 크고 튼튼해지는 것이 정상적이고 자연적인 현상이다. 이러한 인체의 팔다리 구조물 중 어린이가 걸음걸이를 하게 되면서 묵묵히 운동충격을 받아내어 완화시키는 기능을 하는 몸의 중요한 기관은 발이다.

발은 다른 동물과 인간을 구별시키는 가장 중요한 기능인 직립보행을 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그로 인하여 손을 네발 걸음의 구역에서 해방시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기능을 가능하게 하여 인류의 찬란한 문명을 이루게 한 기본적인 인체 구조물이다.

과거에는 이렇게 중요한 발도 다른 인체조직에 비하여 관심을 끌지 못하여 왔으나 최근에는 사람들이 외모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점점 발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다.

발은 어린이가 걸음걸이를 하면서부터 우리 몸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이 되는데, 어린이의 발은 대개 어른의 발에 비하여 부드럽고 발바닥이 연하며 평발의 모양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평발의 경향은 나이가 들면서 줄어들게 되고 점차 발바닥에 동그란 아치를 만들어 가게 되는데, 대개 10세를 전후로 하여 어른의 발 구조를 이루어 이후에는 아치의 변화가 별로 없다고 한다.

어린이가 평발의 모양을 보이면 많은 부모들은 이에 대한 걱정을 하게 되어, 외래를 찾는 경우를 흔히 보는데 가령 “우리 아이가 운동을 제대로 할수 있을까요?”, “평발로 인하여 걸음걸이가 이상한 것 같아요”, “군대는 안가도 됩니까?” 등등 많은 질문과 걱정을 갖고 외래를 찾는다.

이러한 어린이의 평발에 대하여는 많은 연구가 최근 까지도 진행되어 왔다.

평발이 과연 인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하여 간단히 한마디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

과거에는 어린이의 평발에 대하여 무조건 관찰을 한 다던지, 특수한 신발을 제작하여 신게 한다든지 하여 치료를 하려고 노력하여 왔다.

그리고 평발을 가진 사람들은 모두 운동이나 활동에 지장을 받고, 남자의 경우에 군대를 면제받는 것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평발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면서 모든 평발이

전부 동일한 것이 아니란 것을 알게 되었고 치료가 필요한 평발이 있는가 하면, 치료가 필요없는 단순한 평발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쉽게 이야기 하여, 발이나 발목 관절이 굳어서 걸음 걸이가 불편하고 계단을 오르내리기 어려운 경우, 걸을 때 발바닥이 아파서 장기간 걸음을 걷지 못하는 경우, 넓고 편한 신발이 아니면 신발을 못 신는 경우, 다른 팔다리의 기형이 동반된 경우 등은 대개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에 해당되는 평발은 그리 많지 않으며 대부분의 평발은 치료가 필요없는 단순 평발이다.

단순 평발은 발주위의 인대와 조직이 다른 사람들에 비하여 연하고 부드러워 발의 아치를 덜 만든 것으로, 이로 인하여 운동이나 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수십년 전에 캐나다의 훈련병 수천명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한 결과, 대부분의 평발을 가진 훈련병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유명한 연구결과는 아직까지도 평발 치료의 기초가 되고 있다.



이러한 평발의 종류를 보면 첫째, 어린이들 중에는 평발과 더불어 아킬레스건이 짧아서 쪼그려 앉을 때 뒤꿈치가 땅에 닿지 않는 어린이가 간혹 있다. 이런

평발 무턱대고 걱정할 필요없어 올림픽 출전선수에도 평발 많아

최근 이스라엘 군대 훈련병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평발이 있었던 훈련병의 피로결핍의 빈도가 평발이 아닌 훈련병에 비하여 오히려 적었다는 보고도 있다.

또한 올림픽이나 육상대회에서 상위에 입상한 육상 선수들 중 상당수가 평발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단순 평발에 특수한 신발을 착용시켜서 평발의 아치를 발의 발육과 더불어서 증가시키고자 하는 시도가 과연 옳은가에 대한 최근에 연구한 자료에 의하면, 이러한 특수한 신발은 효과가 없었다고 한다.

즉 단순 평발의 모양은 이미 태어날 때 결정이 되고 이를 교정하기란 어렵고 또 교정이 필요없다는 것이 다.

따라서 평발을 가진 어린이를 운동에 지장이 있지 않을까 하고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다.

예나하면 대부분의 단순 평발은 과격한 운동, 군대훈련에 아무런 지장이 없고 훌륭히 운동능력을 발휘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단순 평발이 아닌 기능적인 장애가 있는 평발인 경우에는 물론 치료를 해야 한다.

어린이는 보조기로 치료가 어렵고 아킬레스건의 연장 수술이 필요하다.

둘째, 10대의 사춘기 어린이들 중에 신발을 신을 때 발의 안쪽이 튀어나와서 바닥이나, 신발의 안쪽에 닿아서 아파하는 경우인데, 이는 대개 비정상적으로 뼈가 발의 안쪽으로 물출된 경우로 신발 안에 특수한 깔창을 하여 활동을 하게 하거나, 심한 경우에는 돌출된 뼈를 제거하는 수술을 하기도 한다.

셋째, 평발을 가진 어린이들 중 나이가 10대에 들어서 평발과 더불어 심한 발의 통증을 호소하는 어린이들은 기형적인 발뼈 간의 유합을 의심할 수 있으며 이들은 초기에 보조기나 깁스로 치료를 하고 심하면 유합제거수술을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치료를 요하는 평발은 극히 일부에 속한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대부분의 단순 평발은 운동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않고 생활에 불편이 없으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고, 위에서 언급한 증세가 있는 경우에만 병원에 가서 치료가 필요한 평발이 아닌지 확인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여겨진다.

챔피언의

영양학



장 정 옥 박사

스포츠영양학과 교수
경원대학교
대학병원내과임상 이사

육상·수영 등 많은 에너지 필요해 운동특성에 따라 에너지양 달라

운동선수의 영양소 필요량

운동선수의 에너지 필요량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체형(몸의 크기와 모양), 연령, 경기의 종류와 운동량, 훈련의 수준과 정도, 성별(일반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에너지 필요량이 적다) 등이다.

또한 에너지 필요량은 기초대사율, 특이동적대사, 운동량과 성장 정도에 의해서도 결정된다. 따라서 청소년기의 운동선수는 에너지가 부족되기 쉬우므로 성장과 발육에 필요한 에너지를 더 고려해야 한다.

가하면 에너지 필요량도 증가하므로 운동선수는 보통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에너지 섭취가 필요하다.

그러나 에너지 필요량은 근육 수축의 횟수가 비례하여 증가하므로, 운동특성에 따라 에너지 필요량이 다

마라톤 같은 장거리 경기의
선수는 4000 ~ 6000 칼로리를
섭취해야



개인에 따른 에너지 필요량

스포츠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는 개인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일반적으로 신체활동이 증

양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근육의 수축상태를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것보다는 근육 수축을 시작하는데 더 많은 에너지와 산소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근육 수축이 반복되는 육상과 수영이, 주로 근육의 수축상태가 유지되는 체조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

예를 들어, 작은 체격의 여자 양궁선수는 하루에 2,000kcal만이 필요하나, 다른 운동을 하는 어떤 운동선수는 이보다 약 5배 이상의 에너지를 필요로 하기도 한다.

수영, 역도, 레슬링 등의 운동선수들은 하루에 2,000~4,500kcal의 에너지가 필요한 반면, 피겨 스케이팅, 유도, 체조 등의 여자선수들은 1,700~1,800kcal만으로도 충분하다.

70분~3시간 정도의 훈련시에는 1일 에너지 소비량의 25~36%가 소비된다. 뿐만 아니라 매일 운동하는 경우에는 운동이 끝난 후 기초대사량이 증가하므로 심한 훈련기간 동안 높은 기초대사량이 계속적으로 필요하다.

따라서 성장기에 있는 운동선수가 심한 훈련을 계속

받는다면 하루에 4,000~5,000kcal가 필요하다.

계속적인 훈련을 받는 선수들을 조사한 결과 남녀 모두에게 에너지 필요량이 7% 정도 감소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한 정확한 이유는 밝혀져 있지 않으나 다음과 같은 설명들이 가능하다.

① 훈련받은 운동선수들의 근육이 더욱 효과적으로 움직인다.

② 훈련받은 운동선수들은 섭취한 식품을 더욱 효율적으로 이용한다.

③ 훈련받은 운동선수들은 영양소를 더욱 효율적으로 흡수한다.

④ 훈련받은 운동선수들은 동일량의 식품을 섭취해도 더욱 많은 에너지를 생산한다.

부적당한 에너지 섭취는 운동 수행능력을 저하시키고 성장을 방해한다. 운동선수들에게서 가장 흔히 나타나는 영양문제는 충분한 에너지를 섭취하지 못하는 것이며, 그 이유로는 하루 일과가 너무 과중되거나 환경상의 문제(빈곤, 무질서), 체중 및 체지방을 빼려는 지나친 노력 등을 들 수 있다.

표 1. 운동선수의 에너지 필요량

●운동경기에 따른 열량 필요량

운동기간	짧은 돌발적 운동	1분 이내의 운동	버티는 경기	1~10분간	10~20분 이상	인내와 지속
운동강도	최대의 노력	꾸준한 노력	적은 강도	버티는 노력	강하고 반복된 노력	높은 강도
운동종류	· 원반 · 해머던지기 · 투포환 · 창던지기 · 높은 점프 · 다이빙 · 스키 점프	· 질주 · 하들(장애물) · 긴 점프 · 장대높이뛰기 · 수영 (50~1000야드)	· 야구 · 골프	· 880야드 달리기 · 1~2마일 달리기 · 1000야드 수영 · 레슬링 · 씨름 · 대부분의 운동 경기 · 스키(언덕 내려오기)	· 풋볼(미식축구) · 농구 · 아이스하키 · 테니스 · 펜싱 · 30일 달리기 · 다크루스	· 횡단 경주 · 60일 달리기 · 마라톤 · 축구 · 횡단 스키
kcal/일	3,000~4,000	3,000~4,000	3,000~4,000	3,000~5,000	3,000~6,000	4,000~6,000

●운동기간에 따른 열량 필요량 증가율(%)

1시간 이내	5	5	8	10	10	13
1~2시간	10	10	17	20	20	25
2시간 이상	15	15	25	30	30	38

챔피언의 영양학

에너지 공급

운동선수가 자신의 능력을 최대로 발휘하려면 운동을 수행하는 근육에 충분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체내에서 일어나는 각종 대사의 최종 산물로 결과 화학적 에너지인 ATP(adenosine triphosphate)가 발생되는데, ATP는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모든 과정에 이용된다. ATP 다음으로 중요한 에너지원은 크레아틴 포스페이트(creatine phosphate, CP)이다. CP 역시 고에너지 결합을 가지고 있어서 분해시 에너지를 방출한다.

짧지만 강도 높은 운동(배구의 스파이크, 단거리 경주, 역도 등)을 할 경우에 ATP와 CP의 공급이 모두 중요하다.

근육세포에서 이용되는 주된 고에너지 화합물인 ATP는 근육세포 내에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경로에 의해 계속적으로 생성된다.

즉, 산소를 필요로 하는 호기적 과정(aerobic process)과 산소 없이도 가능한 혐기적 과정(anaerobic process)이 그것이다.

이때 식사 또는 체내에 저장된 포도당과 지방만이 주된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나, 때로는 식사 중에, 또는

체조직에 저장된 단백질도 분해되어 에너지를 제공하는데 이용된다.

운동을 시작할 때는 산소가 풍부한 혈액이 아직 근육에 도착하지 않았으며, 도착한다 해도 대사과정에 필요한 산소를 끌어내는 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린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경우(운동 시작 후 수분간)에 산소 없이도 가능한 혐기적 과정을 통해 운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한다. 그 후 호기적 경로를 통한 에너지 공급이 점차 증가하게 되나, 어느 순간에 가서는 운동강도가 너무 커서 호기적 과정만으로는 운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없게 되고, 부족한 에너지를 보충하기 위해 혐기적 과정이 함께 진행된다.

호기적 과정에 의해 공급되는 에너지의 이용성은 운동강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지구력을 요하는 경기에서는 운동 속도가 매우 중요하다. 또한 훈련을 통하여 산소의 흡입 및 운동하는 근육으로의 산소 운반능력이 증가하므로 훈련 역시 중요하다.

운동선수에게 권장되는 식사의 당질 : 단백질 : 지방의 열량비는 50~55 : 15~20 : 30~35이다.

운동시 당질, 단백질 및 지방이 모두 에너지원으로 이용되나, 운동의 종류와 운동시간에 따라 주로 이용되는 에너지원이 달라진다.

■술의 열량

종 류	1병 용량 (cc)	알코올 농도 (%)	1회 음주량 (cc)	열량 (kcal)
고 량 주	250	40	1잔(50)	140
소 량 주	360	25	1잔(50)	90
이 강 주	750	25	1잔(50)	90
문 배 주	700	40	1잔(50)	140
안 동 소 주	400	45	1잔(50)	160
청 주 (청 하)	300	16	1잔(50)	65
맥 걸 리	750	6	1컵(200)	110
맥 주	500	4	1컵(200)	95
생 맥 주	500	4	1잔(500)	185
삼 페 인	640	6	1잔(150)	65
위스키(패스포트)	360	40	1잔(40)	110
백포도주(마주앙)	700	12	1잔(150)	140
적포도주(마주앙)	700	12	1잔(150)	125

※술은 영양소는 없으나 열량을 많이 내므로 당뇨병 환자나 비만 환자는 주의를 요함.

술은 스포츠 선수에게 해롭다 미국 스포츠 의학협회 공식견해

『술은 적당히 마시면 몸에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애주가들도 있고 또 실제로 알콜이 긴장을 완화시키거나 식욕을 높이거나 피로회복을 돕는 등의 효용도 있어 기본적으로는 음주의 양이나 빈도, 타이밍 등 마시는 방법이 문제라고 할 수 있다.

1982년 미국 스포츠의학협회가 발표한 「스포츠에 있어서 알콜의 섭취」에 대한 견해를 소개한다.

- 인간의 체력에 대한 알콜의 영향에 관한 방대한 연구를 분석한 결과 미국 스포츠의학협회는 다음과 같은 견해를 나타냈다.

① 알콜의 급성효과로서 반응시간, 눈과 손의 연계동작, 정확함, 평형감각, 복합된 연계동작 등 운동신경계가 관여하는 각종 기술을 저하시킬 수가 있다.

② 알콜의 급성효과로서 체력에 직접 관련되는 대사적 생리적 기능, 예컨대 에너지 대사 최대산소 섭취량, 심박수, 심박출량, 근육혈류량, 동정맥산소 농도차, 호흡 기능 등에 대해서 본질적 영향을 끼치는 일은 없다.

③ 알콜의 급성효과로서 근력 국소의 지구력, 스피드, 심폐

기능 등을 높이는 일은 없다.

④ 알콜은 가장 남용되고 있는 약물로 자동차 사고 등의 최대의 원인이 되고 있다. 장기에 걸친 지나친 음주는 간, 심장, 뇌 근육 등의 병리변화를 유발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불능이나 죽음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⑤ 운동능력에 미치는 알콜의 급성효과, 과도의 알콜섭취의 급성적, 만성적 해(害)에 관해서 스포츠선수, 코치, 건강과 체육교육자, 의사, 트레이너, 스포츠정보잡지, 그리고 일반대중에게 충분히 그리고 지속적인 교육이 베풀어져야 된다.

술은 스포츠 선수에게
해로울 뿐이다.



역대 세계선수권대회

〈연재 제 6회〉

제 6회 세계선수권대회가 한국을 비롯 51개국 548명의 임원 및 선수, 그리고 43명의 국제심판이 참가한 가운데 1983년 10월20일부터 23일까지 덴마크 코펜하겐시 브론드비 스포츠클에서 개막됐다.

이번 대회에는 공산권인 유고와 폴란드가 전체급에 선수를 출전시켜 이채로웠다.

또한 태권도가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승인종목으로 결정됨에 따라 경기장에 처음으로 IOC기가 게양되어 태권도인들의 마음을 고무시켰고 미구에 태권도 올림픽정식종목 채택에의 희망찬 꿈을 부풀게 했다.

개회식에는 대회장인 세계태권도연맹 김운용 총재를 비롯, 닐 홀스트 소렌스 덴마크 IOC위원, 안 스타우보 노르웨이 IOC위원, 파머 영국 국가올림픽위(NOC) 사무총장 등 저명인사 30여명이 참석하여 대성황을 이루었다.



이 경 명
(세계태권도연맹 사무차장)

그 감격의 발자취를 따라

제6회 세계태권도 선수권대회

'85 제7회 세계대회 만장일치로 서울개최 결정

대회개막 전날 본부호텔인 로얄호텔에서 64개국 회원국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총회에서 주요안건으로 상정된 차기대회 개최국과 신규회원국 승인이 있었다.

먼저 '85 제7회 세계대회 개최지 결정은 한국이 '86 아시아게임 개최국임을 감안, 차기대회의 서울 개최를 만장일치로 결정했으며 한국과 유치경합을 벌이던 자

유중국(대만)은 유치경합을 철회했다. 그리고 신규회원국 승인은 이스라엘, 쿠웨이트, 버뮤다, 네팔, 아일랜드 5개국으로 102개국에서 107개 회원국으로 늘어났다.

한국대표 선수단 결단

종합 6연패를 목표로 한국은 전체급에 걸쳐 10명의 선수를 포함, 한국대표 선수단 결단식을 이영호 체육부 차관, 김집 대한체육회 부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10



▲83년 10월 20일 부터 23일까지 덴마크 코펜하겐시 브론드비 스포츠홀에서 열린 제 6회 세계선수권대회에는 51개국 548명의 임원 및 선수 그리고 43명의 국제심판이 참가했다.

IOC 승인 종목으로 결정되어 유고, 폴란드, 전체급에 출전

월 5일 상오 11시 대한체육회 10층 강당에서 가졌다.

한국대표선수단은 임원 5명, 선수 10명을 포함해 15명으로 구성되었다.

이 대회에 출전하기 위해 한국대표 선수단은 10일간의 합숙훈련을 하였다.

한국은 처음으로 갖게되는 여자 시범경기에는 선수단을 파견하지 않았다.

10월20일

대회 첫날 한국은 밴텀급에 출전한 한홍식이 우승을 차지했고 웰터급의 최광근 선수가 아깝게 3위에 머물러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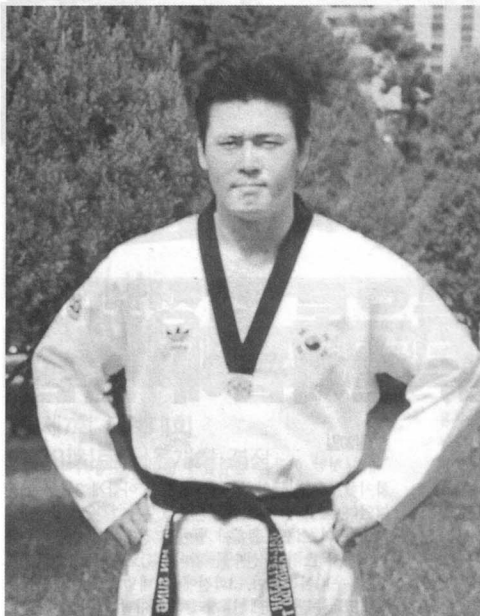
브론드비 스포츠홀에서 벌어진 경기에서 한홍식은 1회전에서 스위스 선수를 맞아 KO로 누르고 2회전에서 사우디아라비아, 3회전에서 네덜란드, 4회전에서 덴마크, 준결승전에선 게레미나(이탈리아)를 차례로 꺾고 결승에 진출하여 루이스 토루노(스페인)를 뒤돌려치기와 옆차기의 일방적 공략으로 가볍게 첫 금메

열띤 4일간의 경기

역대 세계선수권대회

◆한국 대표팀

●단장	김정주			
●감독	이규석(현 경원대교수, WTF기술위원장)			
●코치	이승국(현 한체대교수, WTF대학분과위 부위원장)			
●트레이너	진중의(현 용인대교수)			
●선수	-핀급	왕광연(전남체고)	: 웰터급	최광근(한체대)
	-플라이급	고정호(한체대)	: 라이트미들급	정국현(한체대)
	-밴텀급	한홍식(경희대)	: 미들급	이동준(충북은)
	-페더급	이재봉(한체대)	: 라이트헤비급	문종국(한체대)
	-라이터급	한재구(청주대)	: 헤비급	장승화(일반)



▲제6회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미들급을 제패한 이동준은 뒷날 준수한 몸모와 뛰어난 액션 연기력을 바탕으로 TV와 은막에서 활약하게 됐다.

달을 따냈다. 또 최광근은 1회전에서 라이베리아, 2회전에서 노르웨이, 3회전에서 미국선수를 각각 판정으로 눌렀으나 준결승에서 일마즈 헬바치오그루(터키)에 뒤돌려차기 공격을 당해 판정패, 하랄드 셰르만(서독)과 함께 공동 3위를 차지했다.

10월 21일

이틀째 경기에서 한국은 금메달 3개를 휩쓸어 중주국의 면모를 유감없이 과시했다. 한국은 이날 핀급 왕광연, 페더급 이재봉, 미들급 이동준 등 3명이 모두 우승하였다. 왕광연은 이날 준결승에서 한국태생의 재독교포 최찬욱(서독)을 맞아 상방간에 불꽃튀는 점전에서 판정으로 물리치고 결승에서도 세자레 로드리게스(멕시코)를 일방적으로 압도, 우승했다. 왕선수는 이번 대회 참가선수 중 가장 나이 어린 선수이기도 했다. 이재봉은 토머스 파블라(서독)를 다양한 기술로 공격, 금메달을 따냈으며, 이동준은 저지통(캐나다)을 판정으로 물리쳐 우승했다.

10월 22일

대회 3일째 경기는 플라이급에 고정호, 라이트 헤비급 문종국, 헤비급에 장승화가 출전하였다. 플라이급의 고정호는 우간(터키)과의 결승에서 앞차기로 일방공략, 판정으

그 감격의 발자취를 따라

로 우승했고 헤비급의 장승화는 덕 용(서독)을 역시 판정으로 눌러 금메달을 따내 금메달을 추가했다.

그러나 라이트 헤비급의 문종국은 2회전에서 사르가 이 이레노(스페인)에게 판정패, 아깝게 메달권에서 탈

락했다. 유중국선수가 우승을 해도 국가연주와 국기계양을 하지않는다는 조건으로 대만의 대회참가를 허용했었다.

세계태권도연맹 김운용 총재는 창 망 추이가 국기를 흔든 뒤 바로 집행위원회를 소집, 자유중국에게 대회

첫 여자시범경기, 비공식대회로 이틀째부터 자유중국 출전금지

락했다.

비공식대회로 여자시범경기가 첫번째로 개최됐는데 6개국에서 29명의 선수가 참가한 가운데 본 경기와 함께 개최됐다.

이틀째인 21일부터 전체급에 걸쳐 출전금지선언을 내렸다.

10월 23일

최종일 경기에서 라이트급의 한재구와 라이트 미들급의 정국현이 각각 금메달을 획득,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8개, 동메달 1개로 종합 6연패의 위업을 달성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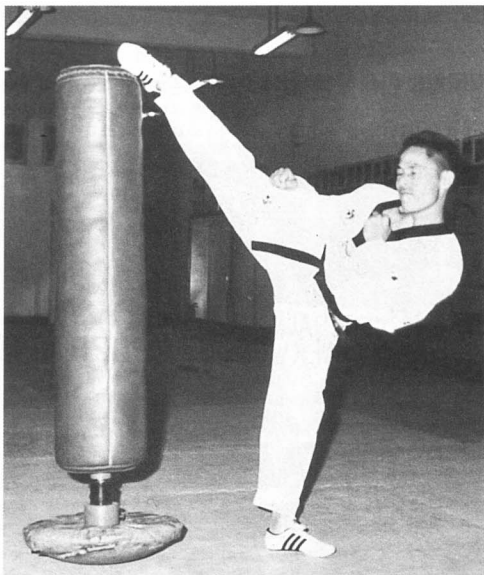
라이트급의 한재구는 네바레터(스페인)와의 결승에서 돌려차기로 확실히 득점을 얻어 판정승했고 라이트 미들급의 정국현은 우세한 체력과 기술로 한스 브록만스(네델란드)를 일방적으로 몰아붙여 판정승했다.

출전금지 2건의 불미스런 사건

국기계양 금지 약속 깨고 시상대에서 국기 흔들어

제 6회 세계대회에 참가한 자유중국 선수단에 대회 이틀째인 21일의 경기부터 출전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자유중국은 첫날 여자 페더급에서 우승한 창 망 추이가 시상대에서 자국기인 청천정 일기를 흔들어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정신을 위배 했다는 것. 대회조직위원회는 자



▲83년 제6회 세계선수권대회에서도 우승, 라이트미들급의 2연패(連覇)를 이룩한 정국현은 85년과 87년에는 웰터급으로서 연거푸 우승해 세계선수권 4연패의 위업을 달성, 기네스북에 올랐다.

역대 세계선수권대회

◆종합 메달집계

순위	나라	금	은	동
1	한국	8	-	1
2	스페인	1	2	3
3	터키	1	1	1
4	서독	-	3	2
5	네덜란드	-	1	1
5	멕시코	-	1	1

◆체급별 입상자

핀급	1. 왕광연	KOR
	2. Cesar Rodriguez	MEX
	3. Chan Ok Choi	GER
	Azofra Emilio	ESP

플라이급	1. 고정호	KOR
	2. Turgut Ucan	TUR
	3. Benito Javier	ESP
	Flotti Guiseppe	ITA

밴텀급	1. 한홍식	KOR
	2. Torner Luis	ESP
	3. Nadar Khodamoradi	IRI
	Di Constanzo Geremia	ITA

페더급	1. 이재봉	KOR
	2. Thomas Fabula	GER
	3. Ahmet Ercan	TUR
	Gustavo Sanciprian	MEX

이란팀, 판정불복 항의소동

대회 3일째인 22일 플라이급 준준결승에서 이란선수

가 스페인 선수에게 패하자 이란 임원은 상의를 벗어 던지며 판정에 불복, 항의하는 소동을 벌였다. 이에 김운용 총재는 집행위원회를 즉각 소집, 이란 선수들이 나머지 경기에 출전하지 못하게 결정했다.



▲제6회 세계선수권대회 기간 중 열린 WTF(세계태권도연맹) 총회에서는 85년의 제7회 대회를 서울에서 개최할 것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한국선수단 뒷이야기

선수들은 식사와 시차적응에 어려움을 느꼈다. 그리고 10일간의 합숙훈련은 너무 짧은 기간이었고 선수 모두 체력의 열세를 느꼈다고 했다.

특히 기초체력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체력의 열세로 인해 적어도 하루에 5~6회 게임을 소화할 수 있는 체력보강이 아쉬웠다. 어떤 선수는 3회전 경기에서부터 경기 운영이 힘들었다고 했다. 합숙훈련시 체력운동의 병행을 했으면 하고 특히 순발력, 스피드 훈련의 필요성을 건의했다.

독일, 이탈리아, 미국, 터키, 스페

그 감격의 발자취를 따라

라이트급	1. 한재구	KOR
	2. Navarrete	ESP
	3. Della Nogra	TUR
	Po Nhn Ly	AUS

웰터급	1. Yilmaz Helvacioğlu	TUR
	2. Lindsay Lawence	GBR
	3. 최창근	KOR
	Harld Schrmann	GER

라이트미들급	1. 정국현	KOR
	2. Hans Brugsmans	NED
	3. Remarck Patrice	CIV
	D' Oriano Luigi	LTA

미들급	1. 이동준	KOR
	2. Jersey Long	CAN
	3. Bayou Charles	C IV
	Richard J. Warwik	USA

라이트헤비급	1. Fargas Irreno	ESP
	2. Eugen Nefedow	GER
	3. John N. Lee	USA
	Michael Knudsen	DEN

헤비급	1. 장승화	KOR
	2. Dirk Jung	GER
	3. H. Meijer	NED
	Fonseca Falco	ESP

인 등이 강세를 보였고 외국선수들은 지난 세계대회 때 한국선수들이 사용한 기술을 그대로 구사하고 있었다.

새로운 기술의 개발을 위한 연구가 뒤따라야 하며 특히 선수 개개인의 특성있는 기술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대회에 출전한 10명의 선수 중 정국현, 이동준, 한재구, 문종국, 장승화 5명이 2회 이상 국제대회 출전 경험이 있었다.

한국, 김순배(국기원시술심의의장, 한국) 강사의 교 육으로 이뤄졌다.

국제심판, 국제시범 세미나

세계태권도연맹은 제 13회 국제심판강습회를 10월 15일~17일(3일간) 코펜하겐시 이드래텐 하우스에서 35개국에서 72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하였다. 강사로는 김용호 사범(프랑스)과 김찬용 사범(미국)이었으며 김찬용 사범 WTF국제심판으로서 이번 세계대회 심판위원장으로 활약하였다.

그리고 국제사범강습회를 10월9일~14일(6일간) 같은 장소에서 10개국에서 19명의 유단자가 참석, 홍중수(국기원 부회장,



▲제6회 세계선수권대회는 태권도가 IOC(국제올림픽위원회)의 승인종목이 되고 난 뒤의 첫 대회로 태권도인들의 사기를 드높여 주었다.

세계 태권도연맹 소식



**태권도 가족들이
지구촌 곳곳에서
활발히 움직인다**



■로마 집행위 회의

제 1회 지중해컵 대회에 즈음하여 7월 4일 이태리 NOC본부건물에서 총재를 비롯한 집행위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 집행위 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에선 2000년 시드니 올림픽 참가선수 선발기준이 통과되었으며 4개국(바베이도스, 적도 기니, 캄비아, 서 사모아)이 새로 회원국으로 승인받았고 세계대회 유치신청서 연맹에 내는 보증금을 현행 미화 10,000달러에서 30,000달러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김윤용 총재 포르투갈 방문

-리스본에서 열린 European Youth Olympic Days에 참가하기 위해 7월 18~21일 포르투갈 방문.

■홍콩의 중국 반환

7월 1일 홍콩의 중국 반환에 따라 홍콩의 명칭이 Hong Kong에서 Hong Kong, China가 되었다.

이에 따라 홍콩 NOC의 정식등록명칭도 Amateur Sports Federation and Olympic Committee of Hong Kong, China가 되었다. 홍콩 NOC는 홍콩특별행정구역의 새기와 중국 국가를 사용하게 된다.

한편 7월 3일 홍콩 NOC위원장 Amaldo de O. Sales와 IOC위원장은 홍콩 NOC가 IOC내 독립적 회원권을 계속 유지한다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합의서에 서명했다. 이 같은 경우는 이미 푸에르토리코에서도 볼 수 있는데 푸에르토리코는 미합중국의 한 부분이지만 스포츠 분야에선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다.

■IOC 올림픽 솔리대리티 태권도 코스

97년도 IOC Olympic Solidarity 지원하의 태권도 코스의 대상국가, 파견사범, 날짜 등은 다음과 같다.

버키나 파소 : 김용호 / 6월 10~20일
말라가시 : 정주석 / 6월 12~27일
스와질랜드 : 이은우 / 7월 7~17일
부탄 : 임관인 / 7월 16~28일
코스타리카 : 박현서 / 7월 21~27일
베냉 : 장권 / 8월 13~24일
이란 : 신재현 / 8월 23~9월 4일

■106차 IOC총회

97년 9월 3~6일 스위스 로잔에서 제106차 IOC총회가 열린다. 이 회의에서는 2004년 올림픽 유치신청 5개 도시의 설명보고가 있을 예정이다.

IOC위원인 김총재와 함께 세계연맹의 이금홍 사무총장도 참석할 예정.

■IOC스포츠 - 문화 포럼

6월 6~7일 스위스 로잔 소재 올림픽 박물관에서 IOC 문화위원장(위원장 Zhenliang HE)이 개최한 Sport Culture Forum이 열렸다. IOC위원장, IOC문화위원장, IOC위원들, 로잔 시장 및 각국 NOC와 국제스포츠단체 인사들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스포츠와 문화의 연관성 등에 대해 이틀간 주제발표와 토의가 있었다. 세계연맹 박경에 국제과장이 참석했다.

국가협회 소식

싱가포르

Singapore Taekwondo Federation은 97년 4월-99년 3월 임기의 새 임원진 선출
회장: Mr. John Lim
제1부회장: Mr. Steven Soh
제2부회장: Mr. RA Jeyaraman

헝가리

Hungarian Taekwondo Federation
Doza Gyorgy ut 1-3
H-1143 Budapest, Hungary
전화/팩스: 36 1 1851 792

가봉

Federation Gabonaise de Taekwondo
BP 5807
Libreville, Gabon
전화: 241 72 92 81
팩스: 241 74 60 47

말라가시

Malagasy Federation of Taekwondo
팩스: 261 2 63247/63029

우루과이

Federacion Uruguaya de Taekwondo
25 de Mayo 282

Montevideo-C.P. 11000
Uruguay (South America)
전화/팩스: 598 2 951226

회장 Colonel Jorge E. Flores
주소: Av. Bullrich Manz, 10 Sol, 9
Lagomar-C.P. 15000
Uruguay

전화: 598 38 22294

팩스: 598 38 22455

스페인

Federacio Espanola de Taekwondo의 Manuel Colmenero Fivida회장은 9월 12~14일 스페인협회 산하 Federacion Galega de Taekwondo가 개최하는 "오늘날 태권도의 스포츠적, 교습적 모델"이라는 토론회에 참석 예정.

모로코

제2회 지중해 컵 대회를 99년 모로코에서 열기로 결정했다.

팬암 연맹

8월 28~9월 1일 푸에르토리코 산후안에서 열리는 제4회 카리비안 태권도 대회에 즈음하여 팬암 태권도연맹이 집행위 회의를 열 예정.

한편 10월 18~20일 페루 아리퀴빠에서 열리는 제13회 볼리비아인 게임 태권도 경기의 세계연맹 기술대표로 팬암 연맹의 박차석 회장이 임명되었다.

제4회 스칸디나비안 오픈 10월 덴마크에서 열려

제4회 스칸디나비아 오픈이 10월11일 덴마크에서 열린다.

덴마크 태권도협회가 주관하는 이 대회는 14세 이상, 17세 이하의 주니어부와 18세 이상의 일반

부로 나뉘며 4급에서 4단까지 태권도인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 대회는 Aarhus '정무' 태권도클럽과 Skanderborg '무사' 태권도클럽이 주최하며 장소는 다음과 같다.

'Aarhus Stadionhall & Team Denmark Center Stadion Alle' 70 DK-8000 Aarhus C.

(10월 10일 <금> PM 8:00 - 10:00 등록, 계체)



두억시니

〈연재 제7회〉

호로아 글·그림

전봉준을 꼭 찾아내라!

『아악!』

듣는 사람의 마음을 공포로 얼어붙게 만들만치 처참한 비명이 맑은 밤하늘에 울려 퍼진다.

『사.....사람..... 살려!』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겨우 내뱉는 애원조의 외침은 모진 고문에 너무도 시달린 탓인지 울음소리에 가깝다.

고부관아 마당 군데군데에는 활활 타오르는 거화(炬火=횃불)들이 사방을 대낮처럼 밝히면서 불똥을 내뿜고 있었다. 불빛에 모습이 드러나 있는 농민들의 모습은 거의 모두 산송장이나 다름없었다.

시뻘겋게 달군 인두로 살갓을 지지는 끔찍한 악취는 지금 이 마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참극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었다. 두 다리를 하나로 묶고 그 사이 주릿대라는 두 개의 붉은 막대기를 끼워 비트는 형벌이자 고문은 이미 여러 명의 무고한 희생자들을 실신시켰다.

『악마의 심부름꾼』인 양 안행사 이용태는 마당 한가운데에 떡 버티고 서서 이 무참한 만행을 총지휘하고 있었다.

『전봉준이 어디로 도망갔느냐? 바른대로 대지 않으면 네 녀석은 살아남지 못하리!』

하도 주리를 뜨는 바람에 온 몸의 기름이 다 빠져나간 것처럼 축 늘어진 농민을 다그치고 있는 것은 삼들이었다.

『너희들이 괴수로 떠받들었던 전봉준 아니냐! 그 전봉준이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니 말이 되느냐?!』

전라감사 김문현의 정탐꾼으로 전봉준 진영에 스며

들었던 삼들이는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자 백산 군영을 빠져나가 전주감영에 피신해서 상황이 돌아가는 것을 지켜보던 중 전봉준이 백산을 철수하고 농민들을 각자의 집으로 돌려보내자 김문현의 지시에 따라 안행사 이용태의 길잡이가 되어 고부에 들어닥쳤다.

삼들이는 이용태 못지않은, 아니 오히려 이용태 빠치는 악랄한 행패로 양민들을 돼지 잡듯 했다.

『사... 사람.. 살려!』

달군 인두로

살갓을 지지는

끔찍한 악취가...

『모... 모르오, 전장군이 어디로 가셨는지... 나는... 정말 모르오』

심문당하는 농민은 모기소리 같은 가냘픈 목소리로 전봉준의 행방을 모른다고 다시 되풀이하면서 고개를 힘없이 가로 흔들었다.

『거짓말 마!』

절타와 함께 곤봉이 농민의 몸통을 내려친다.

『우드득!』

분명 갈비뼈 부러지는 소리가 들리고 농민은 비명도 못지른 채 눈을 새하얗게 까뒤집고 입에 거품을 물며 실신해버렸다.

『이봐! 이 녀석에게 찬물을 끼얹어 정신이 들게 해!』

삼들이는 포졸에게 물을 가져오라고 지시했다. 이용태가 펄치고 있는 이 집단고문에는 두가지 목적이 있었다.

하나는 전봉준 이하 고부봉기에 참가했던 난민(亂民)들을 색출해내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를 빌미삼아 생활에 여유있는 부농(富農)으로부터 재물을 뜯어내는 것이었다.

무자비한 고문을 모면하기 위해 어렵사리 장만한 엽전꾸러미나 쌀가마를 가져다 바치면 억울하게 죄인으로 몰렸던 사람은 당장 풀려났다.

가족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 병신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이용태의 숙소에 재물을 바치는 사람이 끊이지 않았다.

전봉준의 은신처인 산기슭

전봉준이 고부봉기를 일으켰을 때의 첫 집결지였던 말목장터.

그 말목장터에서 동북쪽으로 나가면 예동을 거쳐 동진강에 이른다.

이 동진강을 따라 서북쪽으로 올라가면 조병갑이 농민들을 착취하기 위해 억지로 세를 부과했던 만석보를 지나 전봉준이 진을 쳤던 백산에 다다른다.

반대로 동진강을 따라 동남쪽으로 내려오다 보면 정토산(淨土山)이 나타나게 된다. 이 정토산 기슭에 있는 몇채의 폐가(廢家=버려둔 집)에 전봉준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숨어서 묵고 있었다.

두역시니는 백산을 철수할 때 전봉준에게 『아무리 고부의 새 군수 박원명이 봉기에 참가한 사람들이 각자 집으로 돌아가 생업에 종사하기만 하면 일체 문제하지 않겠다고 했으나 당분간 봉기의 주도자인 장군은 행방을 감추는 것이 좋겠습니다.』고 건의해 이곳에 숨어살고 있는 것이다.



전봉준을 따라 이곳까지 온 사람들은 복면 군사(軍師) 두역시니를 비롯 전봉준의 친위대와 오갈 곳 없는 여인들로 이루어진 남자군. 그리고 역시 의지할 곳 없는 꼬마들로 구성된 동자군(童子軍) 등이었다.

기척없이 숨을 죽이며 숨어 있으면서도 두역시니는 각지에 침투시킨 수하들로부터 갖가지 정보를 보고받고 있었다.

『장군, 이제 장군은 집도 절도 없는 신세가 되고 말았소』

해질 무렵 방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두역시니는 짐짓 밝은 목소리로 전봉준에게 조소리에 있는 그의 집이 안행사 이용태에 의해 불타고 말았다는 것을 알렸다.

『허! 이미 짐작하고 있었던 대로군. 우리 짐팔고

다른 집들은 피해가 없었소?』

역시 두령답게 전봉준도 웃는 여유를 보이며 자신의 집보다도 다른 집안에 화가 미치지 않았는지를 물었다.

장군의 집 불탄 것으로만 일이 끝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여러 마을이 불바다가 되는 바람에 많은 사람들이 거쳐할 집을 잃었습니다.』

비로소 두역시니의 말투에 침통함이 깃든다.

『역시... 그랬군.』

신음하듯 내뱉는 전봉준의 표정도 어둡다.

『이용태 그 녀석은 백성들을 못살게 굴면서 재물을 굶어들이고 술과 계집에 빠져있는 모양입니다.』

두역시니는 전주감영에 잠입해 있는 진동개, 고부에 밀파한 삼살개 등 수하로 부터 전해오는 정보를 분석하고 그때마다 상황에 알맞는 대비책을 세우고 있었다.

『이용태는 전라감사 김문현이 달려보낸 삼돌이 녀석을 앞장 세우고 장군의 행방을 찾아내느라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두역시니의 이 말에 전봉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꾸한다.

『일이 결국 그렇게 돌아가고 있군. 고부 신관사또 박원명이 늘어놓은 약속은 우리를 해산시키려는 거짓말이었구려.』

『아닙니다. 박원명은 영의정 민영준에게 백성들을 도둑거려 사태를 수습해도 좋다는 언약까지 받아서 내려온 것인데 틀림없습니다. 좌의정 조병세(趙秉世)도 박원명의 수습책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하먼?』

『조정이 박원명만 내려보냈더라면 일은 쉽게 마무리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정은 제 만에 만전을 기하느라 안핵사로 욕심 많고 포악한 이용태를 임명하는 잘못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한동안 무거운 침묵이 방안에 깔린 뒤 전봉준이 말했다.

『따는..... 군사가 미리 내다본 대로 상황이 전개되어가고 있소.』

방 밖에는 어둠이 짙어가고 있었다.

두들겨 맞은 안핵사

욕심이 많아도 머리가 나쁜 사람은 차라리 다루기가 쉽다. 그러나 머리가 좋은 데다 욕심이 많은 사람은 참으로 다루기가 어려운 존재다.

안핵사 이용태가 바로 그런 인물이었다. 이용태는 무고한 백성들에게 무자비한 고문을 자행하면서 재물을 마구 거두어들이는 한편 조정에는 고부민란이 일어나게 됐던 원인을, 곤장 정리해서 보고했다. 이용태가 의정부(議政府=조선의 최고행정관청)에 보고한 음막칠조는 다음과 같았다.



— ① 과세결수를 지방관이 마음대로 변경하여 수탈한 점. ② 전운소(轉運所)가 부족한 쌀을 채우기 위해 수탈한 점. ③ 재해에 의해 거두어들이지 못한 토지의 세를 다른 농민들에게 부담시킨 점. ④ 3년 동안 면세하도록 되어있는 개간지로부터 세금을 거둔 점. ⑤ 개간하지 않은 황무지에 팔감을 과세한 점. ⑥ 만석보에 과세한 점. ⑦ 팔왕보에 과세한 점 —

이용태가 보고한 이 음악칠조에 따르면 분명 고부봉기는 관(官)의 잘못으로 일어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히려 봉기에 참가한 농민, 그리고 봉기에 참가하지 않았던 사람까지도 못살게 굴면서 조병갑 빼치는 수탈을 자행했다.

특히 이용태는 고부봉기가 동학도들에 의해 일어난



민란으로 단정짓고 동학도 탄압을 서슴지 않았다.

이용태의 악랄한 동학도 탄압은 무장(茂長)의 동학도들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지닌 순화증으로 하여금 전봉준과 손을 잡도록 만들어 버린다.

이용태가 무장 선운사에서 돈개나 있다는 부농(富農)을 동학도로 몰아 오랏줄로 묶어 연행하려 했던 일이 있다.

이들이 정읍 연지원 주막거리에 이르렀을 때 마침 부농이 끌려가는 광경을 목격한 순화증 포(包=동학의 조직단위) 동학도들이 일제히 이용태와 그 줄개에게 달려들었다.

『이 고약한 녀석 같으니. 아무 죄도 없는 백성을 괴롭히다니.....』

『이런 놈을 안핵사로 임명했으니 나라 꼴이 제대로 될 리가 없지』

저마다 한마디씩 지껄이면서 동학도들은 주막과 장작개비를 이용태 일행에게 날렸다. 800명의 포졸들을 거느리고 고부관아에 들어간 이용태는 「감히 어느 누가 나라에서 보낸 안핵사의 명을 거역하겠는가」라는 자만심을 지녀 이날따라 삼돌이를 비롯 단 5명의 수하만을 이끌고 돈을 뜯으러 나타났던 참이었다.

『어이쿠!』

얼굴을 얻어맞은 이용태의 비명이 주막거리에서 이모습을 지켜보던 구경꾼들에게는 더할 수 없이 속시원했다.

아마도 삼돌이가 단검을 빼서 휘두르지 않았더라면 그때 이용태는 크게 다쳤거나 어쩌면 목숨마저 잃었을지도 모른다.

동학도들의 험악한 기세에 주눅이 들었던 이용태의 수하들도 악독한 삼돌이가 단검을 빼들고 휘두르자 그제서야 병장기(兵仗器=무기)들을 바로잡아 저항의 자세를 보이면서 이용태를 에워싸고 달아나기 시작했다.

별다른 무기를 지니고 있지 않았던 동학도들은 그래도 안핵사를 두들겨 뺐다는 사실에만 만족하고 더 이상 뒤쫓지는 않았다.

이 사건이 있은 뒤 이용태의 동학도 탄압이 더욱 심해진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아직은 때가 아니오

안핵사 이용태의 지나친 행패는 고부, 무장, 태인, 정읍 등에 그 소문이 쫘악 퍼져 그 이야기를 듣고 이를 갈지않은 사람이 없었다.

정토산 기슭 폐가에 숨어있는 전봉준의 언저리가 갑자기 부산해졌다.

이용태를 향한 분노가 전라도 사람들 사이에 확산되자 전봉준은 제빨리 무장의 순화증, 그리고 태인의 김개남과 연락을 취해 앞 일을 의논하기 시작했고 최경선도 자신의 은신처에 불렀다.

『군사(軍師), 이제는 이용태를 쳐서 없애버리는 것이

어떻소?』

전봉준은 뒤미는 강경파답게 최경선은 두역시니에게 이용태를 강습(強襲=적의 방어선을 돌파해서 저항을 무릅쓰고 습격을 강행함)할 것을 제의했다.

『.....』

두역시니는 아무 대꾸도 않고 복면 속의 두 눈만이 웃음을 띤다.

『이용태를 처서 죽인다? 그러면 모든일이 원만히 끝나겠소?』

이번에는 전봉준이 두역시니에게 묻는다. 하긴 만행의 원흉인 이용태를 처치해 버리면 그동안 치솟았던 분노는 수그러 들지도 모른다.

그리고 피해를 입었던 백성들은 속 시원해 할 것임에 틀림없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참만에야 두역시니가 대답한다.

『아니 아직도 때가 아니라니? 그게 무슨 말이요? 아직도 이용태의 행패가 더 계속되어야 한다는 뜻이오?』

최경선이 정색을 하고 두역시니에게 따지듯 묻는다.

『조금만 더 기다려 봅시다.』

언제나 그렇듯이 두역시니는 태산같은 무게를 느끼게 하는 말투로 대답한다.

『도대체 무엇을 더 이상 기다리자는 거요?』

강경파답게 성미가 급한 최경선은 이마당에 이용태 주살(誅殺=죄인을 죽임)을 망설이고 있는 두역시니가 답답하기만 했다.

전봉준도 두역시니의 뜻을 헤아리지 못해 그가 어떤 대답을 할 것인지 주목하고 있다.

『손화중 접주를 비롯한 여러 접주들이 전봉준 장군을 중심으로 뭉쳐야겠다고 굳게 다짐하게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합니다.』

두역시니의 이 말에 전봉준은 저도 모르게 무릎을 탁 쳤다.

『맞소, 군사의 말이 맞소.』

고부군수 조병갑을 내쫓은 1차 봉기 때 손화중을 비롯한 남접계(南接系)의 접주들은 움직이지 않았다.

동학의 제 2세 교주 최시형(崔時亨)이 내세우는 비폭력주의를 따르는 북접계(北接系)의 봉기불참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 해도 투쟁을 마다 않는 남접계의 많은 접주들도 고부봉기에는 참가하지 않았다.

저마다 정세나 상황을 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두역시니는 손화중, 김개남, 김덕명 등 굵직한 지도자들이 「더 이상 못 참겠다」고 분통을 터뜨려 전

봉준과 함께 봉기에 참가할 때까지 이용태는 놓아두자는 속셈이다.

그제서야 최경선도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하듯 말했다.

『그랬었구려, 하긴 마음만 먹으면 군사 혼자만의 힘으로도 이용태의 목을 날릴 수 있었을텐데 가만히 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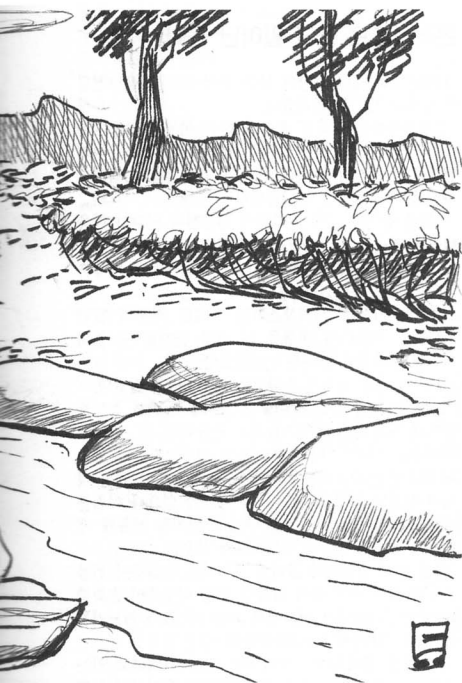
고 본 까닭이 있었구려.』

자리를 함께 한 정익서, 김도삼도 두역시니의 생각이 옳다고 여겨 지지의 뜻을 나타냈다.

어머! 아니 저럴수가.....

추월(秋月)은 그날 엄청난 일을 목격하게 된다. 기구

한 운명이라기보다 당시 가난한 농민의 집에 태어난 여자아이들이 걷기 쉬운 길을 걸을 수 밖에 없어 어린나이에 주막집의 작부(酌婦=술 따르는 여자)노릇을 해오던 추월은 위난을 당했을 때 두역시니로부터 구원을 받는 뒤부터는 그의 뒤만 따라다니고 있었다. 돌아갈 다정한 부모의 품이 없는 추월은 들판의 두



역시니와 함께 지내는 생활이 마냥 행복하기만 했다. 더구나 역시 갈 곳 없는 같은 처지인 분이와 자갈남매가 자신을 마치 친인니나 친누나처럼 따라주고 있어 한가족같은 따뜻한 분위기 속에 몸담고 있을 수 있는 것도 좋았다.

그날 아침따라 일찍 일어난 추월은 아침밥을 짓기 위해 쌀을 씻으러 냇가에 나갔다. 추월이 정말 뜻밖의

광경을 목격하게된 것은 그날도 늘 하던 대로 외눈망원경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만 해도 서양사람들로부터 전해진 귀한 물품이었던 외눈망원경은 모든 일에 신선한 호기심을 잃지 않고 있는 추월이에게 두역시니가 준 것이다.

어디서 구했는지 두역시니는 육혈포(六穴砲=총알 6개를 담을 수 있는 리볼버 전통), 나침반, 줄였다 늘였다 하면서 렌즈 초점을 조절하는 외눈망원경 등 서양에서 건너온 문명의 이기(利器=편리한 기구)를 고루 지니고 있으면서 활용했다.

『자아! 이걸로 초점을 제대로 맞추어 보아. 멀리 있는 것도 가깝게 보이지?』

두역시니가 넘겨준 외눈망원경을 받아든 추월은 시키는 대로 길이를 조정하면서 렌즈의 초점을 맞추고는 깜짝 놀랐다.

저멀리 숲 속의 노루가 바로 눈 앞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아닌가.

『어머, 아저씨 이걸 뭐야요? 마치 요술 안경 같아요』 추월의 놀라는 모습이 재미있던지 두역시니가 웃음보를 터뜨렸다.

『그래 네 말이 맞다. 그것이 바로 요술안경이다.』

추월이는 하도 신기해서 그 외눈망원경으로 여기저기를 살피면서 세상에 돌도 없는 장난감을 얻은 어린애처럼 즐거워했다.

그날도 냇가에서 쌀을 씻은 뒤 기지개를 펴고난 추월은 허리춤에 차고 있던 외눈망원경을 꺼내 숲속을 두루 살피보았다.

나뭇가지 위의 까치집을 살핀 뒤 망원경을 넷물 상류로 돌렸다.

『아니……. 저것은?』

외눈망원경 렌즈에 비친 움직이는 물체에 초점을 맞춘 추월은 숨이 멎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아직 쌀쌀한 날씨인데도 두역시니가 냇가에 옷저고리를 벗고 알몸이 되어 얼굴에 감은 긴 머리를 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분명 그는 얼굴을 씻으려고 하고 있었다.

『두역시니 아저씨가 세수를 하려나 보다. 아저씨는 문둥이인 자기의 얼굴을 남에게 보이기 싫어 이토록 멀리 떨어진 곳에서 몰래 세수를 하시려는 것이구나』 추월은 가슴이 죄어드는 것과 같은 서늘함을 느꼈다.

원칙한 키에 벗은 옷몸의 균형잡히고 우람한 몸매는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감탄을 이끌어내지 않을 수 없을만치 훌륭했다.

그 뿐인가. 뛰어난 무예솜씨를 지니고 빼어난 전락

(戰略)을 구사하는 두억시니는 많은 사람들이 동경하는 우상이었다.

남자군의 여인들은 비록 복면모습의 그를 바라보는 많은 아낙네들은 <아아, 두억시니 군사가 문둥이만 아니었더라면……>하고 한숨을 내쉬었다.

추월이도 렌즈 속의 두억시니가 얼굴의 복면을 벗으려는 모습에 질겁을 하고 망원경을 눈에서 떼려고 했다.

<불쌍한 아저씨. 내가 어찌 아저씨의 흉한 얼굴을 볼 수 있단 말인가>

그러나 추월은 망원경을 두억시니에게서 떼어 다른 데로 돌리지 못했다. 걱정거리가 되는 것, 혹은 무서

『세상에서 가장 귀하다고 여기는 것은…』 전봉준, 손화중, 김개남은 거사의 명분밖힌 창의문을 발표하고…

운것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심정이 추월을 사로잡고 있었다.

『앗!』

가냘픈 비명이 추월의 입술사이로 새어나왔다. 복면을 벗은 두억시니의 얼굴은 검은 고약같은 것으로 새 카말게 칠해져 있었다.

고부봉기를 앞두고 두억시니를 군사로 추대할 때 자신의 정체를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복면을 벗어 보여주었던 검은 고약 문은 바로 그 얼굴이다.

사방을 한 번 둘러본 두억시니는 냇가에 주저앉더니 물로 얼굴을 씻기 시작했다. 추월은 검은 고약을 다 씻어낸 두억시니의 얼굴을 보기가 두려웠다.

하지만 마치 주술(呪術=초자연적인 존재나 신비적인 세력을 빌어 여러 가지 현상을 일으키는 술)에 걸

려 꼼짝 못하는 것처럼 추월은 두억시니의 움직임을 숨죽이고 지켜볼 뿐이었다.

얼굴을 다 씻고난 두억시니가 고개를 들었다.

『어머!』

순간 추월은 너무나도 놀란 나머지 자기 눈을 의심하듯 망원경의 렌즈를 통해 두억시니의 얼굴을 보고 또 보았다.

본격적으로 들고 일어난 동학

1894년 3월 21일 무장의 당산 부락 앞 들판은 4천명의 동학군으로 꽉 메워졌다.

조병갑이라는 이리를 몰아낸 대신 이용태라는 호랑이를 맞이한 꼴이 된 그릇된 상황을 바로 잡기 위해 전봉준은 무장의 손화중 태인의 김개남을 설득하고 다시 봉기의 깃발을 들어올렸다.

이들은 봉기에 앞서 전라감사 김문현과 안핵사 이용태에게 잘못을 시정하도록 진정했으나 아무런 응답을 못 받았을 뿐 아니라 비위가 상한 이용태의 행패는 더욱 심해질 뿐이었다.

아직도 거사는 시기상조라는 자세를 바꾸지 않던 손화중도 이용태의 만행을 더 이상 눈감아 수 없다 여기고 전봉준의 설득을 받아들였다.

일단 갈 길을 정하자 손화중은 머뭇거리지 않았다.

그는 수 많은 무리를 이끌고 각지를 돌면서 농민들에게 봉기의 대열에 참가하도록 권유했다.

『지금은 나라가 어지러워 자칫 멸망할지도 모르는 때이니 신민(臣民=신하와 백성)된 몸으로서 어찌 앉아서 보고만 있겠소. 나는 비록 재주가 없으나 여러분과 힘을 합쳐 못된 정부를 뒤엎고 정치를 새롭게 개혁하여 국가와 민중을 구제하고자 하오!』

사실 당시 영향력의 크기로 보아서는 손화중이 전봉준보다 훨씬 크게 앞서 있었다. 무장 대접주인 손화중의 포는 그 규모가 전라에서 가장 커 그가 거느리는 동학도는 3천명에 이르러 있었다.

손화중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그가 지배하고 있는 고장에서 봉기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두억시니의 도움에 따라 전봉준은 거사 장소를 무장으로 결정했다.

전봉준, 손화중, 김개남은 거사의 명분을 밝히는 창의문(倡義文)을 발표했다. 창의(倡義)란 국란(國亂)을 당하여 의병을 일으키는 것을 뜻한다.

『세상에서 사람을 가장 귀하다고 여기는 것은 인륜(人倫)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군신부자(君臣父

子)는 인륜 가운데 가장 큰 것이다.

인군(人君=임금)이 어질고 신하가 곧으며 아비가 사랑하고 아들이 효도한 뒤에야 나라가 망하지 않고 오래 이어져 나간다.

지금 우리 성상(聖上=임금)은 어질고 효성스럽고 자상하고 자애하며 정신이 밝아 총명하고 지혜가 있으니 현량(賢良=어질고 착함)하고 방정(方正=뚝가짐이 바른)한 신하가 있어서 그 총명을 보좌한다면

요순(堯舜=고대중국 어진왕이었던 요임금과 순임금)의 가르침과 한나라 문제·경제의 정치를 가히 바랄 수 있으리라.

그러나 오늘날 신하된 자들은 나라를 위할 생각은 하지 않고 한갓 녹위(祿位=벼슬아치에게 주는 곡식, 그리고 벼슬자리)만 도적질하여 총명을 가리고 아부와 아첨만을 일삼아 충성되어 간(諫=바른말)하는 선비를 요언(妖言=요사스러운 말)한다. 이르고 정직한 사람을 비도(匪徒=떼지어 다니면서 살인, 약탈 등을 일삼는 도둑)라 하여 안으로는 나라를 위하는 인재가 없고 밖으로는 백성을 수탈하는 관리가 많도다.

인민의 마음은 날로 변하여 생업을 즐길 수 없고 나아가 몸을 보존할 방책이 없다.

학정(虐政=백성을 괴롭히는 정치)이 날로 심하고 원성은 그치지 아니하니 군신(君臣=임금과 신하)의 의리와 부자(父子)의 윤리와 상하(上下)의 명분은 무너지고 말았다.

이렇게 컷머리가 시작된 창씨문은 그릇된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 팔도(八道=당시 조선의 행정구역은 함경, 평안, 강원, 황해, 경기, 충청, 경상, 전라의 8개 도

로 나뉘어져 있었다)가 마음을 합치자라는 뜻을 담았다.

전봉준을 비롯, 동학군의 지도자들은 글을 제대로 익힌 사람들이 적지 않았기 때문에 이 창씨문은 오늘날에 다시 읽어 보아도 봉기의 명분이 뚜렷이 밝혀진 명문(名文=매우 잘 지은 글)이라는 느낌이 든다.

창씨문이 발표되자 각지의 농민들은 두 손을 들고 환영하면서 동학군의 대열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았



다.

오랜동안 잘못된 정치에 시달릴 대로 시달려온 농민들은 전봉준, 손화초, 김개남 등이 주도해서 일어난 무장기포(茂長起包)가 세상을 크게 바꿔주기를 바랐다.

무장에서 들고 일어난 동학군 4천여명은 창과 칼, 죽창 등을 지니고 향교와 각 관청을 습격했다.

이 봉기가 끝내는 청나라와 일본의 조선출병을 불러 청일전쟁이 터지게 되고 동아시아의 세력판도를 바꾸어놓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것을 내다 본 사람은 많지 않았다.

〈다음호에〉

태권도와 나



이 종 택

전 대한체육회
사무총장



첫 만남은 분쟁 조정위원회로

나와 태권도의 첫 만남은 1964년 초, 육군의 모 군사학교에서 교육을 받게 됨으로써 비롯하였다. 그 군사학교의 필수과목 속에 태권도와 유도가 들어 있기 때문이다.

군에서 예편 뒤 첫 직장으로 대한체육회에 들어간 나는, 1971년 운영부장을 맡고 있을 때 시끌시끌하던 태권도 분쟁조정위원회를 체육회가 만들었고 그 위원회의 간사를 맡음으로써 두번째 태권도와의 만남이 이뤄졌다.

국제태권도연맹을 자기중심으로 조직한 후 사사건건 협회와 대립상을 보여 왔던 최흥희 씨와의 고질화된 분쟁을 해결하자는 것이 위원회의 설립 목적이었다.

주요 의제는 국제태권도연맹과 협회의 상관관계정립, 중앙도장(館) 표방(標榜)지양문제와 이를 통합할 수 있는 국기원의 신설, 품새와 용어의 정비, 호구문제 등으로 기억된다.

위원회는 열리자 마자 날카로운 대립양상을 보였고 난항을 거듭해 나갔다.

조정의 명수인 고(姑) 김종형 회장(당시 부회장)도 무척 애를 썼지만 좀처럼 합의를 도출하지 못해 고심을 거듭하였다.

그러나 끝내 꼬여있는 유례없는 대장정 끝에 쌍방 간 불만족스러우나 일단 합의하기에 이르렀다.

어려운 회의였다.

위원장도 위원장이려나와 그 밑에서 회의주선역을 맡은 간사의 고충도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이해 안되는 최흥희씨

최흥희씨가 신설 29사단장으로 취임하면서부대마크를 붙인 권 "주먹"으로 정하고, 부대명칭을 "이크

부대"로 하는 등 군태권도 보급에 남다른 열정을 보였고 태권도협회장까지 역임하였음으로 그를 예우하여 체육회관 8층에 개인사무실까지 제공하였으나 머지 않아 그는 캐나다로 이민을 떠났고 그 곳에 간 후부터의 행각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76년 몬트리올 올림픽 때 캐나다 현지에서 내가 본 그는 북한의 대리자로 행세하고 있음이 역력했고 81년 부카레슈티 유니버시아드 때 선수촌 식당 앞에 쌓인 북한 "로동신문" 기사에서 그가 김일성을 만나 감격해 하고 충성을 맹세했다는 기사를 읽었을 때 불현듯 태권도 통합조정 위원회 시절이 생각났고 군시절부터 지면이 있던 나로서는 한 나라의 군단장과 대사까지 지낸 사람이 어찌 그 나라에서 임은 은혜를 이처럼 원수로서 보답할 수 있는 것일까 아연해 한 기억이 새롭다.

원헌에서 만난 사범

세번째 만남의 사연은 좀 길다. 72년 원헌 올림픽 선수단 총무로 임명된 나는 원헌 도착 후 며칠 안된 어느 날, 자칭 선수단 응원단이라고 자칭하는 곳으로부터 응원문제로 협의할 일이 있으니 시내 어느 장소까지 단장이 나와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말이 요청이지 꽤나 고압적인 전화였다. 선수단에서는 속의 끝에 김성철 단장을 대리해서 총무인 내가 만나보기로 하였으나 개운치 않은 마음이었다.

지정된 장소에 가보니 열대여섯명의 체육교과가 출석하고 있었으나 서로 악수를 청하거나 수인사도 없는 딱딱한 분위기에서 대표인 듯한 사람이 대뜸 말하기를 선수단 응원을 위하여 선수단은 어떤 지원을 해 줄 수 있는지 밝혀 달라는 것이었다.

번개처럼 생각나는 것은 그때 서두에서 극성을 부리고 있던 반한과 활동이었다.

"선수단으로서의 가지고 온 태극선 땃배개와 대소형 태극기 수십장이 전부입니다. 말씀하시는 내용이

경비문제인 것 같은데 선수단에서는 선수단 경비만을 가지고 왔을 뿐입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나의 이 말에 장내는 소연해지기 시작하였다. 대표인 듯한 사람이 흥분을 가라앉히고 말하기를 “응원을 위해 빼앗기는 노동시간의 보상과 교통비 등의 실비 7만 달러는 줘야 하는 것 아니요?”

“응원은 어디까지나 자율적인 것이지 선수단의 소관사항이 아닙니다. 선수단은 열심히 경기만을 전념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7만 달러이라 하셨는데 선수단경비 전액이 9만 달러입니다. 그러한 문제라면

올림픽 정식종목 채택 기를 마련

마지막 사연은 내가 체육회사무총장 시절 '94 히로시마 아시안게임의 태권도종목채택을 위해 용인대학교의 이규석 교수와 함께 동남아 5개국을 일주일이라는 짧은 여정으로 순방하고 OCA 히로시마 총회 회의대표로서 참석한 인연이다.

물론 나의 힘으로 태권도종목이 채택됐다는 건 아니다. 그러나 적어도 태권도 발전에 미력이나마 기

태권도의 세계화는 태권도인들의 공로 태(跆拳道)와 권(拳)은 조화를 이뤄야

대사관측과 말씀해야지 선수단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나의 이 말은 타는 불에 기름을 끼얹은 격이 되어 갑자기 여기저기서 욕설이 터져 나왔다. 건잠을 수 없는 흥분과 증오의 눈조리가 나에게 쏠린 것을 참다 못한 내가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났으나 허사였다. 몇 사람이 놀려앉힌 것이다.

그런 와중에서 건장한 체구의 한 사람이 나를 일으켜 세우더니 다른 사람들을 뿌리치고 뒷문쪽으로 끌고 갔다.

이제 봉변을 당하는구나 싶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러한 결과를 예상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 말 마시고 뒷문을 통해 나가십시오. 서윤남 사범(원혜 거주 고향 후배)으로부터 잘 듣고 있습니다. 어서 나가세요.”

구세주를 만난 것이다.

황급히 빠져 나오면서 그의 이름조차 물어 보지 못했으나 서독의 어느 태권도 사범, 그와 나와의 만남은 태권도와 나의 세번째 만남이 되기에 그 사연이 충분하다.

여를 했고, 결과 또한 우리가 바랐던 대로 채택이 되었으니 긍지와 보람은 가질만한 일 아닌가. 그 평가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지만 말이다.

이제 태권도는 명실상부한 세계의 태권도로 꽃을 피웠다. 시드니 올림픽의 정식종목으로 결정났으니 그 앞날은 더욱 펼쳐질 게 틀림없다.

우리의 어려웠던 시절 그 동기가 어땠는 수 많은 태권도인이 세계에 퍼져 나갔다. 우리의 태권도의 씨앗을 세계 각국에 정성들여 심은 그 공로를 잊을 수가 없다.

끝으로 한가지 나만의 충언을 허락한다면 태권도가 태(跆拳道)에만 치중하고 권(拳)은 소홀히 하는 듯한 겨루기가 눈에 띈다는 점이다. 발과 주먹의 기량에 조화를게 구사되어야만이 보다 화려하고, 보다 스포츠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이 나만의 생각일 까. 6개월 밖에 수련하지 못한 문외한에 비친 인상이다.

나와 태권도의 만남, 시덥지 않은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그래도 나에게서는 소중한 추억이요, 자랑거리이다.

태권도 산책



홍 중 수

태권도 연구개발
특별위원회 위원장
전 국기원 부원장
전 대한 태권도협회
상근 부회장

모름지기 청소년들은 큰 뜻을 품어야 한다고 나는 늘 생각하고 있다.

큰 뜻을 품고 실천에 옮기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자질을 타고 난데다 노력이 보태져야겠지만 아무래도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씩씩함과 담대함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보면 씩씩할 용(勇)이란 사나이다움을 나타내는데 가장 알맞은 낱말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다.

요즘 남자들은 너무 유약한 탓에 대장부(大丈夫=사내답고 씩씩한 남자)다운 남자가 날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 나이 든 사람들의 이야기다.

아마도 물질만능주의의 사고방식이 우리가 사랍답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여러가지 덕목(德目=덕을 분류하는 명목)을 가법게 보는 풍조를 낳았기 때문일 것이다.

대장부가 드문 오늘을 살아가면서 생각나는 사람 가운데 하나가 고려 마지막의 명장 최영(崔瑩)대원수다.

용기와 힘이 뛰어난데다 담대하며 청렴결백하고 나라를 위해 충성을 다한 최영 장군은 고구려의 옛 강토를 회복하기 위해 평생을 싸움터에서 몸바친 사람이다.

아시아 대륙은 물론 유럽의 거의 절반까지 지배했던 정기스칸의 대원(大元)제국의 세력이 점차 약화되면서 중국에서는 원을 배척하고 자립하려는 움직임이 일기 시작했을 때 어린 최영은 글공부와 무예 닦기에 여념이 없었다.

그는 이름 난 명재상(名宰相)이며 대학자인 최유청(崔惟淸)의 5세 손이며 아버지 최원직(崔元直)은

사헌부의 고위법관으로서 몸가짐이 깨끗하고 덕망 높은 인물이었다.

아버지는 아들을 무릎에 앉히고 이렇게 타이렀단다.

『너는 나라를 자기 집과 같이 생각하고 사랑하라. 나라가 날로 쇠약해지고 있는 것은 사람들이 자기 집만을 알기 때문이다.

너는 황금을 돌과 같이 보아라. 나라 일이 날로 어지럽게 되는 것은 사람들이 황금만을 아끼기 때문이다.

너는 전기(戰技=전투 기술)를 배워라. 나라가 치욕(恥辱=수치와 모욕)에 빠져 있어도 적을 맞아 싸우지 못하는 서생(書生=학문을 닦는 사람)인 애비가 한스럽다.

그러니 너는 부지런히 전기를 익혀 그 티 없고 맑



사람이 나무에 못을 박을 때 모습



와



팔의 앞통 모습



로

■ 몇 장이나 되는 두꺼운 나무판에 못을 박자면 이를 악물고 힘을 기울여야 되기 때문에 「힘을 낸다·용감하다」의 뜻이 됐다.



은 머리에 상무(尙武=무예를 숭상함)의 정신과 애국심을 가지고 나라를 지키라」

아버지 최원직은 당시 원나라의 지배 아래 있던 고려의 나라꼴을 탄식하며 아들에게 원나라를 물리칠 정신을 심어 주는데 힘썼다.

최영은 아버지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어릴 때부터 동네 아이들 몇십명을 데리고 병정놀이를 하면서 자신이 팔도통사(八道都統使)를 맡아 연경(燕京=北京)에 쳐들어가 원나라 임금들을 잡아 올 것이라 하니 사람들이 모두 그의 담대함과 큰 뜻에 혀를 내둘렀다.

최영은 양광도 도순문사 진영에 군관으로 있을 때 왜구를 무찌르는 큰 무공을 세워 비로소 그 용명(勇名=용감한 사나이로서의 명성)이 조야(朝野=조정과 민간)에 널리 알려졌다.

당시는 공민왕 초기여서 임금 자신이 국토회복과

국정쇄신에 마음을 두고 배원자강책(排元自強策)의 길로 나가고 있던 때다.

역적 조일신(趙日新)이 반란을 일으키자 최영은 안우(安祐) 등과 함께 이 반란을 평정하고 대호군(大護軍=고려 공민왕 때 대장군의 고친 이름·중3품)이 됐다.

때마침 원나라는 중원(中原=원래는 중국문화의 발원지인 황하중류의 남북지방을 뜻하나 큰 뜻으로 정권을 다루는 무대를 가리킴) 곳곳에 반군이 일어났다.

방국진(方國珍), 유복통(劉福通), 이이(李二), 주원장(朱元璋) 등이 각각 군사를 일으켜 자신을 왕이라 칭하고 원나라를 배척하는 한족(漢族) 중흥운동을 펼쳤다.

다급해진 원나라는 고려에 원병을 청했고 최영은 유택(柳澤)과 함께 원나라 군을 돕기 위해 원정, 수

최영이 군사를 이끌고 진군하던 중 피로를 이겨내지 못해 쉬어가자는 간청이 군사들 입에서 나왔다.

『지금 우리가 쉬면 잠시 몸은 편해지나 이 순간에도 우리의 부모와 처자는 오랑캐의 창칼아래 무참히 죽어가고 있다. 어찌 쉬어 갈 수 있겠는가』

최영은 이렇게 군사들에게 타이르고 선두에 서서 진군하여 적을 물리쳤다.

또 왜구를 크게 물리친 공을 치하해서 왕이 그를 군의 최고 지휘관인 문하시중(門下侍中=고려 때 나라의 모든 정사를 도맡아 보살핀 대신, 중 1품)으로 승진시켰다.

그러나 최영은 『문하시중이 되면 싸움터에 나갈 수 없으니 왜구를 완전히 없앤 다음에 그 자리에 오르게 해주십시오』라고 끝내 사양했다.

최영이 몇 백척의 군선(軍船)을 건조해서 해안을 지키자 조정에서는 그에게 많은 상급(賞給=상을



「씩씩함」바탕으로 큰 뜻 품어야 요동정벌 꿈꾸던 최영장군 천추의 한

◀황금을 돌과 같이 알고 오로지 요동회복에 전생애를 걸었던 「호두장군」 최영.

많은 적의 장수를 베어죽여 큰 공을 세우니 적군들이 모두 최영을 호두(虎頭=호랑이 머리) 장군이라 하여 무서워 했다.

그는 이 원정을 통해 원나라 군사나 반군의 군사나 양쪽 모두 사기와 전투력이 별로 강하지 못하다는 것을 꿰뚫어보고 요동(遼東) 땅 회복의 신념을 더욱 굳힌다. 원나라가 혼란에 빠진 틈을 타서 요동을 치자는 최영 장군의 건의가 받아들여져 고려는 인당(印堂)을 주장(主將), 최영을 부장(副將)으로 삼아 압록강을 넘어 10개의 성(城)을 빼앗고 봉천부(奉天府=瀋陽)를 포위 공격하자 원나라가 고려에 강력히 항의하니 쫓대없는 공민왕은 철군을 명령했고 원나라가 요구한다고 주장 인당의 목을 베어 버렸다.

최영도 벼슬을 빼앗기고 쫓겨나자 국토를 돌며 구려 읍지문덕 장군과 광개토대왕의 유덕(遺德)을 기리며 북벌(北伐)의 기회를 노린다.

공민왕 8년 중국에 반원혁명군(反元革命軍)의 하나인 홍건적이 10여만의 군세로 일어나 국경을 침범했다.

최영은 또다시 서북면도통사를 맡는다.

춤을 내렸으나 최영은 이를 군사비(軍事費)로 헌납해 버렸다.

원나라를 몰아낸 명(明)나라가 아직 기반을 굳히기 전에 진공상태에 있는 요동을 치고 옛 강토를 되찾자는 최영이 팔도도통사, 이성계(李成桂)와 조민수(曹敏修)가 부도통사가 되어 10만 대군을 이끌고 진군했다.

그러나 명나라와 친해야 된다는 이성계가 그를 따르는 자들이 조민수를 위협, 설득해서 위화도에서 군을 돌려 개경(開京=開城)을 포위해 우왕을 내몰고 최영을 공로죄(攻遼罪)로 잡아 가둔 뒤 목을 베어 버리니 그때 나이 73세였다.

백발이 성성한 최영은 형장에 나가면서도 얼굴빛 하나 변함이 없이 칼을 받았다. 이날 개경의 남녀노소 모두가 눈물을 흘리며 그의 죽음을 슬퍼했고 가게는 모두 문을 닫아 애도의 뜻을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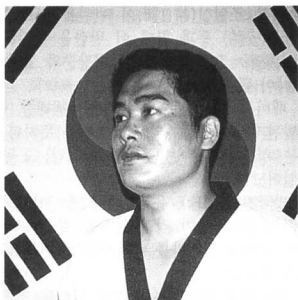
이조 초에 명신자인 대학자인 변계량(季良)은 최영을 위해 다음과 같은 시를 썼다.

『일편 장심(壯心)은 결코 죽을 일 없이 천추에 태산과 더불어 솟아 있으리라』

챔피언의

특 기

좀 봅시다



▲아직도 능숙한 나래차기의
실질적 창시자 한재구씨(36세)

「나래차기의 달인」

한재구의 특기 공개

한재구, 적어도 태권도인이거나, 아니 태권도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낯익은 이름이다.

특히 그가 지난 1986년 아시안게임 당시 결승전에서 뒤후리기 일격으로 멋지게 상대를 KO시키는 장면은 그날밤 KBS 9시 뉴스를 비롯한 모든 언론에서 대서특필 했다. 이로 인해 그는 당시 전 국민의 뇌리에 깊은 인상을 남겼고 현재까지 많은 이들이 태권도경기의 박진감을 말할 때면 바로 그 장면을 예로 들곤 한다.

(편집실)

국가대표 1진, 무려 5차례 뽐혀 깔끔하면서도 힘있는 발차기

한재구씨는 6회, 7회 세계대회를 2연패하고, 5회, 6회 아시아대회를 2연패 했으며, 1986년엔 아시안 게임에서 우승했다. 그 어렵기로 소문난 국가대표 1진에 무려 5차례나 선발된 바 있는 실질적으로는 세계대회를 5연패한 것이나 다름없는 경력의 소유자다.

현재까지도 한재구하면 태권도인들은 그 박진감 넘치고 돌파력 있는 공격과 깔끔하고 아름다운 곡선을 그리면서 동시에 스피드와 파워가 실린 그의 발차기

들을 떠올린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것은 바로 「나래차기」(속칭 '양발차기', '떠블', '쌍발차기')다.

그가 80년대 중반에 나래차기를 유행시키기 전까지는 태권도 경기에서 나래차기는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기술이었고 그다지 실용성이 없는 것으로 통했다.

그 까닭인 즉, 공중에서 앞돌려차기를 두번 해야하기 때문에 보통 순발력과 스피드, 파워로는 도저히 정확하고 힘있는 공격이 어려운 공격이었기 때문이

철퍼인의 특징

다.

“앞돌려차기를 많이하다 보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나래차기를 자연스레 익히게 되었다.”고 말하며, 스스로도 나래차기가 아니었다면 것처럼 화려한 선수경력을 가지기는 불가능했을 것이라 한다.

우연히 한 선배가 훈련 중에 차는 것을 보긴 했었지만 그 발을 자신의 특기발로 삼게 될 줄은 전혀 몰랐다는 것. 특기발은 경기 중에 가격에 성공한 뒤 얻은 자신감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것.

그의 특기발은 나래차기 말고도 원발 앞돌려차기, 오른발 뒷발밀어차기(속칭 'CUT 발'), 후진 스텝 360° 돌려차기(속칭 '백 턴') 등이다.

화려한 경력에도 불구하고 남 앞에 나서는 것을 싫

어하는 성격이어서 고향인 청주 근처 증평에서 조그마한 체육관을 열고 후진을 키우는 일에 전념하고 있다.

89년에 결혼한 부인 김민경(32세) 씨와의 사이에서 1남 1녀를 둔 아버지다. 그의 요즘 취미는 밤낚시다.

태권도계에서 가장 존경하는 이는 청주대의 은사님 이신 정만수 교수님이고, 좋아하는 음식은 청주의 명물 “붕어찜” 이다.

태권도계에 바라고 싶은 것은 철퍼인들에게 보다 혜택을 주어 후배들에게 많은 동기유발이 있어야 한다는 것. 다른 종목에 비해 선수들의 노력에 대한 반대급부가 여러 가지 면에서 현실이 못내 안타깝단다.

원발이 더 길다?

한재구씨는 오른발보다 원발이 더 길다. 과거 선수시절 경기에서 주로 원발을 사용했는데 훈련 때에도 원발 트레이닝을 중점적으로 해 원발이 조금 더 길어지게 되었다.

지금도 「한재구」하면 「아, 원발」할 만큼, 그의 원발 실력은 대단했었다.

원발이 길어질만큼 훈련을 했으니 당연한 일.

그래서 그의 별명도 “짤레”(짤름발이). 남들은 부끄러워 할 별명이지만 그는 젊은 시절의 초상과도 같은 것이라 오히려 자랑스럽단다.

그가 원발을 많이 사용하게 된 것은 대학에 들어가서였다.

전에는 주로 오른발을 많이 사용하였고 특별한 특기 없이 이것 저것 많이 사용하는 스타일이었다. 그러다 대학시절에 우연히 원발 발볼어 찌기를 매우 잘하는 선수와 경기를 하게 되었는데 이때 원발을 뒤에 놓고 앞돌려차기를 한번 시도한 것이 너무도 짜릿한 성공이어서 이후 부터 원발에 자신감을 갖고 사용하게 되었다고 한다.

다리가 부러진 채로 세계 제패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제6회 세계대회 때의 일이다. 당시 경기장의 전 관중들은 페더급의 선수에 주목하고 있었다.

장내는 매우 숙연했다. 그 선수는 오른발이 부러진 채로 경기에 나가 계속 승리하여 결승까지 올라왔기 때문이다.

관중들은 손에 땀을 쥐고 그 선수가 절룩거리며 스텝을 뛰다가 혼신의 힘을 다해 공격을 할 때마다 그의 투지와 정신력에 깊은 감동을 느끼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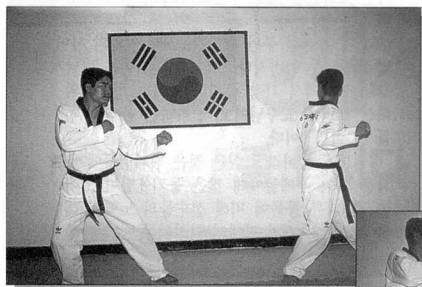
한재구는 다리가 부러진 것을 숨긴 채 국가대표팀 훈련에 임했고, 세계대회 경기장에 나가서도 다리가 부러진 것을 모두에게 비밀로 했다가 경기도중 의료진에 의해 사실이 밝혀졌다. 그는 때리고 붙는 전법을 구사하며 힘겹게 결승까지 올랐다.

이 사건으로 인해 당시 태권도 관계자들은 많은 유럽인 태권도 수련자들로부터 “태권도 정신의 진수를 보았다.”, “감동 그 자체였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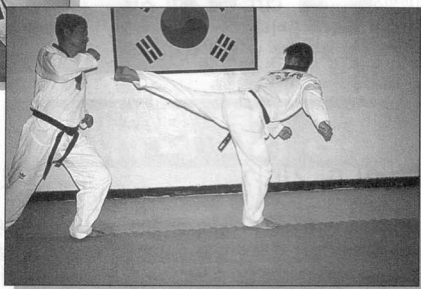
그는 멀리 유럽에서 한국 태권도 정신의 진수를 보여줬던 것이다.

챔피언의 특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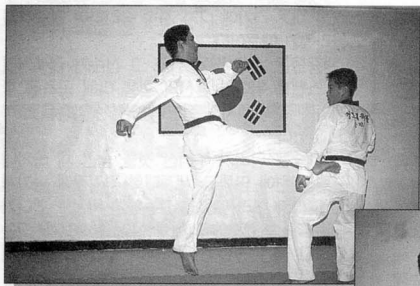
● 받아차기형 나래차기



1. 상대가 뒷차기 개시하는 순간 뒤로 빠지며 공격을 회피하는 것과 동시에 받아차기 스타일의 나래차기를 준비한다.



2. 상대의 뒷차기 공격을 후진스텝으로 회피한 순간 나래차기를 개시한다.



3. 오른발 앞돌려차기를 최대의 스피드로 실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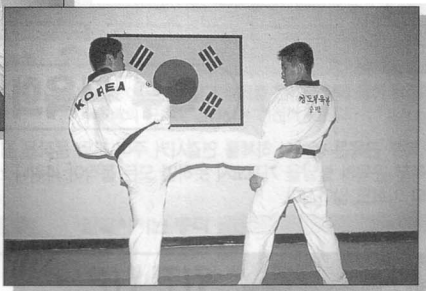


4. 오른발이 땅에 닿기 전에 바로 왼발 앞돌려차기를 실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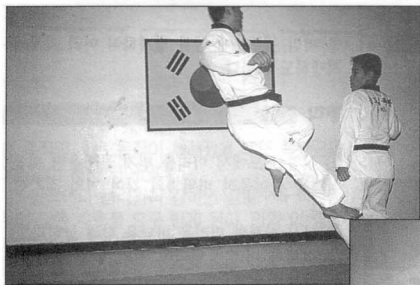
● 공격형 나래차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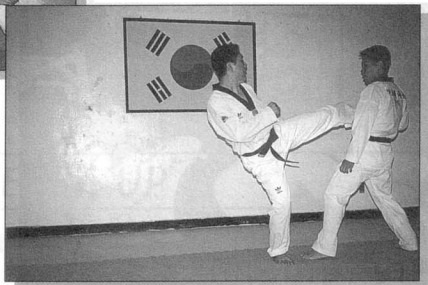
1.
공격 준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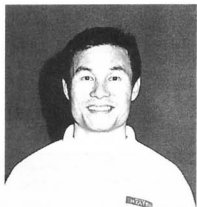
2.
상대가 공격시 후진하리라
예상되거나 적어도 몸의 중심이
전방이 아닌 후방에 실릴 때
가슴적으로 오른발 앞돌려차기를
최대의 스피드로 실행



3.
공중에서 상대의 후진스텝을 능가하는
스피드로 앞으로 따라돌아가며 오른발이
땅에 닿기 전에 왼발 공격을 한다.
이때 상대의 빠지는 정도에 따라 앞으로
들어가는 정도를 조정.
상대가 제자리있으면 제자리에서 공격.



4.
최대의 스피드로 상대의 가슴에
정확히 왼발 앞돌려차기를 가격한다.
주의할 것은 허리와 골반을 완전히
틀어서 양발을 모두 차야 한다는
것이다.
빠르게 차기 때문에 허리가
틀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수도
있으나 허리를 완전히 틀어서
무릎을 90°로 접어서 때려야 힘 있는
공격이 가능하다.



지도: 박 영 철

'76 미스터 코리아
'82, '86, '88 미스터 아시아
'88 미스터 유니버스 3위
'89 월드컵 2위
하이아트호텔 체력관리센터 부장

전문가가 지도하는

태권도를 위한

웨이트 트레이닝

시범 : 이 호 열 (태권도 공인 7단 국기원 심사위원)

복부 근육의 발달

복부 근육은 상체와 하체를 연결시켜 주며 모든 동작을 펼치는데 받침이 되고 도움을 주는 근육으로, 복부 근육의 발달을 가져오지 못하면 모든 동작이 파워나 스피드를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부상 의 기회도 많아진다.

시업

SIT UP

자세

- ① 시업 보드 받침패드에서 두 발목을 끼운 뒤, 무릎을 약 15도 가량 구부리고 등을 보드에 대고 눕는다.
- ② 두 팔을 교차시켜 가슴 위에 놓거나 아니면 두 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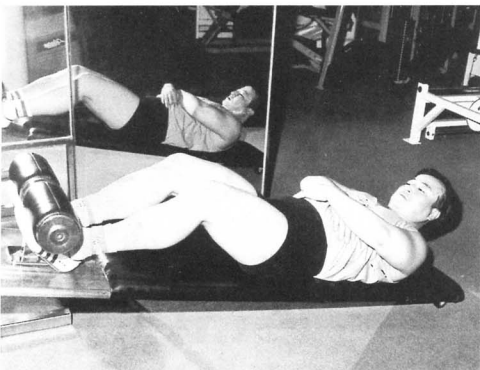
을 머리 뒷부분에 살짝 닿게하여 머리 자체의 무게를 지탱하도록 한다.

동작

- ① 시업 보드에서 머리를 먼저 들어올린 다음 서서히 상체를 들어올려 바닥과의 각이 거의 직각이 되도록 한다.
- ② 다시 상체와 머리를 바닥을 향해 눕힌다.
- ③ 상체와 머리가 바닥에 거의 닿을 무렵 다시 머리와 상체를 일으킨다.
- ④ 보통 15번 내지 25번 사이의 반복회수를 실시한다.

호흡

입으로 내쉬면서 머리와 상체를 일으키고 코로 들이 마시며 상체와 머리를 바닥을 향해 눕힌다.



◀ 바닥에 등을 대고 누워 팔을 펴 손을 엉덩이 밑에 놓고 무릎은 약간 구부려 허리의 부담을 줄인다.

주의점

- ① 두손을 머리에 대고 실시할 경우 지나치게 머리를 앞으로 잡아 당기지 않도록 한다.
- ② 복부근육의 긴장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뒤로 누울 때 상체와 머리를 바닥에 대지 말고 실시하도록 한다.
- ③ 요추 부분의 긴장을 줄이기 위해서는 무릎을 항상 구부리고 실시한다.

용용운동

- ① 상체를 일으키며 오른쪽 팔꿈치를 왼쪽 무릎에 갖다대며 다시 바닥을 향하여 상체를 뒤로 젖힌 뒤 이번에는 반대로 상체를 비틀어 왼쪽 팔꿈치를 오른쪽 무릎에 닿게하여 교대로 실시한다.
- ② 운동의 강도를 높이려면 보드의 경사 각도를 급하게 한다.
- ③ 한 쪽 부분의 발달을 위해서는 그 쪽으로만 상체를 트위스트하면서 실시하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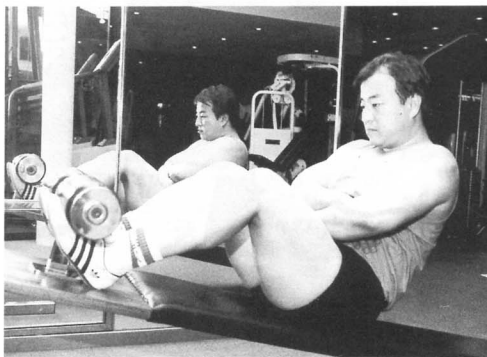
발달근육

- 복직근의 윗부분
- 외복사근
- 골반 굴근
- 대퇴 사두근

왜 복부 근육운동이 중요한가?

어떤 움직임 혹은 동작이 취해졌을 때도 복부근육은 어김없이 사용 되어진다.

또 그 동작이나 움직임이 강하면 강할수록 복부근육은 더 많은 수축을 요구 받게 된다. 만약 이 상황에서 알맞도록 요구되는 근 수축이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그로 말미암아 상해가 주로 요추 즉 허리 부분에 오게 된다. 다시 말하면 강한 복부근육 없이는 강한 동작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이야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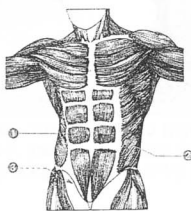
▲반동을 이용하지 말고 다리를 천정을 향해 들어 올린다. 이때 배의 근육을 긴장시켜 천천히 올린다.

발달시키는 동작

- 모든 킥 동작 혹은 움직임에 있어서 파워, 스피드, 균형, 안정성을 강화시켜 준다.
- 다리를 들어 올릴 때 스피드의 강화

· 싯 업으로 강화되는 근육

- ① 복직근
- ② 복사근
- ③ 장요근



리버스 싯 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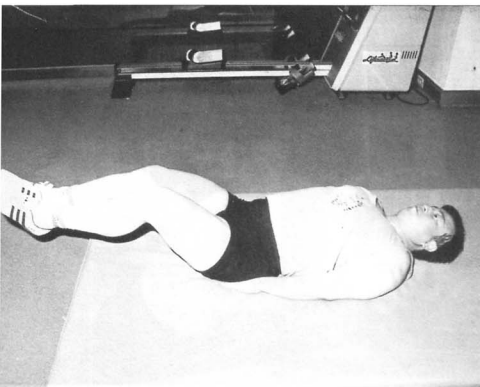
REVERSE SIT UP

자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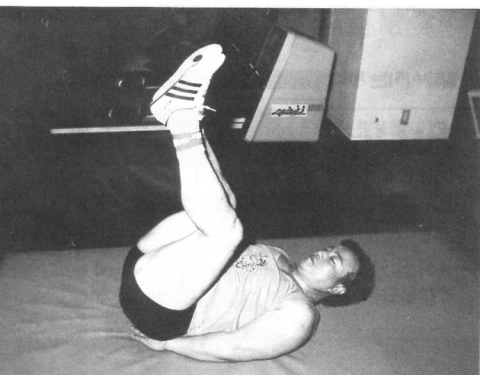
- ① 평평한 바닥에 등을 대고 눕는다.
- ② 양팔을 몸 옆으로 붙이고 두 손바닥을 바닥에 놓

는다.

- ③ 두 다리는 공중으로 들어올려 무릎을 약 10도 정도 구부리도록 한다.



▲벤치에 누워 무릎을 약간 구부려 등의 부담을 줄이도록 한다. 시업을 잘못하면 허리를 다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반동을 이용하지 않고 배의 근육으로만 몸을 일으킨다. 몸을 뒤로 누일 때도 배의 근육에 자극이 가도록 천천히 높되, 등을 완전히 벤치에 대지 않도록 한다.

트위스팅 시업 (TWISTING SIT UP)

- 위몸을 일으키면서 비트는 동작을 더하면
- 복직근과 함께 복사근에도 자극이 가서
- 강화가 된다.

동작

- ① 두 다리를 천정으로 향하여 곧게 위로 들어 올리도록 한다. 이 때 아랫허리가 바닥에서 들어 올려 지도록 하며, 가운데 등까지 바닥에서 살짝 들어 올리도록 한다.
- ② 두 팔과 두 손의 저항을 느끼며 두 다리를 다시 원위치로 돌아 오게끔 한다.
- ③ 위의 동작을 반복하도록 한다.
- ④ 10번 내에 20번 사이의 반복회수를 실시한다.

호흡

입으로 내쉬며 두 다리를 위로 들어 올리고 코를 들이마시며 두 다리를 내리도록 한다.

주의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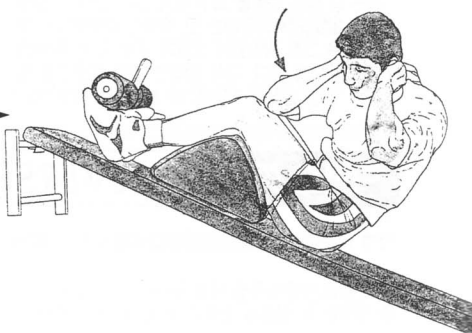
- ① 동작이 너무 빠르게 행하여지지 않도록 한다.
- ② 두 다리를 위로 들어 올리고 내릴 때, 두 팔과 두 손으로 저항을 사용하도록 한다.
- ③ 요추(아랫허리)에 통증이 있거나 문제점이 있을 때는 이 운동을 피하는 것이 좋다.

발달근육

-하복부근

발달시키는 동작

-다리를 들어 올리는 동작에서의 파워, 스피드 증진
-모든 킥 동작에서의 파워, 스피드, 안정성의 강화



화려한 발기술은 복근 튼튼해야

태권도의 태(跆拳道)는 발기술을 뜻한다.

중국의 쿵후나 일본의 가라데에 견주어 태권도는 화려한 발기술이 그 특징으로 꼽히고 있다.



발을 높이 들어 올리려면 다리의 근육이 강한 것 만으로는 안된다. 배의 근육 즉, 복근(腹筋)이 잘 발달되어 있어야 한다.

발을 앞으로 차서 치르는 경기인 축구에도 역시 복근이 잘 발달된 선수들이 많다.

태권도 선수들도 다른 종목의 선수들처럼 온몸의 근육을 고루 강화해야 되지만 특히 복근강화에 힘을 써야한다.

복근강화는 다리를 높이 들어올리는 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상대방으로부터 몸통공격을 받을 때 방패노릇도 해준다.

잊지말아야 할 것은 복근운동과 함께 복근의 길 항근(拮抗筋)인 배근(背筋) 즉, 등근육의 강화도 균형있게 처리야 한다는 점이다.

얼마나 자주 트레이닝을 가져야 하나?

일정 수준의 근력을 일정시간 이상 발휘하면 근력은 증가한다. 그러나 위의 두가지 조건을 충족시킨 데다가 얼마나 자주 트레이닝을 치르면 근력강화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일까?

그림을 참조하면서 트레이닝의 빈도(頻度)가 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본다.

예컨대 2주일에 1차례의 근력 트레이닝으로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최저 1주일에 1차례의 트레이닝이 필요하다.

이 빈도는 1주일에 2차례, 3차례로 증가하면서 그 효과도 커진다. 그리고 1주일에 7차례, 그러니까 매일 실시하면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운동량이 지나친 오버 트레이닝에 빠지면 피로 탓에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

따라서 착실히 트레이닝을 치르면서 피로가 쌓였다고 느껴지면 그 피로가 말끔히 가실 때까지는 트레이닝을 쉬는 편이 좋다.

그리고 1주일에 7차례 이상의 트레이닝을 치른다 해도 효과가 더 커지는 것은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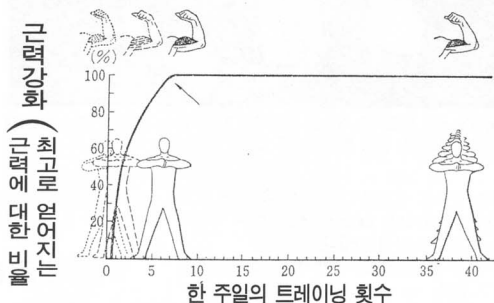


그림 : 근력 트레이닝에 있어서 횡의 조건 (헤팅거 · 1961년)

복싱 BOXING

9전 9승 - 초거인 복서 등장 러시아의 바로에프, 8KO승

218cm 145kg의 헤비급 기대주

중량에 제한이 없는 헤비급에는 옛부터 엄청난 몸집이 큰 거인들이 즐비했다. 그 가운데도 화제를 모았

인」이라 불릴 만하다.

이날 바로에프는 테렐 넬슨(미국)과의 4회전 경기에서 2회 1분 16초만에 TKO승을 거두었다.

73년 8월 21일 러시아의 페텔부르크 태생인 23살의 바로에프는 5년 전부터 복싱을 시작해서 1년 동안의 아마추어 생활 기간 중 12승 3패의 전적을 남기고 93년 독일에서 프로데뷔전을 2회 TKO승으로 장식했다.

그 뒤 홈링인 페텔부르크에서 3연승, 영국에서 2연승을 각각 거두어 한국계 러시아인 세계챔피언인 IBF(국제권투연맹) 웰터급 왕자인 콘스탄티 추 등 러시아인 복서의 매니저인 블래드 워튼의 눈에 띄어 지난 3월 호주로 활동무대를 옮겼다.

호주에서 2전 2연속 KO승을 기록한 바로에프는 미국으로 진출, 무거운 펀치로 테렐 넬슨을 1회전에서 다운시키고 2회전에서 피투성이로 만들어 TKO승을 거두면서 프로통산 전적을 9전 9승(8KO)으로 만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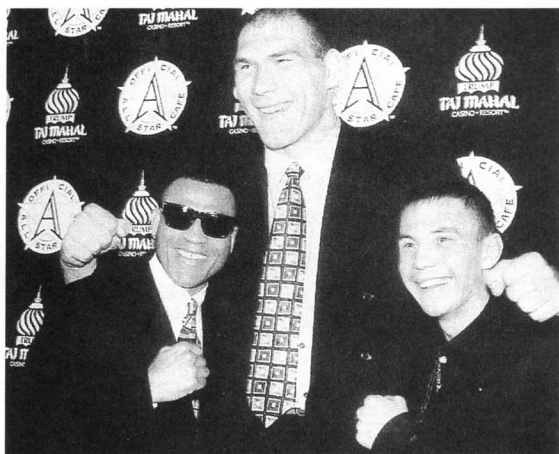
『복싱은 나의 천직(天職)이다』라고 말하는 바로에프는 6회전을 한 차례 싸워보았을 뿐 4회전까지 밖

에 경험해보지 않았지만 『빨리 랭킹에 들어가 세계타이틀에 도전하고 싶다』는 의욕을 나타내고 있다.

말썽많은 돈 킹, 전당에 들어가

지난 6월 15일 미국 뉴욕주 카나스토타에서 치러진 「97년도 복싱전당 영입 표창식」에서 말썽 많은 프로모터 돈 킹이 표창을 받았다.

올해로서 8년째를 맞는 이 식전은 지금까지 178명의



▲엄청난 몸집을 지닌 바로에프(러시아)가 한국계 러시아인 세계챔피언 (IBF·웰터급)인 콘스탄틴 추(오른쪽) 등과 함께 포즈를 잡고 있다.

던 사나이는 헤비급 챔피언(1933~34년)을 지낸 프리모 카르네라(이탈리아)로 196cm의 키를 지녀 「움직이는 알프스」란 별명이 붙어 있었다.

요즘에는 헨리 아킨완데(영국)가 201cm의 거인으로 주목을 끌고 있다.

그러나 이들도 지난 5월 31일 미국 뉴저지주 애틀랜틱 시티의 링에 등장한 니콜라이 바로에프(러시아)에겐 주면 어린애나 다름없다.

바로에프는 키 218cm, 몸무게 145kg으로 가히 「초거

전문지들이 전하는 세계격투기 소식



◀97년도 복싱 전당 영입 표창식에서의 슈거 레이 레너드 (왼쪽부터) 호세 토레스, 돈 킹, 무하마드 알리

복싱관계자를 받아들였다. 세계 각지의 기자, 관계자 등 약 150명의 투표에 의해 해마다 13명이 뽑히도록 되어 있어 올해에는 돈 킹 말고도 웰터급에서 라이트 헤비급까지 제패한 전(前) 세계챔피언 슈거 레이 레너드, 전(前)라이트헤비급 세계챔피언 호세 토레스 등이 뽑혔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가장 주목을 끈 인물은 역시 돈 킹. 킹이 복싱계에 남긴 공적은 누구나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아프리카의 자일에서 치른 무하마드알리와 조지 포먼의 헤비급 세계타이틀매치, 필리핀의 마닐라에서 거행한 알리와 조 프레이저의 대결 등 지난 4반세기의 헤비급 빅 이벤트는 거의 돈 킹의 독점상태에 있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니다.

헤비급 이외에도 93년에 멕시코 시티에서 치른 홀리오 세자르 차베스와 그렉 호겐의 경기에는 12만명에 이르는 관중동원을 기록하는 등 그 수완은 높이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스캔들이 끊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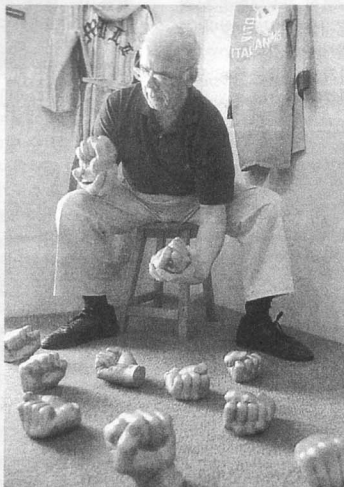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 돈 킹이 60년에 일으킨 두 건의 살인사건(한건은 정당방위가 인정됐지만 또 한건은 유죄로 복역 경험)을 비롯해서 마피아와의 유착소문, 탈세용의, 사기용의, 선수와의 계약을 둘러싼 법정투쟁 등 프로복싱 흥행업계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준 사건이 적지 않다.

이런 돈 킹이 전당에 들어간 것에 세상 사람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돈 킹은 『내가 전당에 받아들여진 것은 여러 사람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는 나의 인간성과는 관계가 없다. 지금까지의 다대한 공헌이 인정받은 훈장이라고 생각한다.』고 스피치를 통해 말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매스컴은 돈 킹이 전당에 들어가는 사실에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세계챔피언들의 모형주먹



“아니, 이게 누구의 주먹이야?” 라고 놀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이 사진의 주먹들은 모두 모형으로 만든 것이니까 끔찍하다고 여기지 않아도 된다.

이 주먹들은 미국 뉴욕에 있는 복싱 명예전당에 장식되는 것으로 올해 전당에 들어간 슈거 레이 레너드, 호세 토레스 등 지난 날의 위대한 세계챔피언, 그리고 말썽 많은 거물 프로모터 돈 킹의 주먹을 본 뜬 것이다.

가라데 KARATE

가라데, 10년 만에 FISU 공인 받아 내년 파리대회부터 공식 승인

올림픽 종목화도 기대

일본의 가라데가 FISU(국제대학스포츠연맹)의 공인을 받게 됐다.

FISU는 내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세계학생가라데도 선수권대회를 공인하기로 결정했다고 일본의 가라데 전문잡지 '월간 가라데도'(8월호)가 보도했다.

일본의 가라데는 유파(流派)가 하도 많아 각각 독자적인 대회를 열어 교류가 적었던 4년전, 대학생 가라데인들이 뜻을 모아 유파를 초월한 학생 가라데도연맹을 결성하고 제1회 전일본대학가라데도 선수권대회를 치렀다.

다음해부터 대회명칭을 제1회 전일본학생가라데도 선수권대회(개인전)로 바꾸고 제1회 동서대항전을 창설함으로써 '명확한 물아래 경기를 해보고 싶다'는 학생들의 뜻을 구체적으로 실현시켜 나갔다.

해마다 전일본학생선수권대회의 출전교는 늘었으며 87년부터는 여자부의 대회도 생겼다.

유파의 벽을 깨뜨린 대회를 열어 일본가라데계의 선구자가 된 학생가라데도 연맹은 86년 고베에서 학생가라데계 최초의 국제대회를 열었다. 그때의 참가국은 고작 9개국.

그러나 10년의 세월이 흐른 지난해 드디어 제1회 세계 학생가라데도 선수권대회를 개최하기에 이르렀다.

참가국은 20개국으로 10년전에 견주어 비약적으로 그 수가 증가했고 일본세는 13개 종목 가운데 9개 종목을 금메달을 휩쓸었다.

대학가라데가 FISU의 승인을 받기까지에는 부단한 노력이 있었다.

FISU의 경기대회가 어떤 것인지를 살피기 위해 지난 1월 한국서 열린 무주·전주 동계유니버시아드를 시찰하기도 했다. 현재 FISU가 주최하는 대학생종합체전인 유니버시아드는 2년마다 홀수의 해에 열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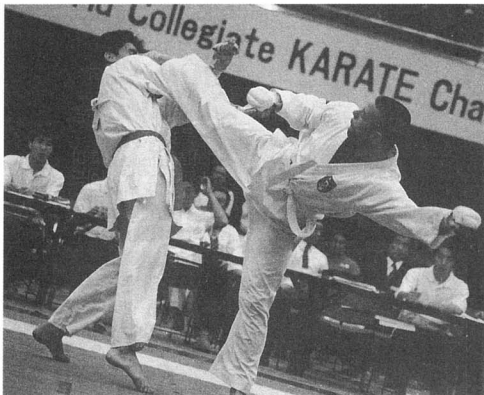
유니버시아드의 주경기종목은 육상, 농구, 펜싱, 축구, 체조, 경영, 다이빙, 수구, 테니스, 배구의 10개종목이며 개최지가 희망하는 경우 2개종목을 추가할 수 있다.

86년의 후쿠오카 유니버시아드 때에는 야구와 유도가 보태졌다.

현재 FISU가 공인하고 있는 세계선수권대회는 양궁, 요트, 배드민턴, 카누, 카약, 오리엔티어링, 크로스컨트리, 사이클, 체스, 승마, 골프, 핸드볼, 유도, 윈드서핑, 테슬링, 스쿼시, 태권도, 탁구, 트라이애슬론, 풋살 등이며 이 대회는 짝수의 해에 열린다.

대학가라데의 세계선수권대회가 FISU의 공인을 받게 된 것은 가라데의 올림픽 정식종목 채택 추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프랑스에서 열린 세계대학가라데도 선수권대회는 FISU(국제대학스포츠연맹)의 공인을 받게됐다.



전문지들이 전하는 세계격투기 소식

극진가라데 세계챔피언 야마끼 영화계로

극진가라데의 간판스타였던 야마끼 겐지(八巻建志)가 영화에 진출, 액션 스타가 된다. 야마끼는 이미 같은 극진가라데 출신인 세계적 액션스타 랑그렌(우리나라에서는 룬트그렌으로 부르고 있으나 몇해전 극진



▲극진가라데의 슈퍼스타였던 야마끼가 액션스타의 길을 택했다. 체격 좋고 인물 좋고, 격투기 실력 좋고, 머지않아 영화에서도 슈퍼스타가 될지 모른다.

가라데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만나 본인에게 확인한 결과 랑그렌이 부르는 것이 맞다고)의 도움으로 액션영화 「퍼니셔」에도 나간 일이 있다.

체급별 그리고 무제한급의 두 일본선수권대회에서 우승했고 세계챔피언의 타이틀도 따내고 그 어렵다는 100명도 소화해낸 야마끼는 고 최영의 관장, 그리고 현 문장규 관장이 가장 아끼고 있는 극진가라데의 대들보다.

야마끼는 『이소룡이나 성룡같은 타입이 아니라 아놀드 슈왈츠네거나 스티븐 시걸같은 타입의 액션스타가 되고 싶다. 영화를 통해 참된 극진가라데를 보여주고 싶다. 모두에게 꿈과 용기를 심어준다면 극진가라데의 이미지를 높이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미 몇 편의 영화에 출연교섭을 받고있는 야마끼는 배우수업을 위해 ACTOR'S SCHOOL에 다니고 있으나 연기를 익히는 것이 가라데 수련보다 어렵다고 웃는다.

현역시절의 몸매를 유지하기 위해 매주 사흘은 웨이트 트레이닝에도 시간을 쪼개고 있다고.

액션영화에 나가게 되면 총도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사격훈련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

액션영화에서는 오토바이를 타는 일도 있을 것같아 대형 오토바이 면허도 땀다.

외국영화에 나가기 위해서는 감독 및 스태프들과의 의사소통도 필요하다고 영어회화도 배우고 있다. 머지않아 또 한 사람의 동양계 액션스타가 온세계 젊은이들의 우상이 될지도 모르겠다.

최영의 관장 「가라데 全科」 출간

일본의 대표적인 실전 가라데인 극진가라데의 창시자 고(故) 최영의(일본이름 大山倍達) 관장의 유고를 모은 「가라데 全科」가 출간됐다.

그동안 최영의 관장은 「WHAT IS KARATE」, 「THIS IS KARATE」 등들의 베스트셀러를 많이 냈으나 말년에는 가라데의 모든 것을 담은 「가라데 全科」 집필에 온 힘을 기울렸었다.

일본 도쿄의 노벨출판이 출간한 「가라데 全科」(이론편)는 A4판형 280 페이지로 값은 12600엔(약 10만원)이다.



스포츠 소식



김 홍 국

문화일보
체육부 기자

한반도 세계화 시키는 태권도

세 기말의 와중에서 21세기를 고민하고 있는 지구촌 한반도의 화두는 국제화, 세계화다. 오는 12월 대통령선거를 앞둔 문민정부가 정권 출범 초기에 내세웠던 세계화는 지금도 줄을 잇는 어학연수와 배낭여행, 유학 등을 통해 해외로의 엑소더스 열풍을 이어가고 있다. 그런 한반도에서 가장 세계화된 부문을 꼽는다면 기자의 경험으로는 단연코 스포츠, 그중에서도 축구와 태권도를 들게 된다.

2000년 시드니 올림픽부터 정식종목으로 등록, 당당하게 세계 핵심스포츠로 자리잡은 태권도는 전세계 어느 나라나 사상, 종교, 인종을 불문하고 의연하게 자리잡고 있다. 그런 태권도 사랑을 해외에 나갈 때마다 다시 발견하고 확인하게 되곤한다. 국내에서는 무슨 파와 무슨 파의 대결이 벌어지고, 서로를 헐뜯는 전화가 줄을 잇고, 그로 인해 순수한 태권도인들의 가슴이 멍을 때마다 아래서야 종주국의 국기로써 세계를 호령하겠나 하는 한탄이 절로 찾아온다.

그러나 열사의 사막과 빙하의 남극 등 오지 곳곳에서 태권도를 보급하고 있는 사범들과 태권도인, 그리고 태권도를 배운 외국인들의 강한 태권도 사랑을 목격할 때마다 가슴은 감격으로 차오르게 된다. 그런 느낌은 제11회 세계청소년축구대회 취재를 갔던 말레

이지아에서도 우연하지만 그러나 당연히 발견할 수 있었다.

한국 청소년대표팀이 브라질의 스트라이커 아다일톤에게 6골을 내주며 3 - 10으로 유린당한 지난 6월20일 오전 말레이시아 보르네오섬 서북단의 휴양도시 쿠칭 거리. 그곳 상가에 필요한 물건을 사러갔던 기자는 반대편 거리의 간판을 둘러보다 깜짝 놀랐다. 길 건너편 4층 건물에 「태권도 에어로빅 아카데미」란 글씨가 영문으로 적혀있는 것이 아닌가.

궁금증이 일었다. 특히 태권도란 영롱한 글씨는 영어였지만 한글처럼 선명하게 가슴 깊이 박혀왔다. 같이 간 3명의 동료기자들이 "귀찮다. 빨리 택시 타고 호텔로 돌아가자"고 불평하는 것을 다독거리려 길을 건넜다. 그러나 4층의 「태권도 에어로빅 아카데미」는 쇠문에 채워진 낯익은 자물쇠로 단단하게 닫혀 있었다. 아쉬움을 감추며 포기하고 거리로 내려가 다시 길을 건너려는 순간이었다.

한 청년이 길을 건너 그 건물로 들어가며 손을 흔드는 모습이 보였다. 귀엽게 생긴 동남아 청년이었기에 우리도 무심코 손을 흔들었다. 잠시 후 「태권도 에어로빅 아카데미」가 있는 4층의 창문을 연 청년은 다시 창문 밖으로 미소지으며 손을 흔들었다. 우리도

박찬호 11승 - 파이팅

미국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LA 다저스의 코리야특급 박찬호(24)가 11승 고지를 원투승으로 돌파했다. 박찬호는 8월 1일 미국 시카고 리글리 구장에서 열린 시카고 컵스와의 경기에서 1실점하는 역투로 10승째를 따낸데 이어 8월 13일 LA 다저스 홈구장에서 열린 시카고와의 경기에서 4안타에 삼진 7개를 뺏아내며 11승째를 기록했다. 박찬호는 이로써 메이저리그 데뷔 이후 선발 33경기만에 완

투승을 따냈고 미국 메이저리그 다승 10위(11승 6패), 방어율 3.10, 피안타 0.209, 삼진 121개를 뽑아냈고 홈런 17개, 4사구 59개를 허용했다. 91년 다저스와 계약후 도미한 뒤 마이너리그를 전전하며 힘든 시간을 보냈던 박찬호는 이로써 메이저리그 특급투수로 부상하며 메이저리그 통산 100승, 동양인 최초의 사이영상 수상 등의 가능성을 한껏 높였다. 박찬호는 또 15승 고지를 넘어설 경우 다저스로부터 다년계약과 함께 연봉 1백만달러를 넘어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의아한 느낌이 들었지만 손을 흔들어 반갑다고 제스처를 취했다.

택시를 잡기 위해 30여분을 서서 차를 기다렸지만 택시는 좀체 오지 않았다. 답답한 마음으로 택시잡기에 동분서주했다. 그러자 4층의 그 청년이 손을 흔들며 우리에게 다가오라고 손짓했다. 저 청년이 태권도 도장에선 일하냐 보다 하는 생각과 함께 호기심이 일었다. 4층으로 올라가자 그 청년이 반갑게 맞으면서 나를 호텔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 도장을 둘러보니 1백여평이 넘는 공간에 도복과 매트 등이 깔끔하게 정돈돼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자신을 「태권도 에어로빅 아카데미」를 이끌고 있는 관장 겸 사범 첸이라고 소개하며 12년째 태권도를 배

지구촌 곳곳서 사범들 맹활약 인터넷에 자기 사이트 개설도

워왔다는 청년은 자신이 가르치는 제자만 8백여명에 이른다고 자랑했다. 어린 시절부터 배운 태권도가 그렇게 즐거울 수 없었고 그래서 평생의 업으로까지 이어졌다. 것이었다. 특히 한국에서 온 태권도 담당자란 말에 이 청년은 중구국에서 온 태권도기자라면서 반갑다고 열차 안까지 하는 것이었다. 어쨌든 택시를 잡지못해 땀에서 진땀을 흘리며 고민하던 우리는 생전 본 적이 없음에도 따스한 친절을 베푸는 말레이시아 청년의 자가용으로 호텔까지 편안하게 올 수 있었다.

이런 일들은 해외에 가면 무수하게 당한다. 중국의 베이징과 광저우에서도 그런 외국출신 태권도인을 만날 수 있었고 미국의 애틀랜타와 워싱턴, 로스앤젤레스, 호주의 시드니와 멜버른에서도 그들을 만났고 유도와 유수가 숭앙되는 도쿄와 홍콩, 북경에서도 태권도인들의 혼은 살아있었다. 물론 우리 사범들의 자신을 희생한 헌신과 노력은 눈물겹기까지 했다. 멜버른

과 시드니로 양분된 호주 사범들에게서도 단적으로 보이는 분열의 이미지보다는 태권도 사랑을 느낄 수 있어 즐거웠다.

기자는 그런 모습을 3개월 전 방한했던 송암태권도의 창시자 이행웅씨에게서 볼 수 있었다. 미국태권도협회(ATA) 회장인 이씨는 빌 클린턴 미국대통령의 스승으로 미국내 8백개 도장 및 15만명의 태권제자를 두고 있는 미국내 최대의 태권마스터. 이씨를 직접 만나기 전 기자는 밤을 새워 인터넷을 향해하던 중 송암태권도를 마주친 경험이 있었다. 검색엔진 야후(Yahoo)와 인포시크(Infoseek) 등을 통해 태권도라는 단어를 검색하는데 곳곳에서 가라데, 합기도, 쿤후라는 단어가 튀어나와 불쾌감이 일던 중간이었다. 송암태권도라는 이름의 태권도는 생소했지만 금금증과 함께 그 내용의 선진적인 측면에 상당한 호감을 갖게 됐던 것. 21세기 도장의 태권도답게 스포츠 마케팅과 무도의 개념을 조화롭게 지켜나가기 위해 고민하는 모습은 상당한 매력을 느끼게 했다. 사실상 인종차별이 극심한 미국땅에서 사범들의 피나는 노력속에 세계화의 초석으로 살아 꽃피는 태권도의 모습에 느끼는 당위적인 감동이었던 것이다.

그런 태권도인들은 세계 곳곳에 살아 있었다. 특히 외국인으로서 태권도장을 열고 맹렬히 활동하는 것과 함께 인터넷에 자신의 사이트를 개설한 사람들은 뿌듯한 감동을 안겨줬다.

특히 엘리트에서 Alive and Kicking으로 연결하면 나와있는 태권도와 색스의 차이점 13가지, 태권도를 익히기 위한 10가지 과학적 원리 등 태권도에 관련된 여러 내용들은 태권도를 친숙하게 익힐 수 있는 재미있는 내용으로 구성돼 태권도를 가깝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세계현장에서 직접 부딪히거나 인터넷이라는 사이버공간에서 마주치는 세계속의 태권도는 이제 태권도를 올림픽 정식종목이 된 세계의 스포츠, 세계인이 함께 하는 스포츠라는 사실을 확인시키고 있다.

무르익은 월드컵 본선진출

한국축구의 4연속 월드컵 본선진출을 향한 꿈이 무르익고 있다. 한국은 7월 22일 실시된 98년 프랑스 월드컵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조추첨에서 일본, 이라크, 미얀마, 캄보디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이 속한 B조를 선택, 사우디, 쿠웨이트, 이란 등 중동팀과의 대전을 피하게 됐다. 한국은 9월 6일부터 시작될 최종예선경기에 앞서 8월 10일 세계최강으로 호니우도, 둥가, 주닝요 등이 속한 브라질전에서 김도근이 선취골을 뽑아냈으나 경기종료 직전 호

니우도와 안데르손에게 연속골을 허용, 1-2로 역전 패했다.

한국은 이어 지난해 아시안컵에서 한국에 참패를 안겨준 이란과의 초청경기와 한·중정기전을 통해 전력평가 및 극대화를 꾀할 계획이다.

한국은 황선홍, 허석주, 고종수 등의 부상 및 홍명보, 고정환 등의 해외진출로 전력차질이 예상됐으나 이들이 대부분 합류하게 돼 차범근시단은 탄탄한 전력을 유지하게 될 전망이다. 8월중 울산 보조구장에서 훈련하게 된다.

고두현의 SCORECARD



스코어카드

어째서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지난 6월28일 프로복싱 WBA(세계권투협회)
헤비급 타이틀매치에서 도전자인 「핵주먹」
마이크 타이슨은 챔피언 이번더 홀리필드의 귀를
몰아뜰어 실격패 당하고 말았다.

내가 끔찍하다는 것은 홀리필드의 귀가 잘려져나
가 피투성이가 됐다고 해서가 아니라 주먹만을 써
야 될 복싱에서 이빨로 상대방을 물어뜯은 타이슨
의 짐승같은 행위를 두고 하는 말이다.

스포츠에서는 홀리필드가 당한 것보다 더 심한 부
상을 목격하게 되는 경우가 적지않다.

경우 스포츠가 풍기는 산뜻함은 사라지고 오직 동
물적인 투쟁같은 피비린내 나는 잔인함만이 관중들
로 하여금 혐오감을 느끼게 만든다.

타이슨은 복싱이라는 스포츠를 투전(개 싸움) 같
은 잔인한 구경거리로 만들어 버렸다.

그 뒤 타이슨은 자신의 잘못을 사과하면서 『이길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초조함에서 그와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털어놓았다.

공격본능의 극치적 표출이기도 한 복싱에서는 공
격이 제대로 먹혀 들어가지 않을 경우 때로 수단방
법을 가리지 않고 상대방에게 대미지를 입히고 싶

타이슨의 실수가 남긴 교훈 격투기는 스포츠라야 한다

미국 프로 아이스하키 디트로이트 레드윙즈의 스
타였던 고디 하우는 얼굴에 500군데 이상의 상처와
깨맨 자국이 남아있다.

1919년 잭 뎀프시가 당시의 프로복싱 헤비급 세계
챔피언인 제시 윌러드를 3회 KO로 몰리쳐서 타이
틀을 빼앗았을 때 윌러드는 여러개의 뼈가 부러져
있었고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만치 짓이겨져 있었
다. 그러나 스틱을 휘두르는 난투극은 프로 아이스
하키에서는 손님을 끌기 위해 벌이는 목시적 합의
에 의한 반칙이고 프로복싱에서는 갈비뼈가 부러지
건 턱이 깨지건 주먹에 의한 가격이라하면 아무런 문
제가 되지 않는다.

아무리 선수의 안전대책을 고려한 합리적 경기규
칙에 따라 치른다 해도 격투기 경기는 때로 선수의
목숨을 빼앗을 만치 위험할 수가 있다.

다른 경기종목 보다 격투기 종목에서 경기규칙 준
수가 더욱 강조되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또 격투기에서 경기규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은 충동을 느끼게 되나 보다.

외신이 전하는 바에 따르면 홀리필드도 아마추어
시절 경기가 잘 풀리지 않자 상대방을 깨문 적이
있었다고 한다.

타이슨이 홀리필드를 물어뜯은 사건이 일어난 일
마 뒤 헤비급 복서 출신인 제키 윈터스는 「17년전
조지아 골든 글러브스 대회 준결승 2회전에서 홀리
필드에게 오른쪽 어깨를 깨물려 피를 흘린 적이 있
었다.」고 털어놓았다.

윈터스는 「왼 주먹으로 몸통을 치고, 이어 오른 주
먹으로 머리를 가격하자 홀리필드가 격분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몇차례 더 때렸더니 홀리필드는 이
성을 잃고 마우스 피스를 내뱉은 뒤 달려들어 내
어깨를 물었다.」고 그때 상황을 상세히 돌아다.

홀리필드는 깨물기 반칙으로 1점 감점을 당한 뒤 3
회 심판전원 일치의 판정패를 당했다고 윈터스는
말했다.

『복서가 경기중 마우스 피스를 뺀고 상대방을 깨

문다는 것은 여간해서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지만 절박한 상황에서는 일어날 수도 있다. 인간은 천사가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 그런 일을 겪을 수도 있고 저지를 수도 있다.』는 것이 윈터스의 말이다.

프로복싱에서는 귀나 어깨 뿐 만 아니라 코를 물어 뜯는 사건도 있었다.

미국의 에이브 어텔이라면 1906년 페더급 세계왕좌에 올라 21차례나 타이틀을 지킨 천재복서다.

그 에이브 어텔이 1908년 1월 오웬스 모런과 대결했을 때 반칙의 명수인 모런은 경기 중 엄지와 검지의 두 손가락으로 에이브의 목을 쥐어 숨을 못 쉬게 만들었다.

당시의 글러브는 매우 얇았기 때문에 거의 맨손이나 다름없어 손가락을 움직이기가 쉬웠다.

숨이 막힌 에이브는 겨우 모런의 손을 뿌리치고 큰 소리로 외쳤다.

『그런 짓 하지마! 모런!』

그러나 모런의 반칙은 계속됐다.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은 에이브는 마지막 경고를 모런에게 던졌다.

『이번에 다시 치사한 짓 하면 네 콧잔등을 물어뜯을거야』

이 경고도 아랑곳 않고 모런이 상굴거리며 또다시 에이브의 목을 조이자 에이브는 이를 뿌리치고 정말로 모런의 콧등을 물어 살점을 뜯어내고 말았다.

피투성이가 된 모런이 해비급 세계챔피언 출신인 주심 짐 제퍼리츠에게 항의하자 처음부터 돌아가는 상황을 지켜보아 왔던 제퍼리츠는 이 항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너도 에이브 어텔의 코를 물어 뜯으면 될 것 아니야』라고 대답했다.

이 경기는 두 선수 모두 피로 범벅이 된 채 25회가

지 싸워 무승부로 끝났다.

당시만 해도 15회전이 끝난 뒤 매니저가 동의하면 엑스트라 라운드(EXTRA ROUNDS)라고 5회나 10회의 연장전을 치를 수가 있었다.

경기 중 물어뜯는 것은 프로복싱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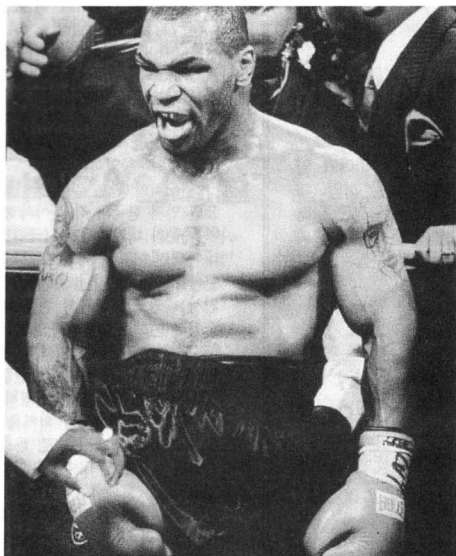
1924년 파리 올림픽 복싱 미들급 8강전에서 영국의 해리 멀린은 프랑스의 브로쉬를 시종 압도했으나 3명의 심판은 브로쉬가 이겼다고 채점했다.

선수대기실에 돌아온 멀린은 셔츠를 찢어 자신의 가슴에 뚜렷이 남아 있는 브로쉬의 잇발자국을 보여 주었다.

클린치했을 때 브로쉬가 멀린을 물었다는 증거였다.

다음날 경기임원들은 회의를 열고 브로쉬를 실격시켜 버렸고 멀린은 끝내 금메달을 차지했다.

복싱팬들은 격렬한 대결을 지켜보면서 자신의 내면에 축적되어 있는 스트레스를 날려 보내려고 한다. 그러나 그 대결이 경기규칙의 테두리 안에서 공정하게 치러지지 않을 경우 팬들의 마음은 떠나가 버리게 마련



▲홀리필드를 물어뜯은 타이슨은 복싱이라는 스포츠를 개싸움 같은 잔인한 구경거리로 만들어 버렸다.

이다.

얼마전 미국의 일간지 USA TODAY가 2125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타이슨을 복싱에서 영구추방하자는 의견이 1,367명이었고 영구추방 반대는 766명 뿐 이었다고 한다.

모든 스포츠맨, 특히 격투기 선수들은 타이슨의 실패를 거울삼아 제아무리 흥분하더라도 상식 밖의 반칙을 저질러서는 안된다는 점을 되새겼으면 좋겠다.

남자 핀급



2진 박희강(왼쪽·한체대)이 원발로 1진 김병태(응원대)의 몸통을 노리고 있다. 박희강 3:2로 승리.

태권도 종주국 우리가 지킨다

대표 1·2진 평가전

오는 11월 홍콩에서 열릴 태권도의 제13회 세계남자 선수권대회와 제6회 세계여자선수권대회는 이미 한국 대표선수 선발 1차 평가전이 태릉선수촌에서 치러진 7월 16일에 실제로는 이미 막을 올린바나 다름없다.

사실 태권도 종주국이자 최강국인 한국의 대표 1·2진이 격돌하는 평가전은 낮추어 잡아도 거의 세계선수권의 4강전. 높이 잡으면 체급에 따라서는 결승전에 견줄만 한 경기내용도 적지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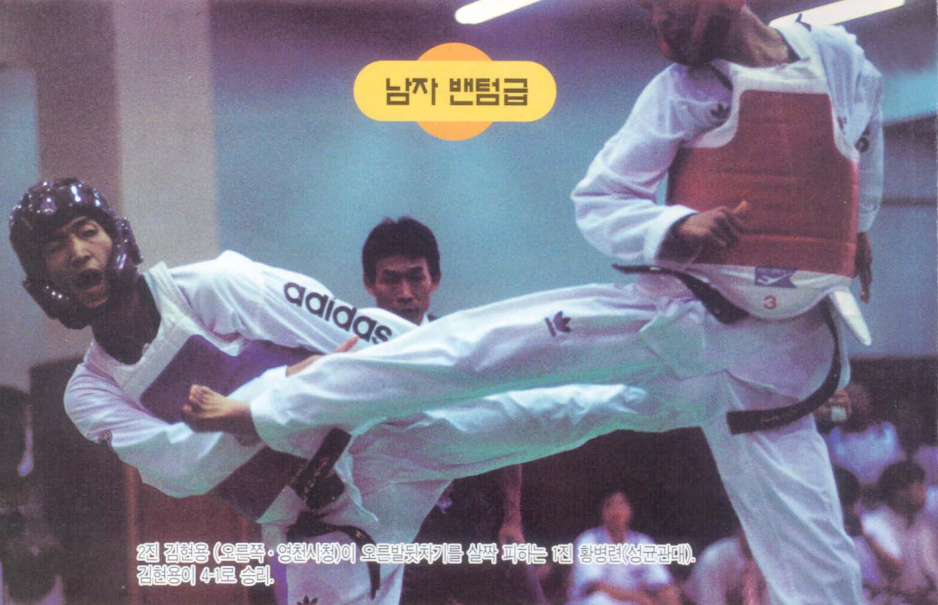
3차례에 걸친 대표선수선발 평가전의 첫 대결을 확보로 본다.

남자 플라이급



2진 진승태(왼쪽·가스공사)의 원발공격에 1진 최만웅(한체대)이 오른발뒷차기로 반격을 시도했으나 타이밍을 놓쳐 실패했다. 진승태가 3:0으로 이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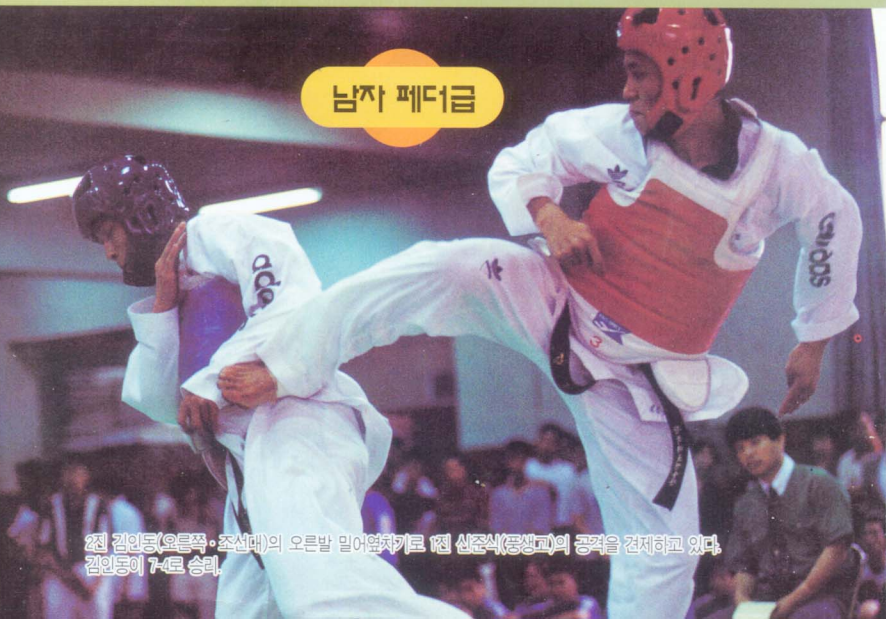
남자 밴텀급



2전 김현웅(오른쪽·영천사정)이 오른발 윙아웃차기를 살짝 피하는 1전 항병련(성균관대). 김현웅이 4:0로 승리.

「태권도 종주국」 우리가 지킨다

남자 페더급



2전 김인동(오른쪽·조선대)의 오른발 밀어엮차기로 1전 신준식(동생고)의 공격을 견제하고 있다. 김인동이 7:0로 승리.

A photograph of a Taekwondo sparring match. On the left, a fighter in a white uniform with a purple chest protector and a black helmet is in a dynamic pose, shouting with his mouth open. On the right, another fighter in a white uniform with a red chest protector and a red helmet is facing him. The background is slightly blurred, showing an indoor arena setting.

남자 라이트급

1전 심기선(왼쪽·경희대)이 원발공격이 2전 김병욱(국군체육부대)에게 터졌다.
심기선이 5-4으로 이겼다.

국가대표 1·2전 평가전

A photograph of a Taekwondo sparring match. In the foreground, a fighter in a white uniform with a purple chest protector and a black helmet is seen from the back, with his arm extended. In the background, another fighter in a white uniform with a red chest protector and a red helmet is facing him. The background is slightly blurred, showing an indoor arena setting.

남자 웰터급

정신이떨어도 순발력이 뛰어난 1전 김경훈(오른쪽·한체대)이 오른발 발붙여차기를 2전 양원철(제주 협회)에게 퍼붓고 있다. 8-4로 김경훈이 이겼다.

남자 미들급



1전 이동원(오른쪽·한체대)의 원발 발붙여차기가 2전 김민우(동아대)의 오른손막기 동작에 의해 저지되고 있다. 이동원이 5-2로 승리.

「태권도 종주국」 우리가 지킨다

남자 헤비급



1전 김제경(오른쪽·삼성물산)의 오른발 뒷발앞돌려차기가 2전 병원철(한체대)의 옆구리에 꽂혔다. 김제경이 4-1로 박승.

여자 핀급

여자 핀급의 1차 평가전은 실현되지 않았다. 1진 박정희(오른쪽·한체대)가 부상을 이유로 기권했기 때문에 2진 양소희(한체대)가 싸우지 않고 승리를 거두었다.

국가대표 1·2진 평가전

여자 플라이급

1진 서미라(오른쪽·인천시청)가 원발 밀어원차기로 2진 윤승희(한체대)를 견제하고 있다. 윤승희가 예상 밖의 4:1로 승리.



여자 밴텀급

1전 황은숙(오른쪽·인천시청)의 원발찌기 공격을 2전 전남수(경성여대학교)가 클린치로 위기를 벗어나고 있다. 전남수가 1-1 끝에 우세승.

「태권도 종주국」 우리가 지킨다



여자 페더급

2전 정재은(오른쪽·한림여대학교)의 원발 밀어엮차기에 1전 진용순(충청시청)의 오른발 뒷차기 반격이 유효타로 성공. 3-3 끝에 정재은의 우세승.

여자 라이트급

2진 강래은(왼쪽·상명여대)의 원발 앞꿈발붙여차기가 1진 신통선(인천사청)에게 시도되고 있다.
신통선이 2:1로 승리.

국가대표 1·2진 평가전

여자 웰터급

1진 조항미(왼쪽·인천사청)의 원발 밑어엮차기에 2진 안근아(한체대)가 오른팔 앞돌려차기로 반격하고 있다. 조항미가 4:0으로 압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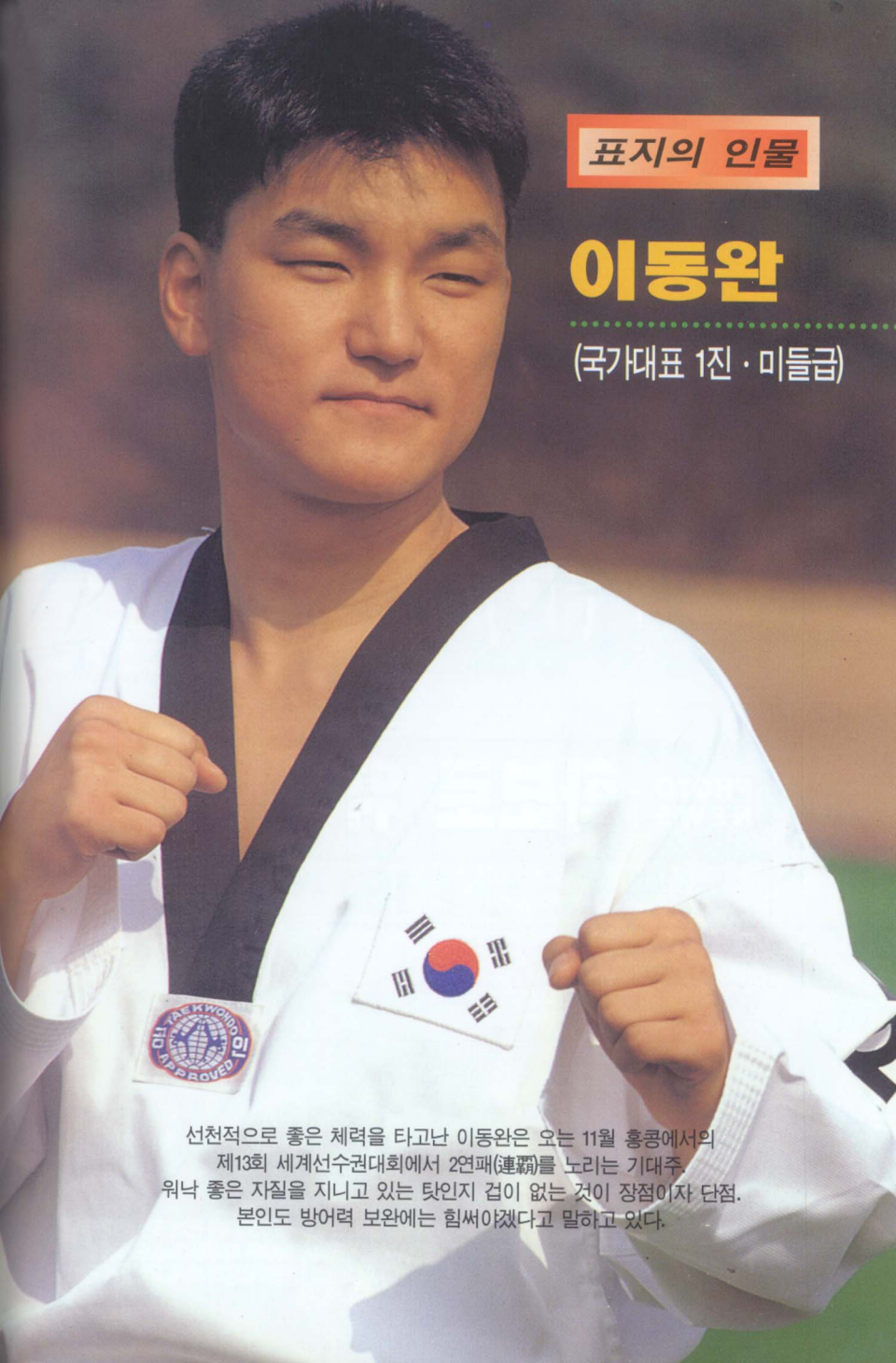
여자 미들급

2진 우원정(왼쪽·고려대)의 왼발 앞돌려차기에 1진 박선훈(춘천사정)가 오른발 받아차기로 맞서고 있다. 1-1 끝에 우원정이 우세함.

「태권도 종주국」 우리가 지킨다

여자 헤비급

1진 정명숙(오른쪽·경희대)이 오른발 받아차기를 2진 권재희(리라공교)에게 가하고 있다. 정명숙이 7-1로 크게 이겼다.



표지의 인물

이동완

(국가대표 1진 · 미들급)

선천적으로 좋은 체력을 타고난 이동완은 오는 11월 홍콩에서의 제13회 세계선수권대회에서 2연패(連覇)를 노리는 기대주. 워낙 좋은 자질을 지니고 있는 탓인지 겁이 없는 것이 장점이자 단점. 본인도 방어력 보완에는 힘써야겠다고 말하고 있다.

생활체육지도자 검정시험

지난 7월 30일 한국과학기술대에서 87년도 1차
3급 생활체육지도자 자격 검정시험이 치러졌다.
제57기, 58기 시범 및 3급 생활체육지도자
연수과정을 마친 태권도 4단 이상 고단자들이 응시함
이 국가고시는 올 12월에 2차 시험이 있을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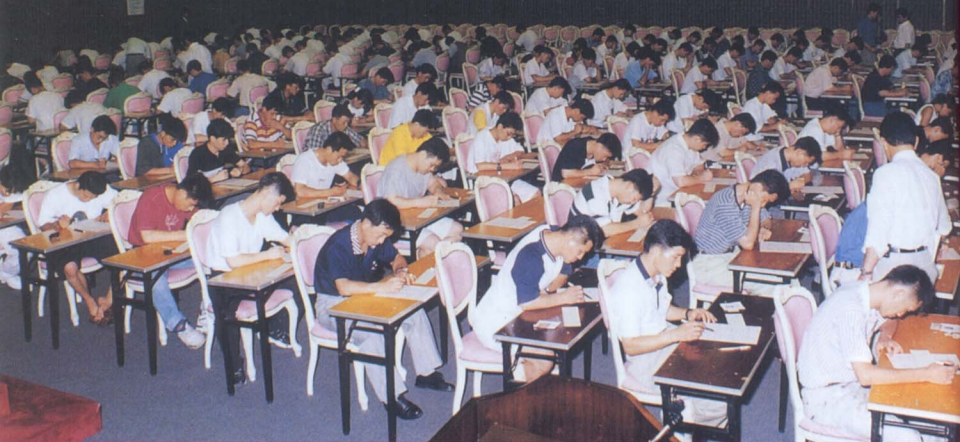


PHOTO
NEWS

화보로 엮어 본

태권도계 이모저모



7월 16일 태릉선수촌에서 치러진 국가대표 1차 평가전을 지켜보는
(왼쪽부터) 이상균 태릉선수촌장, 이종우 세계태권도연맹 부총재,
이승원 대한태권도협회 부회장, 김찬원 분철회 이사, 정길순 강원도
협회 부회장, 노우중 분철회 전무.



▲올해 신한국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대통령후보로
선출된 이회창씨가 지난 7월 10일 광주에서 태권도
관계자들과 태권도계의 현황에 대해 환담을 나눴다.
이회창씨는 6. 25당시 부산 피난시절 같은 집에 살던
태권도 고수에게 직접 태권도(당시 "당수"라 호칭)를
오랫동안 사사 받은 바 있는 태권도인이다.

▼대한태권도협회는 7월 29일 신라 호텔 3층
라일락실에서 97년도 제3차 이사회를 열고
97년도 상반기 사업 및 수지 현황 등을
보고 받고 WTF(세계태권도연맹)에 제출할
경기규칙 개정안 등을 놓고 토의했다.





▶박영진 교수와 후보선수들과 함께 기념 촬영.

▶교육중인 후보선수들을 찾아 격려금을 전달하는 이흥주 본협회 부회장 (왼쪽), 가운데는 노우중 본협회 전무.

후보 선수단 교양교육

남녀 32명으로 이뤄진 중·고교 국가대표 후보선수들이 7월 28일 서울 체육고등학교에서 유명 서예가이자 경기대 서예학과 박영진 교수로부터 총 5일에 걸친 교양교육을 받았다. 교육내용은 21세기 주역으로서 청소년들의 활동방향, 민족문화·예술의 발전방향, 노자·장자의 예술관 및 인생관이 주는 교훈, "하먼 된다"와 "극기복례" 정신의 교훈 등이다.



파키스탄선수단 내한 합숙훈련

(한마당 체육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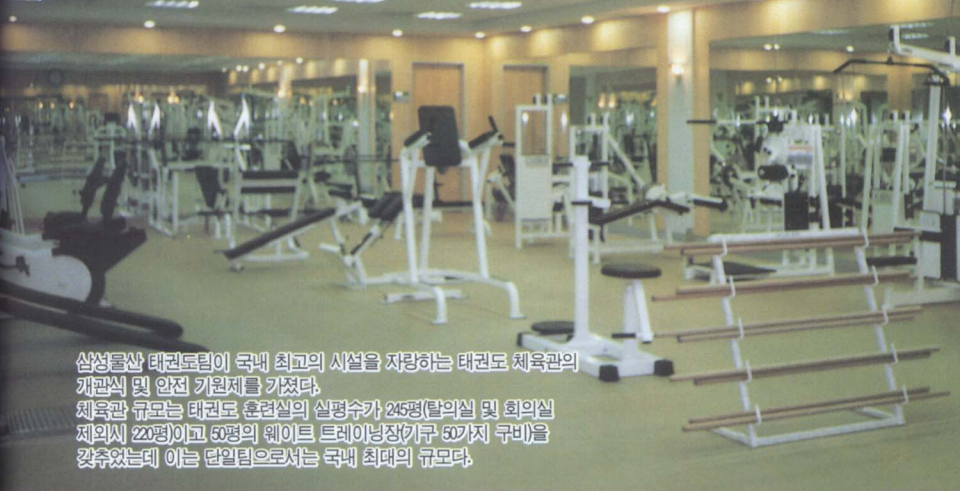
파키스탄 태권도협회 선수 6명이 한국 태권도 고수회의 초청으로 열흘간의 합숙훈련을 지난 6월 4일부터 15일까지 오금동 한마당 도장에서 갖고 강신철 고수회장으로 부터 교육을 받았다. 이번 교육은 96년 파키스탄협회 사무총장이 내한하여 강신철 회장과 계약을 맺은지 6개월 만의 일로서 선수들은 2단의 실력을 갖추고 있다. 팀 리더는 Iftakhar-Ali, 선수로는 Kashif-Gulzar, Naeem-Shahzad, Sarmad-Rashid, Khuram-Tanveer, Ayyaz-Ahmad.

▶파키스탄 태권도협회 SHRAE 회장의 감사패가 강신철 고수회 회장 (오른쪽)에게 전해지고 있다.



▶옷통을 벗어 던진채 태권도의 기본 동작을 익히고 있는 파키스탄 수련생들.

삼성물산 태권도 체육관 개관



삼성물산 태권도팀이 국내 최고의 시설을 자랑하는 태권도 체육관의 개관식 및 안전 기원제를 가졌다.
체육관 규모는 태권도 훈련실의 실평수가 245평(탈의실 및 회의실 제외시 220평)이고 60평의 웨이트 트레이닝장(기구 50개) 지 구비를 갖추었는데 이는 단일팀으로서는 국내 최대의 규모다.

▲태권도팀으로서는 최신장비와 최대규모를 자랑하는 웨이트 트레이닝장.

▶새로 개관한 체육관에서 실력을 닦게 될 삼성 태권도팀(왼쪽부터) 김제경, 정광채, 이승민 원선진 선수, 김철오 코치, 김세혁 감독.

▲개관식에 참석한 (왼쪽부터) 홍종수 원로, 노우중 대한태권도협회 전무, 양영모 기술심의회 부회장, 김세혁 삼성감독.

▼『부디 이 체육관에서는 단 한차례의 안전사고도 일어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체육관 안전기원제(속칭「고사」)를 지내고 있다.





제18회 문체부장관기 전국초등대회

1,448명 참가

제18회 문체체육부장관기 전국 초등대회가 7월 28, 29일 이틀간 국기원에서 열렸다.

전국 160개교에서 1,448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이 대회에서 겨루기 부문 남자부는 경기 구운초등학교가 우승을 차지했고, 여자부 1위는 경기 덕소초등학교에 돌아갔다.

겨루기 종합순위

● 남자부

순위	소 속
1위	경기 구운
2위	경기 신흥
3위	경기 신흥
4위	서울 일원
5위	서울 신사

● 여자부

순위	소 속
1위	경기 덕소
2위	경기 성남
3위	서울 양남
4위	경기 신산
5위	경기 오남

겨루기 여자부 1위는
덕소초등학교에 돌아갔다.



겨루기 입상자 명단

● 남자부

체 급	금	은	동	
핀 급	고진호 인천 만석	정현태 전북 광산	이대환 경기 수지	이승훈 경기 구운
플라이급	박 진 경기 이매	김병국 서귀포 중앙	이민복 경기 구운	황민우 경기 신흥
밴 텡 급	임재훈 경기 복사	양근현 인천 문학	하승민 충남 홍남	이호성 강원 교동
페 더 급	강경신 경기 신산	고준호 성남 제2	최세원 강원 근덕	이동환 대구 야양
라이트급	장경훈 인천 구월서	장준희 경기 신흥	이상렬 대구 야양	이명수 전남 법성포
L 웰터급	윤민식 경기 양정	이동희 경기 구운	노종철 강원 중앙	이종원 경기 일신동
웰 터 급	이광호 경기 신흥	한범석 전북 월곡	임성균 강원 우산	어원경 경기 신일
L 미들급	장건필 서울 신사	권진한 대구 다사	이영화 충남 서림	김인성 충남 홍남
미 들 급	김희곤 서울 일원	박민우 전남 돌산	김윤섭 경기 이천	이재욱 경기 화릉
L 헤비급	우태영 경기 구운	오승환 경기 화릉	조천근 제주 성읍	박지만 대구 화원
헤 비 급	윤보성 충남 서산	이상일 강원 치악	김효성 서울 중계	유윤호 경기 세곡

● 여자부

체 급	금	은	동	
핀 급	이유나 제주 신산	박미라 경기 대일	강해미 경기 덕소	안지은 경기 왕남
플라이급	김보라 경기 구운	윤진원 서울 양남	한순미 제주 신촌	남희수 경기 성라
밴 텡 급	황경선 경기 양정	김진희 강원 신동	이은화 대구 다사	허은희 경기 오남
페 더 급	이혜실 경기 덕소	김민경 성남 제2	이예슬 서울 양남	김보람 경기 중원
라이트급	정미선 경기 성남	이은숙 경남 거창	이옥남 전남 부영	이윤혜 경남 위천
L 웰터급	정재영 대전 홍릉	이민애 경기 금빛	김다혜 인천 서곶	최솔잎 성남 초동
웰 터 급	임양은 경기 덕소	문나래 전남 법성포	박지연 전남 부영	이윤옥 서울 수색
L 미들급	최은미 충북 업정	김한나 인천 내가	정지현 서울 창도	김민희 대전 진잠
미 들 급	손혜민 강원 우산	박영은 경기 성남	윤미라 서울 수색	장기선 경기 광명북
L 헤비급	전은경 경기 덕소	정윤주 경기 중원	권정주 서울 양남	강인이 전남 부영
헤 비 급	박희정 강원 만천	노은경 경기 성남	대인진 서울 대림	김용화 경기 신산



덕소초등학교 응원단의 간절한 (?) 응원.



판공 경기에서 인천 만석초등학교 고전호(홍)가 전북 광산초등학교 정현태를 앞발 내려찍기로 공격하고 있다. 고전호의 승리.



겨루기 여자부 라이트 헤비급 경기에서 경기 덕소초등학교 전용경이 우승하는 순간.